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동네만들기 지원센터
2010 프로젝트북 '신나는 상대원시장 원다방 3'

발행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편집인 하동근
기획총괄 박승현
기획진행 김지훈
발행처 성남문화재단
www.sncf.or.kr / www.snart.or.kr

발행일 2011. 2

글 이초영
사진 이초영 이길순 한유진 양희정 윤혜숙

디자인 디자인좋은날 / 김영아
인쇄 상원인쇄

©성남문화재단



신나는 상대원시장

원
다
방 ③

CONTENTS

- 8 프로젝트북을 펴내며
- 9 여는 시 _ 재래시장 / 박인자
- 10 사업소개

I. 2010년 원다방의 봄, 여름, 가을 원다방의 세 계절 이야기

- 14 4월 느낌표 1 _ DJ 워크숍 '동네만들기 사업이란 무엇인가'
- 15 5월 느낌표 2 _ DJ 교육 '친해지길 바래'
- 17 6월 느낌표 3 _ 재미나는 시낭송, 첫 행사
- 20 6월 느낌표 4 _ 6월 작은음악회
- 26 8월 느낌표 5 _ 8월 작은음악회
- 27 8월 느낌표 6 _ 이재명 성남시장님, 원다방에 오다.
- 31 9월 느낌표 7 _ 9월 작은음악회
- 36 10월 느낌표 8 _ 김장하던 날 글쓴이: 박신명
- 41 11월

II. 원다방 DJ 박스에서 일어난 일 _ DJ 인터뷰

- 46 3년동안 원다방과 상대원시장의 변화 실무위원장 박정숙
- 49 "이런 말재주와 목소리는 없죠" 방송국장 장미라
- 52 원다방의 영원한 누님 엔지니어 이길순
- 55 신명나는 세상을 꿈꾸며 박신명
- 58 목소리나는 엄마 DJ 박인자
- 61 "훈이씨, 아주 진국이여" 김성훈
- 64 책 읽어주는 DJ 정은화
- 66 일주일간 방송 준비하는 꼼꼼한 DJ 박인경
- 68 진도가 고향인 옥주 아재 손종구
- 71 4시에 만나요! 장윤정
- 73 아이디어 बैं크 김두산
- 76 "성남과 결혼했죠." 박광천
- 78 내 닉네임은 언제나 '푸르미' 소병익
- 80 "나도 DJ", 성남방송고등학교의 멋진 학생 DJ들
- 83 느낌표 10 _ 특별 게스트 _ 성남여성의 전화, 여성인력개발원, 서울풍물시장

III. 상대원시장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

원다방의 든든한 후원인,
상인 인터뷰 (1)

- 90 "깨는 기름 짜버리면 시집 가는 거야" _ 박한수, 김정술
- 94 곁에 있어서 항상 고마운 사람 _ 조길연, 이봉효
- 99 손님과 함께 울고 웃은 30년 _ 손용일
- 102 우리네 어머니, 할머니 _ 윤여덕
- 105 "베플면 돌아와요." _ 박영철, 이재복

IV. Never Ending, 상대원시장

원다방의 든든한 후원인,
상인 인터뷰 (2)

- 112 언제나 오픈마인드 _ 김선옥
- 115 내가 진짜 라디오 스타 _ 박정미
- 118 느낌표 11_시장야채에서 온 편지
- 119 만두 속에 담긴 비밀 _ 김조현, 조순희
- 122 훈남 2인방 _ 이재경, 유민선
- 124 행복한 엄마, 아내 _ 김복만
- 126 상대원시장의 '따도남' _ 김상민
- 128 오늘도 행복한 아침 _ 김수정
- 131 느낌표 12_ From. '오늘도 우울한 아침'
- 132 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며 _ 박화자
- 134 든든한 지원군 _ 이성경

V. 원다방의 힘찬 도약

- 138 12월, 새로운 2011년 준비 '원다방 송년회'

프로젝트 문을 펴내며

모든 이의 얼굴에 미소가 넘쳐나게 하는 상대원시장 사랑방 원다방

30년간 상대원시장 앞 삼거리로 지켜온 ‘원다방’은 성남 시민 모두에게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원다방이 2003년에 문을 닫게 됩니다. 2008년에 9월 22일 탄생된 신나는 상대원 방송국 ‘원다방’은 문화예술을 통해 상대원시장을 살리는 재래시장 프로젝트로 탄생되었습니다. 2010년도에 벌써 세 돌을 맞이한 원다방은 지난 2년간의 활동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탄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유난히 길고 눈이 많았던 겨울을 지나 따뜻한 봄의 계절 4월에 상대원시장 원다방에서는 운영위원회 회칙안 및 작은음악회, DJ워크숍, DJ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준비로 앞으로 다가올 행사에 대비해 한참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4월, 5월은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 작은음악회가 취소되기도 했지만, DJ워크숍에서는 마을만들기 사업은 무엇이며 왜 우리가 마을만들기를 해야 하는지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성미산 마을극장의 유창복 선생과 지희 재단 박승현 부장이 모든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사례들을 함께 나누는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기도 했습니다. 6월부터 시작한 작은 음악회에서는 외부 사랑방클럽들의 참여보다는 상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함으로써 상대원 원다방이 조금이나마 상인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상인과 지역주민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는 모습 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하고 있는 원다방 사업이 진정한 의미의 원다방으로 다가서기 시작했음을 느끼게 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유난히 무덥고 지루하게 지속되었던 7월과 8월을 지나 9월에는 추석맞이 큰 음악회를 열렸는데 이재명 시장님과 각 유관단체장, 시의원, 도의원들로부터 원다방에 대한 관심을 더욱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9월 이후부터 운영위원회에서는 자문위원의 효율적인 구성 및 향후 원다방의 자생방안에 관해 진지한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3년간 재단의 지원 이후 원다방이 어떤 방향으로 자생력을 키워나가야 할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이에 재단과 동네만들기 지원센터, 상대원 실무위원들은 모두 심각한 고민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는데 이때 생각해낸 것이 운영위원회의 역할강화와 후원회 조직안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원다방의 자생력이 확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원다방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임에는 모든 관계자들이 인식을 같이하고 이에 다양한 의견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2년동안 상대원 원다방 라디오 방송국을 이끌어왔던 장미라 라디오 방송국 국장을 비롯한 12명의 DJ들은 기존 방송형식에 더하여 상인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라디오 프로그램의 제작 및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방송을 지속해 나갔습니다. 상인회의 관심을 유도하고 운영위원회, 상인, 지역주민, 동네만들기 지원센터, 재단관계자, 시 관계자 모두가 후원

회 조직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상대원 원다방의 새로운 탄생을 위한 후원결성에 다들 앞장 서게 되었으며, 마침내 후원회 결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미래의 상대원시장 라디오방송국 원다방에 대한 작은 발걸음에 불과한 것이었지만 이는 실로 큰 행보와 발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다른 마을만들기 지역과는 달리 주거지역이 아닌 상권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마음의 문을 잘 열지 못했던 상인들의 상대원 원다방에 대한 시선 또한 조금씩 긍정적으로 바뀌는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올 한해에도 상대원 원다방은 성남시의 크고 작은 여러 시장가운데서도 중량과 지역연에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외부 지역 재래시장의 라디오방송국 설립에 관한 문의 및 벤치마킹 대상으로서 전국적인 명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상대원 라디오 방송국을 이끌어 왔던 장미라 DJ국장님을 비롯한 12명의 DJ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조길연 운영위원장님과 모든 운영위원분들, 실무위원회의 모든 일을 책임지고 이끌어 주셨던 박정숙 실무위원장님, 자문위원분들 외 작은 음악회 때마다 무대세트와 모든 행사기획에 열을 쏟느라 고생하신 한유진 팀장님, 원다방 프로젝트 북 제작을 위해 상인분들과 인터뷰하시느라 고생하신 이초영 작가님,관심과 애정으로 원다방운영에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상대원 원다방이 상대원시장의 주요한 명물로서 상인분들과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진정한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그리고 성남의 동네를 상징하는 상대원의 사랑방으로 원다방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성남문화재단

여는 시

재래시장

박인자

비 내리면 늘어진 가슴으로
땃국물 흘려 내리고
천막을 기운 하늘 땅 물자리에선
바지가랑이 젖어도 이제는 괜찮아

내 손 잡아주던 아름다운 이름
미도집, 오바로크집, 지물포집
눈 감고도 밥 바꾸니 들고 날랐던
국제시장 고무신 짙 팔

예쁘게 들리지 않은 그 말이 싫어
땅도 하늘도 사람도 거꾸로 매달았다

나를 깨우는 나이팅게일을 따라 걷는다
쌍둥이기름집, 평택신발, 원다방
신발을 벗어 던진 물고기처럼
자유롭게 노래하리라
시장을 살리는 DJ들과 신나게

사업소개

문화와 예술을 나누는 문화공동체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내가 생활하는 동네에서, 우리동네 사람들과 문화예술을 함께 만들고 전파하여 모두 행복한 동네가 되는 것을 꿈꾼다. 문화예술을 매개로 하여 ‘우리들만의 문화’를 만들어보자는 의미인 문화공동체는 생활 영역 안에서 문화와 예술로 하나되자는 의미도 함축하고 있다. 생활 영역 안에서 접할 수 있는 여러 참여형 문화예술 활동은 내 안의 창조성이 발현되는 경험을 통해 이웃간의 소통을 시작하고 매개하며, 결속을 다지는 역할을 한다. 더 나아가 도시 속 파편화된 개인의 삶을 회복시켜 문화공동체에서 지역공동체로 시각을 넓히는데 더 큰 역할을 한다.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2006년 성남문화재단은 5대 정책사업을 세울 당시, 모든 사업의 중심에 ‘시민’을 두고 5대 정책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켰다. 정책 사업의 주체는 ‘시민’이어야 한다고 굳게 믿었다. 그 중, 창조시민이 주축인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구축사업’과 행복한 우리 동네를 꿈꾸는 주민들이 주축인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두 축이 되어 5년간 꾸준히 사업이 진행되었다.

1단계 3개년 ‘시민주체 형성을 위한 시범사업’에서는 동네별 특징에 따라 골목길, 아파트, 시장, 상가, 공단 등 5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각 유형별 대표 지역에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2006년 태평 4동 ‘예술, 태평동에서 노닐다’, 2007년 은행2동 은행주공 아파트 ‘풀장환상’, 상대원공단 ‘콩닥콩닥 예술공단’은 외부 공공미술 전문가와 지역 작가, 활동가들이 결합하여 공공미술 영역과 주민참여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각 동네에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공동체성 회복에 대한 시사점을 던져주었다.

2단계 5개년 ‘문화공동체 시스템 만들기’ 사업이 2009년부터 현재까지 한창 진행 중이다. 동네의 주인인 주민과 지역단체, 기관 등이 연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동네별 이슈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동네별 주체를 세우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단계가 끝나는 2020년에는 ‘창조시민’이 주체가 되어서 만든 ‘행복한 창조도시 성남’의 모습을 갖출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신나는 라디오방송국 ‘원다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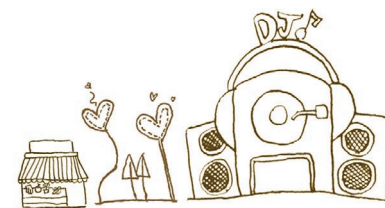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상대원동에 공단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그 주변부(現 상대원플라자)에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다. 공단 근무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던 상대원시장은 현재 성남에서 남아있는 골목형 재래시장 중에 한 곳이다.

30년간 시장 앞 삼거리를 지켰던 카페 ‘원다방’의 이름을 상징적으로 이용하여 2008년에 만든 신나는 상대원 방송국 ‘원다방’은 재래시장 활성화와 주민, 상인들간의 화합을 위해 탄생되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라디오 DJ 12명이 각종 소식을 알려주는데, 상인들은 사연과 신청곡을 종이에 적거나 전화로 신청한다.

4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셋째주, 원다방이 주관하는 ‘작은음악회’가 시장길에서 열렸다. 특히 노래자랑 시간에는 시장상인, 상대원동 주민들, 단골손님들, 상대원 2,3동 주민자치센터 노래교실 회원들이 모두 무대에 섰다. 2011년 ‘원다방’의 힘찬 도약을 지원하면서 원다방 후원회가 조직된 바 있다.

주민, 동네의 주체이자 객체

‘동네만들기 지원센터 사랑마루’가 세운 최종목표는 주민 스스로가 문화공동체 주체로 서는데 있다. 앞으로 계속 살아갈 동네의 주체와 객체 모두 ‘동네 주민’들이고, 집 바깥인 동네로 어떻게 나오게 할 것인지, 어떻게 동기부여를 해야 할 것인가는 동네만들기 사업을 하는 모든 기관 및 조직, 사람들과 사랑마루의 영원한 숙제이자 과제일 것이다.



신나는 라디오방송국
'원다방'

4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셋째주,
원다방이 주관하는 '작은음악회'가 시장길에서 열렸다.
특히 노래자랑 시간에는 시장상인, 상대원동 주민들,
단골손님들, 상대원 2,3동 주민자치센터
노래교실 회원들이

모두 무대에 섰다.

2011년 '원다방'의 힘찬 도약을 기원하면서
원다방 후원회가 조직된 바 있다.

I

2010년 원다방의 봄, 여름, 가을

원다방의 세 계절 이야기

봄. 여름. 가을

2010년의 따뜻한 봄, 더운 여름, 색색가지 가을,
세 계절을 지나면서
어느 덧, 원다방은 세 살이 되었습니다.

'2010년, 상대원의 봄, 여름, 가을'에는
5월부터 11월까지 원다방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했습니다.



인터넷라디오 방송
상대원시장 신나는 방송국

사업계획서 정리 및 세부 실행계획 수립

올해 사업이 새롭게 시작되는 시점으로 사업계획서를 정리하고 세부실행계획을 세웠다.
완성된 사업계획서는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상대원 원다방 운영위원회 회칙정리

원다방 운영위원회 회칙을 실무위원 회의에서 결정, 운영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스피커 증설 계획 및 점검

현재 설치된 스피커 13대 외에 증설할 곳, 재배치할 곳, 수리할 곳에 대해 신청을 받았다.

성남 방송고등학교 학생들 방송 참여

성남 방송고등학교의 제안으로 학생들의 연계방법을 모색했다. 그 결과, 원다방 행사시에 촬영 도움과 주 1회 방송출연이 결정되었다. 매주 금요일 4시부터 5시에 고정코너를 마련했다.

4,5월 작은음악회

월별행사인 '작은음악회'는 천안함 사태로 인해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풍물시장 라디오팀 방문

서울풍물시장 내에 새롭게 만들어진 풍물시장 라디오 팀에서 서울시 공무원 1인, 시장상인 2인이 방문하여 원다방의 이모저모를 알아갔다.

**스피커 증설 계획 확정**

DJ 워크숍 및 교육에 대한 안건과 스피커 증설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워크숍 및 교육은 실무위원회가 결정한 대로, 스피커 증설에 대해서는 수리가 필요한 곳과 새롭게 설치를 원하는 곳 등 총 9개의 스피커를 증설하기로 결정했다.

DJ 워크숍

동네만들기 사업의 이해를 높여 원다방이 상대원시장에서 어떤 의미와 역할을 가지는 기회로 삼았다. 5월 19일, 성미산 마을극장 대표 유창복 님을 강사로 모시고 DJ 7명, 관계자 4명이 참석하여 성미산 공동체 이야기를 듣는 기회를 가졌다.

DJ 교육

5월 24일부터 6월 1일까지 총 5차로 진행되었다. 1,2차는 웃음치료, 3~5차는 상인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6차는 공중파 라디오 방송국 견학으로 구성했다.

@느낌표 1 2010. 5. 19

DJ 워크숍 '동네만들기 사업이란 무엇인가'

5월 19일, 성미산의 '짱가' 유창복 님(성미산마을극장 대표)이 오셔서 성미산 이야기를 해주셨다. 성미산이라는 지역을 공유하는 생활공동체인 성미산 마을이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는지, 위기 또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떤 공동 행동으로 해결했는지에 대해 자유롭게 편안하게 전해 주셨다. 그 중심에 '함께 만들고 해결하자'는 마음이 있었다. 사람들의 뜻과 행동이 모이니, 얻은 결과가 무척 좋았다. 유창복 님의 강의를 끝나고 참여한 DJ들은 자유로운 이야기를 나눴다. 뜻을 모을만한 계기가 있어야 한다는 점, 내가 재미있으면 판에 뛰어든다는 점 등을 이야기하면서 상대원시장 상인들과 주민들에게 '원다방'의 주인 의식을 어떻게 가지게 할지에 대해 함께 고민했다.



@느낌표 2 2010. 5.24 ~ 6.1.0

DJ교육 '친해지길 바라'

2010년 DJ 워크숍이 5월 말부터 6월에 걸쳐 총 6차로 이뤄졌다. 첫 워크숍은 남한산성에서 가졌다. 박정숙, 장미라, 이길순, 손종구, 박신명, 김두산, 박광천, 박인자 님이 참여하여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누고 향후 워크숍 일정에 대해 편안히 이야기하는 자리를 가졌다.

2차, 3차 워크숍은 '웃음치료' 시간을 가졌다. 잠재되어 있거나 갇힌 마음을 풀어주고, 웃음을 유발시키는 요소가 무엇인지 배우자는 의미로 편성된 프로그램이었다. 웃음치료사 김연지 강사는 '웃는 사람이 10배 더 오래산다'며 크게 웃음 소리를 내면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자고 했다. 웃는 법 외에도 자신감있게 큰 소리로 발성하는 방법, 마음을 해소시키는 재미난 레크리에이션도 겸했다. 강사님의 익살맞은 멘트들과 리액션 때문에 박신명 님은 '며칠동안 웃을 거 다 웃었다'며 매우 즐거워했다.

4차와 5차 프로그램은 상인들과의 소통을 높이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4차 시간에는 5가지 문제를 가지고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제일 처음 나의 뇌구조에 '라디오'가 어떤 느낌인지에 대해 각자 적었고 생각을 나눴다. 그 다음부터는 조를 만들어 함께 의견을 모았다. 박정숙, 이길순 님이 한 조, 장미라, 박신명, 손종구 님이 한 조가 되었다.

DJ 워크숍 5차. 이 날은 DJ들이 직접 상인들을 만났다. 가게마다 사장님, 사모님의 생일과 신청곡을 받아서 날짜에 맞춰 방송에서 축하메시지를 전하고, 신청곡은 방송 시작 전인 준비시간에 계속 틀기로 했다. 나는 이길순, 박신명, 김두산 님을 따라 직판장 주차장 골목 쪽을 다녔다. 한반도 해물탕을 가니 쌍둥이기름고추 김철술 사모님과 시장피자 이성경 사모님이 함께 계셨다. 김미례 사모님은 먹음직한 수박을 잘라주시면서 우리에게 편안하게 먹고 가라고 하셨다. 좋아하는 노래는 이미자의 '동백아가씨', 조용

필 의 ‘돌아와요 부산항에’ 라고 하신다. 왔다집의 민은숙 사장님은 시원시원한 인상과 목소리로 반갑게 맞아주셨다. 작은음악회에서 노래 한 곡 하시라고 청하자 ‘부끄러워서 못해요!’ 하시면서도 사진찍는 내내 모델을 망설임없이 서 주셨다. 왔다집의 계셨던 상대원 3동에 사는 손님이 이미자의 동백아가씨를 신청해, 원다방에 전화하여 즉석에서 신청곡을 들려주었다. 라디오 방송이 항상 멋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장사 잘 되는 날이 내 생일이야!’ 라고 말씀하신 쌍둥이기름고추의 박현수 사장님은 남한 산성에서 직접 떠 왔다는 시원한 물로 우리들을 대접해 주셨다. 5월의 아카시아 향기가 매혹적이라며 신청곡으로 ‘산너머 남촌에는’ 을 말씀하신다. 얼추 스무 가게 정도를 돌고 원다방으로 돌아오니, 위쪽 라인으로 간 박정숙, 장미라, 윤혜숙, 김지훈 님이 잠시 후에 돌아왔다. 미래분식에서 맛있는 분식을 잔뜩 대접해서 맛있게 먹고 왔다고 하신다.

오늘 여러 가게를 직접 돌아본 소감을 간단히 나누고, 5차에 걸친 교육을 마쳤다. 이번 교육은 DJ간의 내부소통을 높이고 상인들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앞으로 DJ와 DJ, DJ와 상인들과의 소통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해 조금 더 고민해보기로 했다.

6차 KBS 견학은 방송 장비를 직접 보며 체험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크로마키 기법을 이용한 기상 뉴스캐스터 체험, 프롬프터를 읽는 뉴스 앵커 체험, 3D방송체험 등을 했고, 제일 마지막에 라디오 연속극 스튜디오를 보았는데, 넓은 스튜디오 안에 갖가지 음향 소품들로 꽉 찬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마지막 6차 교육이자, DJ들의 하루 나들이, 무사히 잘 마쳤다.

1. 신나는 상대원시장 라디오방송국은 “원다방은 OO이다” (방송 취지, 목적 일깨우기)
2. 라디오방송국 DJ 이것이 좋다 (원다방 DJ로서의 장점 찾기)
3. 내가 아는 상대원시장 (상대원시장에 대해 얼마나 아는지 확인해보기)
4. 청취자는 우리 방송국을 이렇게 생각한다 (청취자의 입장 되어보기)
5.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원다방이 제일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1번 물음에 대해 박정숙, 이길순 님의 조 대답은 ‘시장의 보물이다. 상인과 지역주민 DJ와 이야기를 나누는 곳, 눈물과 웃음이 있는 곳, DJ들의 꿈이 있는 곳’ 이라 대답했다.

2번 물음에 대해 장미라, 박신명, 손종구 조는 ‘내가 즐겁다, 내 인생에서 새로운 장르를 만들 수 있다.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다. 나의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공간이다.’ 라고 답했다.

3번 물음은 상대원동 주민이면서 시장 단골들이 알 수 있는 갖가지 답이 쏟아졌다. 남북정육점의 오겹살 고기가 너무 좋다, 시장야채와 옆의 할머니 두분은 덤을 많이 준다, 63냉면집의 냉면은 너무 맛있다는 이야기 등이 쏟아져 나왔다.

4번 물음에 대해서는 상반되는 이야기들이 나왔다. ‘신청곡을 들을 수 있어 좋을 것이다, 방송을 하지 않는 날은 심심하고 이상하다.’는 이야기와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별로 관심이 없다’ 등의 대답을 했다.

마지막 5번은 두 조의 답변이 비슷했다. ‘상인들과의 유대관계를 넓혀야겠다, 시장의 자랑거리를 찾아서 홍보해준다, 상인과 주민들의 방송참여를 유도한다, 점포 홍보를 해준다, 신청곡을 받고 생일 또는 기념일 등의 소식을 전해준다’ 등의 답변을 보니 상인과의 관계에 대해 다시금 생각할 계기가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내일 있을 5차 프로그램은 직접 상인들을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스피커 증설 완료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시장 곳곳에서 스피커 9개를 증설하여 총 21개의 스피커가 설치되었다.

상인참여 프로그램

DJ 들이 직접 상인들을 인터뷰하고 녹음해서 정규방송시간 '살며 사랑하며', '화요일에 이' 에 내보냈다.

자문위원 위촉 의뢰

원다방 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해 시의원 2인, 상대원 1,2,3동 동장 3인, 주민자치위원장에게 자문위원의 위촉을 의뢰하였다.

재미나는 시낭송, 남한산성 야외 낭송회

원다방 DJ들이 주축으로 구성된 '재미나는 시낭송' 은 남한산성 놀이마당에서 올해 첫 자체행사를 가졌다. DJ 들내(김성훈 님)와 소병익 님이 찬조출연하였고 성남방송고등학교 학생들이 촬영 협조를 나왔다.

6월 작은음악회

6월 작은 음악회는 11일에 개최되었다. 영동건어물 측 거리에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음향선을 방송국 앰프에 연결하여 스피커로 음악회의 소식을 전했다. 아침울타리 모듬북 연주, 풀잎소리 색소폰 연주, 성남판소리 민요 등의 공연과 꼬마가수 이상협 군, 미래분식 진영애 사장님이 노래솜씨를 뽐냈다.

남한산성 놀이마당에 도착하니, 성남방송고등학교 밴드부 'Liverty' 가 오프닝 공연을 하고 있었다.

등산을 마친 등산객들은 행사가 시작될 기미가 보이니까, 하나둘씩 자리를 채워갔다. 무대 앞 곳곳에 설치된 여러 대 카메라로 촬영하고 사진을 찍는 학생들이 보였다. 밴드부 1학년 박상묵 학생과 PD동아리 김기슬 양은 '오늘 처음 야외행사라 떨렸는데, 계속 불러만 주신다면 오고 싶다' 고 했다. 행사명은 '재미나는 시낭송, 야외 낭송회', 재미나는 시낭송은 원다방 DJ들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시낭송 모임으로 사랑방문화클럽에도 가입해서 활동 중이다. 오늘은 올해의 첫 자체행사라서 더 의미깊은 행사였다.

현충일을 맞이해서 국기에 대한 경례와 묵념으로 식이 시작되었다. 첫 순서는 'DJ 들내', 김성훈 님의 멋진 기타연주와 노래로 시작되었다. 방송고등학교 학생들은 무대 앞쪽에 앉아 큰 박수를 치며 호응을 보냈다. '여행을 떠나요' 가 끝나니 앵콜을 요청했고, 김성훈 님은 앵콜곡으로 게리 무어의 Still got the Blues를 연주했다. 작곡가이자 연주인 김성훈 님이 프로다운 뛰어난 기타연주와 보컬솜씨를 보이고 무대에서 내려가니 아이들이 몰려들어 사진을 찍느라 바쁘다. 밴드에서 기타를 치던 학생들은 궁금한 점이 많는지 연신 여러가지를 묻는다.

축사와 내빈 소개 이후, DJ 손종구, 이길순, 박인자 님이 김남조 님의 '후조'를 운송했다. 운송이란 '함께 돌아가면서 낭송하는 것' 을 뜻한다. '당신을 누구라고 말하리..'로 시작하는 이 시를 각기 다른 음색으로 낭송하는데도 하나의 감정이 되살아나는 기분이 들며 이런 것이 운송의 매력인가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김두산 님은 시인 김소월 님의 '못잊어'를 낭송했다. 김두산 님은 매주 목요일 '아이디어 마케팅 뱅크' 코너에 고정출연 중이다. 낭송

@ 느낌표 3
2010. 6.5

재미나는
시낭송,
첫 행사

하기 전에 이 시를 가사로 쓴 ‘못 잊어’를 한 곡조 부른 후, 이어서 시를 낭송했다. 색다른 낭송 방식으로 많은 박수를 받았다. 최운숙님은 ‘아버지가 보고 싶다’, 김미경님은 ‘눈물에 대하여’를 낭송했다. 장미라 방송국장님은 시 낭송사답게 낭랑한 목소리로 시인 유치환님의 ‘행복’을 낭송하며 시 낭송의 1부가 끝났다.

1부가 끝나자, 매주 월요일 원다방에서 만날 수 있는 소병익님이 멋진 색소폰 연주를 해주셨다. 소병익님은 전문 색소폰 연주자로서 현재 공영방송에 출연 중이다. 스케줄이 끝나는대로 급하게 왔으며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청되어 기쁘다’고 하셨다.

이어서 김종연님의 가족이 무대에 나왔다. 딸 둘, 아들 하나와 함께 시인 김소월님의 진달래 꽃을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로 바꿔 재치있게 낭송해 주었다. 아이들의 어설픈 사투리와 그 속에 담긴 열정, 떨림이 그대로 느껴져서 인지, 무대에서는 어느 때보다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다. 뒤를 이어 DJ 박인자님은 낭랑한 목소리와 또렷한 발음으로 정호승님의 수선화에게를 들려주었고, DJ 이길순님과 DJ 손종구님은 낭송 후에 원다방 라디오 소개와 함께 카페에서 방송 다시 들어보기를 권했다. 시인 이길원님의 ‘철조망에 걸린 편지’를 DJ 박신명이 낭송해주면서 재미나는 시낭송이 준비한 순서가 끝났다. 혹시 시낭송을 해보고 싶은 분들이 있느냐는 제의에 몇 명의 관객들이 자원하여 무대에 섰다. 오늘 등산을 마치고 내려왔다는 홍성대님은 본인의 자작시를 낭송했다. “산에 올라갈 때마다 시를 지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시는 아까 오전의 등산길에서 지은 시입니다. 부족하지만 잘 들어주십시오. 산길 따라 오솔길, 오늘은 영혼을 만날까, 오솔길 따라, 나는 가네...”

관객들의 자작시를 듣고 행사를 마무리하면서, 올해 첫 행사를 잘 치뤘던 시낭송 회원들은 뒷정리를 하면서 서로에게 ‘수고했다’며 격려했다. 이 날은 두 시간 넘게, 시를 사랑하는 관객들과 원다방 DJ들, 성남방송고등학교 학생들까지 남한산성 놀이마당에 모여 동그랗게 하나된 날이었다.

이 모두에게 기억을 남기는 하루로 그렇게, 그렇게 남았다.



@ 느낌표 4
2010. 6.11

6월의 작은 음악회

4월과 5월, 천안함 사태로 인해 작은음악회를 쉬었다.

이번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큰 비극이었다. 6월 작은음악회는 국민들의 슬픔을 위로하는 동시에 여름의 길목에 들어서는 상대원시장에 활력을 주는 시간으로 꾸미기로 했다.

음악회가 시작되기 1시간 전부터 반짝세일 품목이 적힌 음악회 광고지를 나눠주었고, 마이크 연결이 다소 늦어 음악회 시작 30분전부터 반짝세일 상점과 품목을 광고했다. 조길연 운영위원장님은 의자를 꺼내다 놓아주시고, 차량을 통제하는데 큰 도움을 주셨다.

드디어 6월 음악회가 DJ 이길순님의 사회로 시작되었다. 올해 열리는 첫 작은음악회라서 그런지 주민들, 상인 여러분들도 밖으로 나와 구경하셨다. 아침울타리의 모듬북이 공연의 힘찬 시작을 알렸다. 신나는 북 소리는 시원한 느낌마저 주었다. 내빈인사에 이어서 초대 가수 '홍춘'님이 본인의 신곡을 2곡 들려주었다. 홍춘님은 재미난 안무와 구성진 목소리로 최선을 다했다. 앞서서 반짝세일 홍보할 때, 도와주기도 하셨다. 중간에 앉아있는 부녀 사진을 찍었는데, 금광동에서 오신 김대인님이라고 한다. 피아노학원에 간 딸을 기다리는데 소리가 나서 잠시 왔다고 하신다.

그 다음 순서는 성남판소리 오종실님과 봉만호님께서 '범 내려온다'와 '심청가'를 들려주셨다. 하얀 모시 두루마기를 입으신 두 분의 열창으로 음악회 분위기가 무르익기 시작했다.

작년 작은음악회에도 나온 적 있는 상대원 꼬마 트롯스타 6살, 이상협 군이 무대에 올라갔다. 3살부터 트롯을 부르기 시작해서, 지금도 새로 나오는 트롯 신곡들을 섭렵한다고 한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와 '빠이빠이'를 불러 큰 박수를 받았다. 제대로 된 음정을 내기도 어려운 나이에 올바른 음정과 가사까지 소화하는 모습을 보니, 상협이의 타고난 음악적 소질과 트롯사랑을 알 수 있었다.

풀잎소리 이병석님은 격주 수요일 오후마다 '노래들려주는 시장'에서 자동차 관련 상식을 알려주는 고정패널로 활약했는데, 작은음악회에서는 언제나 색소폰 연주자로 변신했다. 이 날은 '무조건', '서울의 밤', '해변으로 가요'를 차례대로 연주했다. 색소폰을 연주하며 관객석으로 가까이 가자, 사람들은 더욱 즐거워했다.

다음 순서로 미래분식 진영애 사장님이 무대에 나왔다. 작년 작은음악회에서도 무대에서선 경험이 있어서, 그 노래숨씨는 익히 들어온 바 있었다. '무인도'를 부르시는데, 어쩔 그 리도 멋진 목소리와 가창력을 가지셨는지 깜짝 놀랐다.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다.

즉석에서 몇 명의 신청자를 받아 노래를 들었다. 대원초등학교 1학년 최혜리 양, 한국 바둑 클럽의 노경선 회원님이 차례대로 무대에 서서 노래를 불렀다.

이 날, 최고의 마스코트는 이상협 군과 이지함 군이었다. 상협이는 뛰어난 노래실력 때문은 두 말 할 것이 없고, 지함이는 어린 나이답지 않게 리듬에 맞춰 춤을 추었다.

음악회가 끝난 후, 준비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저녁을 나누면서 첫 작은음악회를 잘 끝냈다고 서로에게 공을 돌렸다. 첫 출발이 좋은 6월의 작은음악회였다.



7월 작은음악회

7월 23일, 오전에 내린 비로 음악회 개최여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으나, 상인들의 많은 협조로 잘 끝마쳤다. 상대원 2,3동 노래교실 회원들, 재미나는 시낭송, 풀잎소리 색소폰 연주, 두우리국밥 윤여덕 사장님, 시장즉석어묵 김상민 님이 참여해서 풍성한 음악회가 되었다.

성남여성의 전화, 주 1회 방송 참여

성남 내 여러 기관 및 단체가 방송에 직접 참여하여 방송의 콘텐츠를 풍성히 하는 동시에, 단체의 활동을 알리는 효과를 얻고자 시작되었다. 여성의 성(性) 성폭력 등, 성(性)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총 12회동안 진행되었다.

**8월 작은음악회**

8월 20일, 기존 음악회가 열렸던 장소를 옮겨서 현대직판장 정문에서 열린 8월 작은음악회는 주민들의 즉석 참여 등으로 무척 재밌고 신나는 음악회가 되었다. 옮긴 장소가 시장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더 잘 볼 수 있는 곳이라 더욱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재미나는 시낭송’, 문화공헌 프로젝트 참여

8월 10일, 재미나는 시낭송 팀이 성남문화재단 사랑방문화클럽 ‘문화공헌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연합공연을 가졌다.

원다방 운영위원회 자문위원 위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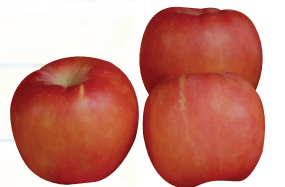
지관근 시의원, 유근주 시의원이 원다방 운영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어린이 라디오 교육, 겨울로 연기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라디오 교육이 신청자가 없어 겨울 방학으로 연기하여 실시하기로 하였다.

MBC 문화사색 촬영

교양정보프로그램인 ‘MBC 문화사색’에서 원다방 라디오를 촬영해 갔다. 이색시장을 탐방하는 코너로 방영되었다. 남북정육점, 시장즉석어묵, 민당야채, 쿠게로프 과자점, 두부마을, 시장야채, 부흥상회가 기꺼이 촬영에 협조해주었다.



@ 느낌표 5
2010. 8.20

8월의 작은 음악회

더위가 한참 기승을 부리는 여름날이었다.
7월 작은음악회 때, 장소를 옮겨서 열었는데,
반응이 무척 좋았다.

위쪽 골목 상인들의 거듭되는 요청으로 7월에 이어
남북정육점 4거리에서 열게 되었다.
주변 상점들과 현대직판장의 배려도 톡톡히 한 몫을 했다.
이 일을 하는 모두에게 기운나는 소식이었다.

뜨거운 한 낮의 더위가 식기 시작하는 저녁, 한유진 씨의 사회로 작은음악회가 시작되었다.
첫 순서는 대왕숯불갈비 단골 손님들이었다. 저녁을 먹으러 상대원시장에 왔다가 무대에 올라왔다는 부부들은 서로 오래된 친구들이라고 한다. 상대원 2동에 사시는 유진수, 박재춘, 하명구, 한상구님은 기분이 무척 좋으신 듯 기분 좋게 노래 한 곡조씩 불렀다. 특히 하명구님은 가수 나훈아님과 똑 빼닮은 외모로 한층 더 즐거움을 주셨다.
다음은 상대원 2동 노래교실의 회원들이 무대에 올랐다. 지난 7월부터 상대원 2동, 3동 노래교실 회원들의 참여로 인해, 한층 더 풍성한 음악회가 되었다. 김화자, 김순희, 박복순님이 차례대로 노래를 불렀다. 함께 온 노래교실 회원들은 크게 박수를 치며 무대에 올라간 친구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항상 노래부르는 것이 즐거운 분들이라 어떤 노래가 나와도 따라 부르며 즐거워하셨다.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본 상대원 1동의 김유리주부가 즉석에서 신청하여 노래를 했다. 시장을 보러 나왔다가 참여하게 되었다며 ‘토요일 밤’을 불러 앵콜까지 받았다. 시원한 목소리로 뛰어난 노래솜씨를 보여준 김유리님은 앵콜까지 지는 쑥스럽다며 다음에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상대원 2동 노래교실의 육호순님의 ‘잠자는 공주’가 끝나고, 시장즉석어묵의 김상민님이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로 무대에 섰다. 김상민님은 원다방의 열혈 청취자이자 든든한 후원자의 1명이다. 오늘 무대를 위해 많이 연습했다고 한다. 이어서 하얀분식의 조규자님이 신나게 춤추며 ‘남자라는 이유로’를 불러 무대와 객석을 더욱 뜨겁게 만들었다.

매월 작은음악회에 기꺼이 찬조출연 중인 풀잎소리 이병석님의 시원한 색소폰 연주가 더운 여름밤을 식혀주었다. 상대원 3동 노래교실의 유은화님, 2동 노래교실의 문재옥님의 노래를 들은 후, 즉석에서 신청한 장현주님의 ‘남행열차’를 들었다. 장현주님은 작은음악회가 열릴 때마다 객석에서 신나게 춤을 추는 음악회 열혈 팬이다. 노래부르는 것을 무척 좋아한다고 하며, 오늘 무척 신나고 재밌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 다음으로 상대원 3동 노래교실의 노미자님이 무대에 올라 ‘웃고 살자’를 열창하셨다.

이제는 모든 가게가 불을 밝힌 시간, 시장 중간 골목의 ‘꺼먹돼지’ 사모님이 즉석에서 노래를 해보겠다고 신청했다. 음악회가 즐거워 직접 노래하러 나오셨다며 맛있는 음식으로 보답할 테니 ‘꺼먹돼지’로 오라고 홍보까지 하셨다. 노래교실의 이병오, 이윤심님의 노래를 들은 후, 마지막으로 두우리국밥의 윤여덕사장님의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청해들었다. 이 날, 윤여덕사장님은 이제근 3통 통장님과 대왕숯불갈비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는데, 그 모습을 본 내가 뛰어가서 ‘사장님, 오늘도 노래 하나 하세요!’ 했더니 ‘어이구~ 나 잘 못하는데? 그럼 ‘돌아와요 부산항에’ 부를게. 집이도 무대 올라와서 같이 불러!’ 하면서 이제근 3동 통장님께 약속을 다짐받는다. 노래를 듣고 부르는 것이 무척 즐겁다고 하셔서 작은음악회 소식이 있을 때마다 두우리국밥에 가서 ‘사장님 노래 한 곡 하세요!’ 하고 청했었다.

더운 여름 밤이지만, 더위가 잠시라도 잊혀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열렸던 8월 작은음악회도 잘 마무리 되었다. 솔직히 음악회 노래소리 때문에, 남북정육점, 과일가게, 영동건어물 등은 저녁장사하기가 꽤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내색 하나 없이 함께 즐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했다. 또, 상인들이 작은음악회의 개최를 요청하고, 장소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장상인들이 원다방에 가지고 있는 유대감을 알 수 있었다.

더욱 더 끈끈함 유대감으로 맺어지길 기대해본다.



이재명 성남시장, 상대원시장 및 원다방 방문

추석을 앞두고 민생을 살피러 상대원시장을 방문한 이재명 성남시장님이 원다방 방송국에 출연하였다. 어려운 살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인사를 남겼다. 이후, 시장 내 점포를 돌면서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근황에 대해 물었다.

반짝세일 폐지

기존의 작은음악회 때 진행한 반짝세일의 여부에 대해 안전을 상정했다. 그간 효과가 크지 않아서 고민이었던 반짝세일을 9월부터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9월 작은음악회

9월 16일, '9월 작은음악회'가 열렸다. 상대원 3동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참여자들과 2동 노래교실 등, 총 50~60여명이 출연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많은 관객들이 모여 성공리에 치뤘으나, 다소 길어진 행사시간, 후원점포의 호명이 이뤄지지 않은 점이 향후 수정 사항으로 꼽혔다.



@ 느낌표 6
2010. 9.14

이재명
성남시장님,
원다방에
오다!

추석을 앞둔 9월 14일, 이재명 성남시장님이 상대원시장에 깜짝 방문하셨다.
시장즉석어묵 김상민 님의 신청곡이 푹 끓기면서 장미라 방송국장이 등장했다.

“시장어묵 총각, 미안해요! 지금 시장님이 방송국에 오셨습니다. 제가 인사를 특별히 이장님 버전으로 부탁드립니다요. 시장님 인사하시지요.”

“안녕하세요?~ 성남시장 이재명입니다아~”
(조금 크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목소리가 작아요? 아아~! 안녕하세요? 성남시장 이재명입니다!

성남 상대원시장 상인 여러분, 잘들 계셨죠?

진성떡집 주인어른, 못가서 죄송합니다! 다음 기회에 제가 떡사러 가겠습니다. 상대원시장 상인 여러분! 정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저 이재명

에게 큰 기대 가져주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살림,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상대원시장 상인여러분, 나중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으흠으흠. (이거 되는 것 맞아요?) 추석 잘 보내시고,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시장님께 박수 좀 쳐드리죠. (짹짹 짹 ~) 시장님께서 오셔서 상인여러분께 추석 잘 보내고 힘내시라고 하셨으니까, 추석 모두 잘 보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 느낌표 7
2010. 9.16

9월의
작은
음악회

원다방 실무위원회는 추석을 맞이해서
9월 작은음악회를 상대원시장에 오는 누구나,

작은음악회에 참여하는 모두가 명절을 즐기고
함께 나누는 것을 주제삼아 2개월 전부터 준비했다.

한참 바빠질 시기에 손님들의 눈길도 끌고,

상인들도 신명날 수 있도록

도우려는 의지도 있었다.



아울러 상대원 3동 주민자치센터 회원들과 함께 행사를 기획했다. 9월 9일에 열린 ‘원다방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상대원3동 주민자치센터장 방동환 님께서는 ‘원다방의 작은음악회’는 상대원동 주민들의 발표의 장이니, 우리 주민자치센터 회원들과 함께 하자’고 제안했고 9월 작은음악회부터의 결합방법을 함께 찾았다.

9월 16일, 작은음악회가 2시간 전부터 ‘예술마당 시우터’의 길놀이가 있었다. 풍물을 치며 시장골목을 다니면서 여러 재담과 타령으로 상인들에게 재미와 웃음을 줬다. 그리고, 음악회 시작 1시간 전에 품바 공연을 했다. 한반도 매운탕에 들러 ‘큰 복이 들어가고 하는 일마다 모두 잘 이루어져라’는 축원을 하며 풍물 한 마당을 펼쳤다. 사장님은 고마움의 의미로 고기와 음료수를 대접해주셨다. 무대에 올라와 ‘배를 채우기 위해 돌아다니다가 모두 쫓겨



나고, 여기 상대원시장에 와서 잘 대접받고 배를 채웠으며, 오늘 여기 온 사람들 복받고 상대원시장 상인들 모두 추석에 대박 나시라’고 축원한 후, 신나게 타령 한 곡조를 뽑았다. 오늘은 추석 전에 장을 보러온 주민들과 주민자치센터 회원의 가족, 친구들이 모여 평소 관객의 2배 정도가 모인 듯 했다.

1부는 장미라 방송국장님의 사회로 시작되었다.

오늘 참여한 내빈들의 소개하면서 인사말을 들은 후, 오늘 온 상대원동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무대에 올라 오라 했는데, 두우리국밥 윤여덕 사장님의 손자인 6살 박호원 군이 올라가서 씩씩하게 인터뷰를 했다. 윤여덕 사장님은 앞에 앉아서 대견한 듯이 쳐다보시며 연상 웃으셨다.

추석맞이 작은음악회인 만큼, 상인분들의 아낌없는 상품후원이 있었다. 10만원 상당의 갈비세트부터 신발할인권, 휴지 세트, 김 세트, 떡, 식사권 등, 넉넉한 인심만큼이나 상품까지 넉넉하게 준비되었다. 오늘 무대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한변씩의 추첨기회를 가졌는데 상품과 가게이름이 하나씩 호명될 때마다 풍성한 한가위에 시장에서 열리는 행사답다는 생각이 들었다.

상대원 2동 노래교실 한영희 님, 임순희 님과 상대원 3동 노래교실팀의 합창, 초대가수 태양의 노래를 들으며 1부의 공연이 마무리되었다.

2부는 상대원 3동 주민자치센터의 공연이 이어졌다.

사회는 상대원동 주민이자 자치위원인 천필국 님, 심선영 님이 맡았다. 제일 처음, 6명의 성인 댄스팀이 요즘 유행가에 맞춰 댄스를 보여주었고, 이어서 우리춤체조팀이 부채를 이용하여 색다른 우리춤을 선보였다. 민요가 울려 퍼진 후, 성남출신의 유명한 소리꾼 방영기 명창께서 잠시 들러 한가위를 맞아 ‘풍년가’를 들려주셨다. 시간이 흐를수록 오늘 이 자리가 참 귀중한 시간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어느 덧, 가게들 간판이 하나 둘씩 켜지기 시작했다. 저물어가는 저녁 노을과 간판불빛을 배경으로 댄스스포츠 클럽인 ‘룸바룰라’의 차차차 공연이 있었고, 아이들의 벨리댄스가 이어졌다. 아이들의 춤이 시작되자 여러 곳에서 카메라 셔터가 터졌다.

다음 순서로 작은음악회의 최다 출연자인 시장즉석어묵의 김상민님이 ‘낙인’을 불렀다. 고음 부분의 처리까지도 완벽해 많은 박수를 받았다. 나중에 물었더니 연습을 많이 했다고 한다.

우리춤인 부채춤이 화려하게 무대에서 펼쳐졌고, 이어서 연령이 지긋하신 어머님들의 모임인 실버댄스팀이 댄스를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통기타 클럽의 이현님께서 ‘일어나’, ‘고백’을 들려주며 오늘의 모든 공연이 끝났다. 가족들과 이웃들의 공연을 지켜 본 수많은 주민들은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며 모든 공연을 즐겁게 지켜봐주었다. 공연 준비 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공연한 상대원 3동 주민자치센터 회원들도 무척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이번 공연을 보면서 작은음악회 무대는 상대원동의 모든 주민에게 열려있는 무대, 누구나 올라와 즐길 수 있는 무대가 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을 가졌다. 원다방 DJ들은 오늘 출연진들이 모여있는 식당으로 가서 감사의 인사를 주고 받았다.

오늘 또 소중한 인연이 맺어지고 있었다.



성남시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11월 10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될 성남시청 생활경제과가 후원하는 ‘성남시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의 일정을 공유했다.

10월 작은음악회

10월 23일, 2010년 마지막 작은음악회를 개최했다. 지난 1년간 원다방을 돌아보는 자리로 기획하여 상대원시장 상인회와 성남문화재단, 방송국 구성원들의 노고에 대해 고마움을 표현하며 크게 잔치를 벌였다.

어느덧, 가을바람이 부는 10월이다.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작은음악회가 열리는 날.
실무위원회는 일찍부터 이 음악회의 콘셉트를 ‘고마움’으로 잡았다.

그간 원다방에 크고 작은 도움을 주는
여러 사람들과 단체, 기관들을 초청하여 **작지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보자고 했다.**

한유진님은 무대와 조명, 음향을 점검하고 박정숙 실무위원장님과 장미라 방송국장님은 오늘의 순서를 꼼꼼히 따지느라 바빴다. 조길연 운영위원장님은 의자를 옮겨 주셨고, 성남문화재단의 유상진 과장님과 김지훈 씨는 위, 아래쪽 교통을 통제하고 있었다.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구성원이 다양한 성남중원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 라디오 동아리 ‘조이 라디오’에서 행사진행과 촬영을 도우러 나왔다.

놓인 의자에 하나, 둘 사람들이 채워졌다. 잠시 후, 장미라 방송국장님의 사회로 10월 작은음악회가 시작되었다. 첫 순서로 내빈소개가 있었다. 오늘의 내빈소개는 조금 색달랐다. 원다방의 운영에 관련된 운영위원들과 도움주신 분들이 인사말을 한 후, 노래 한 곡씩을 불렀다.

첫 순서는 원다방 자문위원이자, 상대원시장 상인회 김국남 회장님.

원다방의 중요성과 지속성에 대해 이야기한 후, ‘그런 여자 없나요’를 열창했다.

시원한 목소리만큼이나 뛰어난 노래실력을 유감없이 뽐냈다. 다음 순서로는 조길연 원다방 운영위원장의 인사가 있었다. 타고난 음치라서 차라리 안 부르는 것이 고맙다는 이야기

@느낌표 8
2010. 10.15

10월의
작은
음악회



를 들었다며 오늘 이렇게 와주신 분들과, 행사를 진행하도록 도와주신 여러 상인들, 지원 해주신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관계자, 1년동안 원다방을 운영하느라 수고한 DJ들에게 고맙다는 이야기를 남기셨다.

이어서 정중환 중원구청장님, 상대원 3동 이강필 동장님, 조광주 도의원님, 성남시청 문화 예술과 김국봉 과장님, 성남문화재단 노재천 예술국장님 등의 인사가 이어졌다. 자문위원인 지관근 시의원님은 '사랑의 이름표' 을, 유근주 시의원님은 '황진이' 를 흥겹게 불렀다,

사랑방문화클럽에서 맹활약을 하고 계신 김숙자 님의 축하공연이 있었다. 기타 반주로 '행복의 나라' 와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를 들려줬다. 가을바람이 부는 오후에 너무 잘 어울리는 목소리와 노래였다.

상대원 3동에 살고 있는 김지민, 최혜리, 대원초등학교 다니는 박성찬, 김정우, 김민준, 이정재 어린이들은 음악회가 열리는 무대 제일 앞에 앉아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으며 음악회를 관람하고 있었다. 혼자 앉아있던 박지후 어린이는 소리가 나서 나와봤단다. 토끼모자를 쓴 이미혜 어린이는 노래 들으면서 친구를 기다린다고 했다.



초청가수 진태환 님의 '감지덕지' 를 들은 후, 신상진 국회의원님의 '칠갑산' 을 들었다. 하필이면 가수 다음에 노래를 부르게 되어 부담감이 크다면서, 다들 모두 반가운 얼굴이라고 인사했다. 그리고, 원다방 운영위원, 자문위원, 고문, 실무위원, DJ 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하였다.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엔 낯장의 종이에 불과하지만 1년간의 노고가 담겨있는 무척 소중한 고마운 증서였다. 시장 상인들 중에는 시장즉석어묵 김상민님, 쿠키로프 과자점 김수정 사모님, 시장야채 박정미 사장님, 쌍둥이기름고추 박현수 사장님께 드렸다.

음악회가 열리는 동안, 무대 뒤도 무척 분주했다. 박신명 님과 여느 때와 똑같이 무대를 향해 카메라 셔터를 눌렀고 이길순 님과 박인자 님은 순서에 맞춰 무대에서 필요한 소품들을 준비하는데 신경을 썼다. DJ 들 내, 김성훈 님은 친구를 초청가수로 섭외하여 공연을 더욱 풍성하게 했다.

2부 는 시장즉석어묵의 김상민이 부르는 '금지된 사랑' 으로 시작되었다. 그간 작은음악회 최대 출연자, 최다 신청곡 신청자이다. 이어서 상대원 3동 노래교실의 조성자 님이 '사랑은 아무나 하나' 를 열창하면서 '아싸' 하는 추임새를 연발하여 듣는 사람들 모두가 즐거워했다. 다음 순서로는 9월 작은음악회에서 함께 했던 상대원3동 주민자치센터 스포츠댄스 팀이 '차차차' 와 '자이브' 댄스를 보여주었다. 다소 좁고 높은 무대 때문에 춤 동작이 마음처럼

되지 않은 듯 보였으나,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상대원 2동 노래교실 백옥례님의 노래에 이어, 고향닭갈비 임영남 사장님의 '삼다도소식' 이 온 시장 안에 울려퍼졌다. 다음은 춤을 추며 신나는 무대를 꾸며주시는 조규자 님이 '바다가 육지라면' 을 불렀다.

7월 작은음악회에서 춤을 췄던 성남서고 1학년 홍성호 군이 '다시만날 세계' 로 또 다른 춤을 선 보였다. 열심을 다 하는 모습을 본 관객들은 뜨거운 박수로 화답해주었다.

다음 순서는 8월 작은음악회에서 즉석으로 신청하여 뛰어난 노래솜씨를 보여준 김유리 님의 순서였다. DJ 님들이 연락처를 받아두어, 오늘 와서 노래를 꼭 불러달라고 부탁하셨단다. 이어서 쿠키로프 과자점의 김수정 사모님의 순서였다. 노래 순서를 알리러 과자점으로 뛰어가자 '아..어찌죠? 나 못하는데...' 라고 걱정하는 모습이었는데, 막상 무대에 오르니 막힘없이 노래를 마치고 내려왔다.

무대에 각시탈을 쓴 여자가 올라왔다. 탈을 쓴 얼굴로 진달래꽃의 경상도 사투리 버전을 낭송한다. 시낭송 때마다 시와 어울리는 의상, 소품을 이용하는 DJ 박인자님의 무대였다. 낭랑한 목소리와 특이한 무대 의상, 재치있는 시 내용은 순식간 무대로 시선을 모으기에 충분했다.



출연 순서보다 일찍 무대 옆에서 노래를 따라부르며 박수를 치고 계셨던 두우리국밥 윤여덕 사장님의 ‘만남’ 차례였다. 이 노래는 제일 잘 알고, 제일 잘 부르는 노래라고 하신다. 상대원 2,3동 노래교실 장영희, 함경자, 박복순님의 열창과 즉석에서 신청한 상대원동 주민 김중경 님의 노래를 끝으로 10월 작은음악회를 마쳤다. 조길연 운영위원장님과 박현수 사장님은 의자를 정리하고, 사람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쓸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도왔다.

장미라 방송국장님은 무대 주변을 정리하고 있거나, 집으로 돌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마지막 순서로 김기림 시인의 ‘길’을 낭송해주셨다.

‘나의 소년시절은 은빛 바다가 엿보이는 그 긴 언덕길을 어머니의 상여와 함께 꼬부라져 들어갔다.

내 첫사랑도 그 길 위에서 조약돌처럼 집었다가 조약돌처럼 잃어버린다...’

집에 돌아와 김기림 시인의 ‘길’ 전문을 읽었다. 길에 펼쳐진 애상을 통해 길을 기억하는 시, 과거와 현재의 조우가 담긴 시를 왜 낭송하셨을까 생각하며 나혼자 답을 내려버렸다. 작은음악회에 모인 사람들이 상대원시장의 이 길을 걸을 때마다 원다방을 기억했으면, 이 길의 역사만큼이나 수북히 담긴 이야기에 오늘 일을 살짝 포개두었으면 하는 바람이 섞였을 것이라고.

오늘 모인
여러 사람들의 기억이 담긴
이 길은 더욱 더
풍성한 기억이 담길 것이다.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날도,



12월 후원회 조직 준비, 송년회 일정 확정

원다방의 자립을 위해 ‘원다방 후원회’를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조직하기로 결정했다. 2010년 12월에 원다방 후원회 조직, 원년의 해로 삼아 후원회 발족을 알림과 더불어, 2010년 원다방 송년회를 가지기로 했다.

조길연 운영위원장님의 결혼기념일 방송

10월 작은음악회가 끝나고 모여서 저녁식사를 하던 자리에서, 조길연 운영위원장님의 깜짝 멘트가 있었다.

“11월 5일이 제 결혼기념일인데, 그 날 제가 방송에 출연하겠습니다!”

약속대로, 11월 5일 DJ 박인자 님이 진행하는 ‘세상사는 이야기’에 출연하셔서 결혼32주년 기념방송을 하셨다. 따뜻한 사랑이 느껴지는 그 날의 방송내용은 ‘조길연, 이봉효’ 인터뷰 뒤에 실었다.

성남시 청소년지원센터와 함께 어린이 라디오교육 프로그램 진행

2010년 겨울, 미디어와 방송에 관심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원다방에서 주최하는 미디어 교육이 진행 중이다. 점차 원다방 방송에 참여시킬 계획도 가지고 있다.

성남시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복권 이벤트 및 김장김치 나눔 행사 진행

11월 10일부터 30일까지 성남시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복권행사가 열렸다. 지역 경제를 돕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진행한 행사로서 상대원시장 점포에서 구입한 손님들에게 5천원당 1매씩 복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이어서 11월 22일에 김장김치 나눔행사가 열렸다. 상대원시장 상인회가 주최하고, 성남시 생활경제과, 참사랑 복지회, 원다방이 후원하여 총 300포기의 김장을 담궈 성남시 곳곳에 있는 분들에게 나눠드렸다. 이 날, 행사의 분위기를 원다방 DJ 박신명 님의 글로 대신 전한다.



@ 느낌표 10
2010. 11.22

김장
하
던
날

글쓴이 박신명

2010년 11월22일 상대원 시장에서 김장 하던 날.

현대마트 뒤편에서는 김장 나눔 행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상대원상인회에서 주최가 되어 김치를 담기로 했다.

제일 먼저 상대원방송국 소속으로 장미라국장과

내가 먼저 도착하여 준비를 했다.

주문한 야채들이 속속 배달되었고 모든 재료는 상대원시장에서 사기로 했다.

이 곳, 저 곳에서 무와 갓, 쪽파들이 도착했다.

먼저 쪽파를 다듬기 시작하고 여러 단체에서 자원봉사원들이 상대원시장으로 모였다. 촛불99, 원다방 방송국DJ들, 상대원 상인 여러분, 풀잎봉사단, 모두들 하나같이 웃음 가득 띄우며 즐거운 김장담기가 분주하게 진행되었다. 수돗물은 부흥상회 사장님이 호수로 연결 해주셨다. 큰 고무통들도 아낌없이 내어 주셨다.

쪽파와 갓을 다듬어 한쪽에서는 남자봉사자님께서 씻어 건져내고 또 한쪽에서는 무를 채 썰고 그렇게 김장담기가 진행되었다. 모든 재료가 준비가 되고 절인 배추가 속속 도착하니 양쪽으로 줄을 서서 김치 속을 넣

기 시작했다. 돼지고기 수육을 썰어 절인배추쌈에 싸서 한입씩 넣어주며 수고한다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봉사자들의 마음이 즐거워진다. 상대원시장 김장나눔 행사라고 씩여 있는



앞치마를 두르고 모두들 즐거운 표정들이다.

드디어 김장이 끝나고 연락을 받은 어르신들께서 손수 김치를 받아가셨다. 정말 고맙다고 여러 번 인사를 하고는 김치를 받아 들고 환한 웃음을 짓는다.

지난11월에 있었던 인구주택 총 조사에 조사원으로 참여를 했었다. 가가호호 다니면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때 참 많은 것을 느꼈다. 내가 가장 가난하다고 생각한 때도 있었는데 그 일을 하고부터는 그런 말이 사치였다는 생각을 하게 했다. 정말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어두컴컴한 골목길에서 늦은 시간까지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각자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다 다르듯이 각자의 삶에 충실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그 일을 끝내고 김장나눔을 함께하고 그때 알아두었던 몇 집을 내가 추천을 했다. 의외로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가정이 있더라고 했더니 서슴없이 김치를 내어주었다.

명단을 작성하고 직접 들고 가서는 김치를 전해드렸다. 김치를 받아 든 나이 많은 총각아저씨는 이렇게 김치까지 챙겨주시고 하시며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에 내가 오히려 미안했다. 외국인 가정도 있었고 모자가정도 있었다. 그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 '우리 상대원시장에서 김장 나눔을 했는데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라며 김치 통을 건네드리며 내 자신이 행복했다. 다음기회가 있다면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우리 이웃에 어려운 가정이 있다면 빠짐없이 함께 나누고 싶은 심정이다. 의외로 소외되고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정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서 좀 더 살펴보고 보고되지 않은 가정까지도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쌓여있는 김치통을 보면서 마음이 흐뭇했다. 어르신들께서 올 겨울 동안 드실 생각을 하니 마음이 부자가 된 기분이다. 달랑 한 장 남은 달력을 보며 한 해를 되돌아본다. 힘차게 달려온 시간들이 뇌리를 스치며 삶의 보람을 얼마나 느끼며 사는지도 나름 생각하며 내년에도 더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해본다.

김장나눔행사를 한다고 이 곳, 저 곳 상가에서 돼지고기를 보쌈용으로 듬뿍 사다 주시는 사장님, 판매하는 새우젓을 통째로 들고 오시는 사장님, 의자와 고무통들을 꺼내다 주시는 사장님, 과메기를 듬뿍 내어오신 사장님, 굴 박스가 들어오고, 피로회복제를 사오시는 분들 참으로 나눔행사에 동참해주시는 분들이 많았다.

부흥상회에서는 수도꼭지에 꽂아둔 호스가 빠져서 가게 안이 온통 물바다가 되어 닦아내지만 얼굴 한 번 붉히지 않고 괜찮다고 하시며 묵묵히 정리를 하시는 사장님은 정말 우리 이웃들이 본받아야 할 것 같다. 출다고 파끈한 커피를 타주시며 몸 좀 녹이라던 쌍둥이 기름집 사장님, 모두들 아름다운 마음씀씀이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앞치마를 두르고 환하게 웃으며 김치 속을 넣던 영동건어물 사장님, 마지막에 김치 속이 부족하다고 다시 속을 만들어야 할 때는 가게에 있던 고춧가루를 양손으로 들고 뛰어오며 환하게 웃음 짓던 모



습, 시장야채사장님은 야채를 한 아름 끌어안고 오던 모습, 쌍둥이기름집 사장님의 새우젓 들고 오던 모습들 너무 행복한 모습들이다.

다 기억하지 못해서 빠진 분도 계시지만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시루떡을 뜨끈뜨끈하게 찌다주신 오복떡집 사장님께도 감사드린다. 사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이루어낸 행복 나눔이지만 일을 하면서도 즐거운 건 함께 할 수 있어서 더 행복해지는 게 아닐까 싶다. 상대원상인 여러분들이 모두 함께 한 김장나눔 뜻 깊은 행사는 이렇게 하루를 행복하게 했다. 오전부터 방송국에서 방송을 쉬지 않고 해주신 우리 이길순DJ님 즐거운 마음으로 김치담으라고 노래신청곡도 틀어주시고 짬짬이 후원 참여분들도 소개해 주시느라 하루 종일 수고를 많이 하셨다.

후원물품은 물, 고무통, 앉는 의자, 새우젓, 액젓, 고춧가루, 쌍화탕, 붕어빵, 과메기, 소주, 박카스, 고춧가루, 보쌈 돼지고기, 막걸리, 굴 1박스, 바게트 빵, 쌍화탕, 참깨, 굴 1박스, 음료수, 미나리, 갓, 쪽파, 길절이 양념 외, 만두, 시루떡.....아름다운 마음이 모였다.

참여단체는 참사랑복지회, 풀잎사랑, 성남함께하는주부모임 '촛불99회 자원봉사단, 원다방 DJ들, 문화재단, 상인회.....

묵묵히 봉사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원들을 보며 나이가 젊다고 하는것도 아니요, 돈이 많아서도 아닌 것 같다. 함께 할수 있다는 마음이 있다면 언제든지 봉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한 해에 김장을 수차례 다니며 봉사를 하신다는 남자봉사원을 보며 자신의 잠잘 시간을 줄여서 봉사를 다닌다고 했다. 그렇게 까지는 할 수 없지만 작은 실천으로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하며 상대원시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해보며 올 한 해를 마무리 해본다. 앞으로 더 발전하는 시장, 주민들과 늘 함께 하는 시장, 재래시장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상대원시장이 되기를 기원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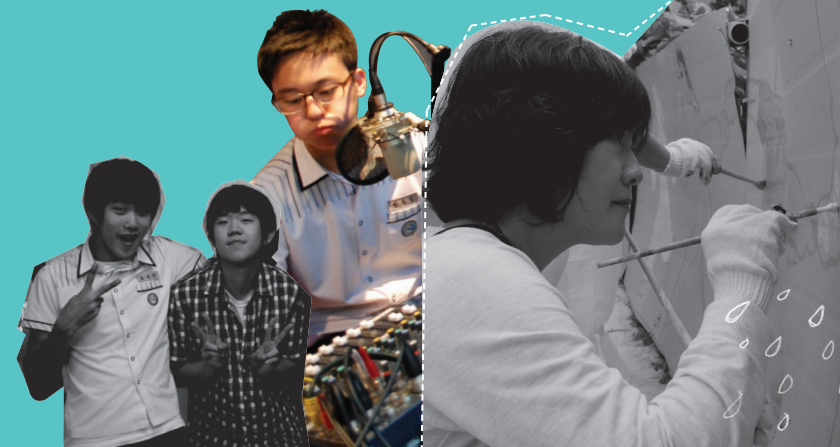
II 원다방 DJ박스에서 일어난 일

DJ 인터뷰

원다방에는DJ 박스가 있어요,

그 곳에는
14명의 이야기꾼이 살고 있습니다.

‘원다방 DJ박스에서 생긴 일’은
일주일간 방송테이블을 꽉 채워주고 있는
DJ 14분의 인터뷰를 담았습니다.





3년 동안 원다방과 상대원시장의 변화

실무위원장_ 박정숙

상대원시장에서 10분 정도 위로 올라가면 ‘책이랑 도서관’이 있다. 아담한 규모에 아기자기한 내부까지, 동네 아이들의 쉼터이자 놀이터인 그 곳이 원다방 실무위원장 박정숙님의 일터이다.

“처음엔 뭣 모르고 시작했어요. 그래도 재미있어요.”

원다방에 처음 참여하게 된 계기를 묻자, 나온 첫 대답.

박정숙님은 현재 ‘성남 함께하는 주부모임’(함주부)의 회장을 4년째 맡고 있다. ‘함주부’는 성남에 살고 있는 주부들이 모여서 ‘우리 동네에서 다함께 잘 살기’를 실천하고자 한다. 아이들을 키우는 주부들의 모여 지역의 문화적, 교육적 환경을 함께 만들어 가고 진단한다. 다양한 문화강좌들을 개최하고 유대관계에 있는 여러 지역 기관과 단체와 협력하며 활동 중이다. 상대원동 어린이들을 위해 ‘책이랑 도서관’을 운영 중이다.

2008년 함주부가 원다방 운영에 참여한 인연으로, 2009년 운영 및 관리를 전담하게 되면 서부터 품이 많이 들어가는 실무를 맡게 되었다. 함주부가 꿈꾸는 것은 마을공동체이고 우리동네에 있는 상대원시장에 생긴다는데, ‘일단 해야지.’ 했단다. 따라서, 도서관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함주부의 회원들은 주 5일동안 피 프로그램으로 편성된 ‘책 읽어주는 시장’ 코너에서 DJ가 되어 책을 읽어주었다.

20대, 전주가 고향인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85학번으로 운동권은 아니었지만 그냥 학교생활만은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다. 사회적 이슈가 생길 수 밖에 없는 현실이었기 때문에 그 때부터 사회활동, 지역활동 등에 대한 시각이 생긴 듯 하다고 한다. 이러한 지역활동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별 거부감이 없었다.

“아, 시장 안에 이런 것도 생기는구나.
약간의 낯설음과 기대감과 기타 등등. 여러 감정이 들었죠.
공중과 라디오의 경우,
전국적인 방송이라 이런 시장만을 담을 수는 없잖아요?
처음에는 지역 라디오라는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했는데,
시장상인들을 위한, 지역주민들을 위한 라디오라니
참 잘만하면 좋겠구나는 생각을 했죠.”

박정숙님은 어떻게 상대원동, 원다방과 인연을 맺게 되었을까?

“저는 금광동에 살다가, 단대동에 살았었어요. 원래 결혼해서 울산에 살다가, 대전에 살다가, 성남으로 1997년도에 이사를 온 거예요. 성남에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러가지고 애들을 짹짹하게 키우고 있었는데요. 그 때 우리 애들이 아마 3,4살이었을꺼야... 옆집 아줌마가 이런 단체가 있다고 알려 준거예요. 그 엄마도 함주부 회원이었는데, 주부들 모임이 있고 활동하고 있다고 해서, 여기를 올라온 거예요. 항상 버스를 타고.”

원다방의 실무위원장으로 3년간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는지 묻자, 환히 웃으며 원다방의 생일을 먼저 이야기하신다.

“2008년 9월 22일! 와! 나 머리 너무 좋다~. 내 결혼기념일도 잊어버리고 지나가는데 원다방 생일은 기억하네. 하하하. 올해는 그냥 지나갔으니까, 내년에는 꼭 떡해서 먹자고 해야겠어요. 그 때 기억으로는 일주일간 시험방송을 하고, 9월 22일, 본 방송에 들어갔죠. 그 때, 원다방 프로젝트에 참여한 모든 팀들이 참 잘 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떠날 사람들이었으니까, ‘쭈마DJ’들이 1개월쯤 교육 받아서 이어받게 되었죠. 한 6개월은 고전했을까요. 1년이 지나자, 방송국이 안정화되기 시작했죠. 지금 방송은 잘 진행되고 있고요. 사실 2010년에 상인들이 끈끈한 연대감을 갖고 방송에 활발하게 참여하시길 바랬는데, 기대보다는 적게 이뤄졌죠. 하지만 제가 느끼는 3년간의 변화는 서로 믿어가고 있다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역시 사람과 사람이 신뢰를 쌓고 무엇인가를 맺는다는

것은 긴 시간이 필요한 듯 해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활동 주체가 변하지 않은 점에서 큰 점수를 얻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때마침 나도 상인 분들의 인터뷰를 다니다 보니 이제는 원다방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하고자 하는 의지를 엿보고 있던 차였다. 원다방의 활동과 공공적인 운영을 위해 상인회의 협조가 필요했다. 원다방 DJ들은 꾸준히 상인회 회의에 참석했다고 한다. 그래서, 더욱 더 규칙적으로 상인회 회의가 열리게 되었고, 현재는 원다방의 협력자이자 든든한 후원자로 자리매김하였다. 양쪽 모두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된 점이 뿌듯하다고 했다.

매월 높은 호응도를 얻고 있는 작은음악회는 2009년에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봄, 가을 2차례는 사랑방문화클럽의 공헌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열었고, 중간에는 원다방이 직접 기획해서 개최했다. 현재, 상인들 사이에서는 매월 꼭 해야 하는 행사로 인식되어 있다.

“맨 처음에 미래분식하고 진성떡집에서 노래자랑에 참여를 많이 해주셨어요. 부탁하면 꼭 OK 하셨죠. 너무 고마웠어요.”

실무위원장으로, 원다방 DJ로서, 상대원 주민으로서 마지막 바람에 대해 묻자 이렇게 대답한다.

“저는 원다방이 상대원시장 상인분들께서 ‘우리의 것’이라는 의지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원다방에 조금더 관심을 가지시고 편안하게 전화해 노래도 신청하고 생일도 축하해달라고 하시길 바래요. ‘우리의 것’ 이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행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구에게는 3년이라는 시간이 길기도, 짧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3년간의 꾸준함으로 신뢰를 쌓는 관계라면 그 기간보다 두 배, 세 배 이상의 인연으로 남을 것이다. 나는 원다방과 상인분들 모두는 이런 인연일 것이라 생각한다.

한 번 맺은 인연, 영원히!



“우리 장미라 방송국장님만큼
좋은 목소리와 말재주를 가진 사람이 없죠.
그냥 MBC, KBS 라디오 가서
DJ하라고 해도 괜찮을꺼야. 안 그래요?”

위의 이야기는 조길연 운영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원다방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원다방 DJ의 대표상징인 장미라 방송국장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원다방을 방문하면 제일 많이 만날 수 있는 사람.

작가, 시 낭송가, 방송국장이라는 여러 타이틀을 가진 장미라 방송국장님은 원다방 방송국에서 중심인물이다.

매일 2시부터 5시까지 방송이 끝난다고 방송국의 일은 바로 끝나지 않는다.

“오늘 방송한 3시간 방송분을 정리하고 저장을 해서, 인터넷 카페에 올립니다. 이 작업 후, 퇴근을 하죠. 요즘에 DJ들이 거의 다 배워서 이길순, 박신명, 박인자님들도 함께 많이 도와주면서 해주세요.”

“이런
말재주와
목소리는
없죠”

방송국장 _장미라

그녀는 퇴근을 하면 상대원시장에서 장을 봐서 집에 가 저녁준비를 한다.

장미라 방송국장님은 10년째 상대원동에 살고 있는 주부이기도 하다. 두 아들을 ‘책이랑 도서관’에 자주 보냈다고 한다. 자연스레 함주부 회원이 되었고, 활동을 하던 차에 ‘뭔가를 같이 해보자’고 해서 시작하게 되었다.

그녀의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제일의 장점으로 자연스러움을 꼽는다.

“방송은 친숙해요. 학교다닐 때 방송반도 했고요. 어렸을 적에 아주 시골에서 살았는데, 마을 방송을 자주 맡겼어요. 보통 마을 이장님 댁에 확성기가 있잖아요. 투표일 같은 경우, 이장님께서 저를 막 불러요. ‘미라야, 방송 좀 해라.’라고요. 그러면 이장님 댁에 가서 하루 종일 주민들 모두 투표하시라고 마이크 잡고 방송하죠. 그러면 동네 어르신들이 지나가시면서 ‘미라야, 투표 다 했어. 그만해도 돼.’ 하셨어요. 하하. 그래서 방송은 심심치 않게 했던 것 같아. 그러다가 이런저런 사회를 보게 되었고, 무대 앞에 서는 경험을 자주 하게 되었죠. 사람 앞에 나서는 것이 익숙해져서, 이젠 그냥 아무렇지 않게 되었어요.

원래 담당하는 방송분량은 일주일에 2시간인데, 갑작스런 DJ들의 결석 때문에 땀뽕 방송을 많이 한다고 하며 웃는다. 이렇게 자주 방송을 하면 방송 소재가 고갈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한다.

“보통 생활에서 있는 일을 그냥 편하게 이야기해요. 나도 생활하는 사람이니까, 어제 있었던 일이나 생활과 밀접한 것, 들어 부부싸움도 했다는 이야기도 그냥 서슴없이 하죠. 또, 내가 시장에서 왔다 갔다하면 본 것들, 느끼는 이야기를 하면 다들 공감하시는지 재미있다고들 하세요.

그리고 가끔 책을 보다가 이야기로 풀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소재들도 다루죠. 사실,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는 것보다 그냥 내 생각과 내 모습 그대로 이야기하면 다 통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포장해서 싹 감춰놓는 사람들. 저는 그런 아닌 척, 잘난 척하는 사람들 보면 시쳇말로 ‘뱀뱀’이에요. 하하. 요즘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사실 잘난 사람도 살짝 빈 구석이 있어야 인간적인 매력도 있고, 곧 잘 살고 있다고 느껴지는 거죠. 난 그런 게 좋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무엇보다 솔직함과 자연스러움이 사람들의 마음에 전해지기 때문에 DJ로서, 사회로서, 시 낭송가로서 사랑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촌동 2010 섬마을 문화축제에서는 축시를 낭독했고 사랑마루 작은 발표회에서는 ‘마을 만들기 사업의 부처’라는 자작시를 지어 낭송해 많은 박수를 받기도 했다. 시 낭송을 하기 된 계기를 물었다.

“내가 글을 쓰다 보니까, 시 낭송을 배우고 싶더라고요. 원래 관심이 많았어요. 시작했더니 잘하고 싶고, 잘하게 되니까 가르치게 되고 그런 거예요. 방송이나 시 낭송은 내게 생활 속의 자유를 줬어요. 하고 싶은 일을 했고, 잘 됐고, 저도 너무 좋아요.”

시 낭송을 배우기 원하는 DJ들과 함께 ‘재미나는 시낭송’ 클럽을 만들었고 사랑방문화클럽에 가입하여 사회공헌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다. 매주 목요일은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금요일은 금곡동의 ‘헤리티지 너싱홈’에 봉사를 나간다. 어르신들을 위한 시 치유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어르신들께 시를 읽어드려요. 그 중에 글씨를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시를 따라서 읽게 하죠. 함께 낭송해요. 처음에 그냥 들으시던 분들이 이제는 낭송도 하시고, 본인이 좋아하는 시를 읽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시고 하는 행동의 변화를 보이면 너무 기쁘죠. 보람도 많이 느끼고요.”

10월의 마지막 작은음악회에서 운영위원과 실무위원들에게 수여한 ‘감사장’은 장미라 방송국장님이 준비한 것이었다. 오랜만에 받은 상장이라 감회가 새롭고 남달랐는데, 너무나도 감쪽 같이 인쇄된 상장을 보니 어릴 적 생각이 나서 더 재미있었다.

“우리 애들한테 상장을 가끔 만들어줘. 그러면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서 만든 거예요.”

문득, 이 글을 쓰면서 장미라 방송국장님도 본인의 상장을 만드셨을까? 궁금해졌다. 만약 쑥스러워 만들지 못하셨다면 이 기회를 빌어 이 책에 적어드리려 한다.

‘감사장, 장미라. 귀하께서는 상대원 사랑방 원다방이 발전하는데 매우, 아주,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책에 남깁니다.’라고.

원다방의 영원한 누님

엔지니어_이길순



‘누님 다크스’

3년간을 꾸준히 구수한 목소리, 넉넉한 웃음으로 한 주의 처음인 월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를 책임지고 있는 이길순 엔지니어님을 만났다. 이 날은 가을을 알리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이었다.

“비도 오는데 막걸리 한 잔 마시면서 취중인터뷰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여? 하하하하.

2008년 11월부터 ‘누님 다크스’ 프로그램으로 원다방 DJ가 되었다. 첫 방송의 기억에 대해 물었다.

“첫 방송 때, 덜덜덜 떨었어요. 원다방 프로젝트 팀에 있었던 복태와 PK가 기계를 봐줬죠. 첫 방송에 대한 녹음분이 집에 있어서 얼마 전 들어봤는데, 지금 들어도 웃기더라고요. 웃긴 이야기를 전하다가 내가 웃음이 뺨 터진거야. 그랬더니 옆에 PK가 뺨 터지고, 하하”

사실, 성남예총과 연결해서 성남에 살거나 활동하는 신인가수들의 소개 코너를 마련해서

많은 후원을 해주고 싶었으나, 약 5~6회정도 진행한 후 잘 이어지지 못했다고 한다.

“그 때, 소개받은 사람이 ‘훈이와 들네’ 프로그램의 훈이. 김성훈 씨예요. 소개해준 분이 ‘진국인 사람이 있다’고 해서 소개받았는데, 정말 진국이더라고.”

현재 활동 중인 대다수의 DJ들이 이길순님의 소개로 온 것을 다른 사람들의 인터뷰에서 알게 되었다. 지역신문 기자 활동을 함께 하는 사람에게, 원다방의 출연자에게, 인연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소개받는 등, 참 여러 경로로 원다방 DJ들을 섭외했다.

“정말 이 세상을 살다보면 사람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연을 맺는 사람들이 항상 소중하죠. 이 사람이 내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내가 도움을 줄 수 있고, 헤어져도 언제 어느 자리에서 또 만날 수도 있으니까..., 잘 만나고 헤어져야 해요.”

상대원시장에 라디오방송국이 생긴다는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생길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지켜봤다. 처음에 시장에 라디오가 생기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원다방 관련한 설명회를 여러 번 했어요. 각 상대원동 주민센터 마다. 그 땐, 상인들이 약 8,9명 정도만 나왔어요. 성남시청 생활경제과 임진 주사님이 정말 애를 많이 썼죠.”

DJ를 처음하게 된 계기를 묻자, ‘내가 하겠다고 자원했어’ 하신다. 인터넷 방송이 한참 붐이었던 1990년대 말부터 2000년 초까지 개인방송을 직접 했다. 그 때,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시켜달라고 했단다. DJ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에 대해 물어보니 또 하나의 특별한 인연에 대한 이야기가 술술 나온다.

“처음에 누군가가 좋은 글을 시장야채 박정미 사장님한테 전해달라고 해서 프린트해서 놓고 가는거야. 그래서 내가 방송에 소개해주고 ‘꼭 놀러오세요’ 하면서 명함을 전해달라고 했지. 그런데 중간에 좋은 글이 안 오길래 궁금했는데, 음료수 한 박스를 사들고 원다방에

찾아왔어요. 오셔서 하는 이야기가 요즘 개인적으로 하는 공부가 있어 글을 못 보내서 미안한 마음에 와 봤다고 하네.”

상대원 주민으로 시장에 장보러 오며가며 라디오방송을 듣고서는 혼자 알기엔 아까운 좋은 글들을 여러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항상 정성스럽게 인쇄해서 가져다 두었다고 한다. ‘다들 좋은 사람들 많아요. 참 살만한 세상이지.’ 이라고 덧붙이신다.

현재는 1인 온라인 미디어인 한성넷(www.ihan-sung.net)의 편집인이자 발행인이다. 온라인 신문의 발행을 하게 된 계기는 3년 전부터 ‘신문사를 하나 차리고 싶다’는 야무진 꿈을 꿔왔다고 한다. 상당기간의 지역신문 기자, 객원 리포터 등으로 활동한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다.

“원래 학교 다닐 때, 책 읽는 것을 좋아하고 글짓기를 좋아했어요. 2005년, 교차로 플러스를 보니까 ‘주부 객원기자 모집’을 하더라고. 그 때 내가 똥똥한 것에 대해서 쓴 글을 보냈더니, 본부장님이 어쩔 이렇게 재미있게 글을 잘 썼냐고 했어. 면접보고 바로 기자활동을 시작했죠. 사실 기사라는 것은 한번도 써본 적이 없었어요. 그 때, 전문기자가 글 쓴 거 조금 봐주고, 내가 그냥 눈치로 때려잡아서 쓴거지. 하하.”

라디오 방송 중에 구성진 목소리로 노래 한 곡조를 뽑기도 한다는 그녀는 가끔 라이브를 해주면 시장 상인들도 무척 좋아한다고 한다.

“저는 상인들이 ‘원다방 라디오방송국은 내가 주인이다, 우리 때문에 방송을 한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직접 참여할 마음이 더 들겠죠. 사실 상인들이 부끄럼 많고 혼자 장사하는 분들이라 자리를 비우기가 힘든 것도 잘 아니까, 못 올라오면 신청곡도 많이 해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방송은 어떤 의미인가를 물었다. “방송하는 시간은 나에게 없어서는 안될 시간. 저는 방송하는 게 너무 좋아요. 처음 석 달 동안 긴장이 되서 말도 많이 더듬었어. 이제 원고 없어도 술술 이야기 하는데 말이지. 상대원시장에서 방송을 하니까 예전엔 물건만 사면 그만이었지만, 이제 그 마음과 입장이 달라졌죠. 그동안 상대원시장 상인들의 취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인터넷 신문에도 올리고,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그럴려고요. 내가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잘 해놓고 떠날 때는 떠나야지 하는 마음에서 시작해보렵니다.”

언제나 활동적으로 사는 그녀는 장성한 아들과 딸을 둔 나이를 잊은 상대원의 젊은 누님이다. 빨간색을 좋아해서 유난히 옷과 액세서리에 붉은 아이템이 많은 그녀. 상대원동을 지나다가 빨간색을 입고 카메라를 들은 경상도 사투리의 열정적인 여인을 보면 ‘이길순 선생님?’ 이라고 아는 척 해보시길.



신명나는 세상을 꿈꾸며

박신명

원다방의 작은음악회가 열릴 때마다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분주한 손길이 있다.

그 다음에는 어김없이 며칠 내로 행사사진이 올라와 있다.

꼼꼼한 방송준비, 조용하지만 강단있는 말투,
가끔 훌륭한 음식솜씨를 발휘해서 맛깔나는 반찬으로
원다방 식구들에게 소박한 밥상을 차려주는
DJ. 박신명 님.

“원래 직장을 그만두면 아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보게 되잖아요? 제가 2009년 봄, 직장을 그만두고 오랜만에 장미라 방송국장님한테 안부인사 겸 연락을 하게 됐죠. 장미라 방송국장 님하고 인연이 깊어요. 그래서 여기 상대원시장 63냉면에서 만나서 냉면 하나 먹으며 여기 이야기를 들었죠. 그래서 ‘방송국하니까 놀러와라’ 해서 곧바로 따라왔어요. 이후에 ‘아나듀오’ 교육이 있다고 해서 교육을 받고 DJ가 되었어요. 지금까지 거의 결석없이 쪽 방송을 했죠.”

성남에서 산 지는 총 23년. 상대원 2동에 산 지는 5년째. 원다방에 대해 이야기를 듣기 전

에는 라디오 방송국에 대해서 거의 몰랐다고 한다. 상대원시장에서 장을 보는데 어디에서 소리가 나고 있구나 정도만 알았다는 그녀. 워낙 두부를 좋아해서 두부마을이 제일 단골이란다. 그 뒤로는 시장야채, 시장즉석어묵, 생선집, 영동건어물 등.

“주방에 라디오가 달려 있으니깐, 매일같이 틈나면 들어요. 주로 MBC라디오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들죠. 양희은, 강석우 씨 방송부터, 저녁 6시 김미화 씨 방송 등. 워낙 많이 들어요. 각 프로마다 특성이 있어요. 양희은 씨 방송 같은 경우, 내가 글을 써서 많이 참여했죠. 그 프로의 경우, 저는 삶의 이야기를 그대로 방송하는 게 좋아요.” 라디오는 여러 이야기를 다 담아내는 것 같다고 했다. 삶의 이야기, 재미난 이야기, 퀴즈, 사연 및 신청곡, 노래자랑, 시사경제 및 세계소식 등 재미있는 요소부터 여러가지 유익한 정보까지, 라디오를 들으면 여러가지 스트레스와 궁금점이 해소된다고 한다.

그녀의 닉네임이 ‘박신명’ 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이름을 ‘신명나는 세상’ 으로 했다.

‘신명’이라 짓는 이유를 묻자 그녀는 말 그대로 본인이나 다른 사람 모두 신명 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한다.

“제가 박신명이긴 하지만, 성격이 다소 내성적이라 재밌게 말을 못 옮겨서, 대체적으로 많이 적는 편이에요. 첫 방송 때는 대본을 아예 다 적어서 준비했고 지금은 방송에 이야기해야겠다고 하는 소재와 선곡된 노래제목을 적어 오죠. 내가 다 들어보고 순서들도 정해와서 전체적인 방송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지 모두 체크해요. 일주일엔 1시간 방송이지만, 선곡 같은 경우는 밤 12시 넘어서 이어폰 끼고 선곡 다 하고, 처지는 노래나 분위기 안 맞는 노래를 다 골라내고... 대본은 마찬가지로 저녁에 주로 많이 써요. 혼자만의 시간이죠. 일주일간 재미있었던 일들을 많이 나열해요. 시장 분위기, 시장에서 본 이야기도 하고, 거리를 지나올 때 느꼈던 점 등을 체크해서 하죠.”

지난 10월의 문화사색 촬영 중에 보여준 노트가 기억 났다. 두꺼운 노트 속엔 월일, 방송대본, 음악곡목 등이 꼼꼼하게 적혀있었다. 박신명 님의 소중한 기억이자, 원다방 ‘신명나는 세상’의 기록이었다.

꼼꼼함이 몸에 배어있는 박신명 님은 모니터링도 많이 했다고 한다. 지방사투리 억양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썼다며, 다른 분들의 방송도 듣고 느낌이나 조언 등을 인터넷 카페에 댓글로 남겨둔다고.

“이길순 선생님이 워낙 구수하게 방송을 하시니까, 들으면 편안해요. 장미라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문가 수준이고, 요즘 수요일마다 하는 ‘여성의 전화’ 같은 프로도 참 유익하죠. 이런 정보성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방송고등학교 학생들은 이야기가 무궁무진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학생들의 목소리로 듣게 되니까 새로워요.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으면... 우리집 애보다 어리거든요. 진짜 학생들의 순수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으니깐 새로워요.”

첫 방송하던 날이 제일 즐거웠다고 대답하는 그녀. 떨리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한다. 이전에 라디오 등에 직접 출연하는 경험들이 많아, 나서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떨지 않는다고 한다. 이래봐도 실전에 꽤 강하다며 웃는다.

그녀의 삶에, 원다방은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변화는 많죠. 방송을 하면서 내가 막 즐거워하니깐, 주부가 즐거우면 가정 이 즐겁지. 하하하. 당연히 내가 즐거우면 음식 맛도 좋고, 가족들 분위기도 좋고! 그런 면에서 남편이랑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죠. 큰 행사가 있으면 와서 구경해요. 우리 남편은 사랑방문화클럽의 사진동호회 무한포커스에서 오래동안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진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잘 찍고 싶기도 하고요.”

원다방이 전국적으로 많이 유명해졌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목적만큼 상대원시장이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마음, 성남시민들 모두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공유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다.

“제가 행사 때마다 사진을 많이 찍잖아요? 사실 그 카메라는 친 막내동생 것인데 마음껏 쓰라고 해요. 일단 행사를 담아서 올려줄 수 있는 게 너무 좋고요, 그 모든 시간이 원다방의 기록이니깐 제가 더 열심히 해서 기록을 남겨보겠다는 생각이예요. 도움이 되는 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더 잘 하려고요.”

‘남편분과 금슬이 정말 좋아’는 다른 DJ님들의 질투아닌 질투 섞인 이야기를 들으며 이렇게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디에서든 타인을 귀히 여기고 존중할 줄 안다는 이야기가 옳다고 생각했다. 내년, 그 후년에도 박신명 님의 방송 프로그램 제목처럼 ‘신명나는 세상’, 원다방 모두의 바람처럼 ‘신명나는 상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똑소리 나는 엄마 DJ

박인자



누구나 신경이 날카롭지 않을 듯한 기분의 **오후 4시**.
대낮도 아닌, 저녁도 아닌 하루의 어중간한 가운데 토막.

금요일 상대원시장에

‘시골 할머니가 들려주는 이야기~’로 시작되는 시그널 음악이 퍼져나가면
장보러 나온 주부들이 **‘곧 나온다’**는 신호처럼 들린다.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 이름은 세상사는 이야기예요. 일주일간 있었던 이야기를 몇 가지 골라요. 이번 주에는 월드컵 경기가 있었으니까, 월드컵 이야기 하고, 시사경제 이야기, 장마철이니까 장마 이야기와 대비책 등이 소재였죠. 신문을 읽다가 같이 생각해봐야 할 거리가 있으면 그걸로 문장을 만들어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도록 준비하죠. 어려운 말은 쓰지 않고, 그냥 말로 편하게 풀어서 이야기해요. 거추장스러운 동작을 버리고 맨 몸으로 뛰고 싶다는 표현으로 대신하고 싶어요.”

나는 몇 년 전, 사랑방문화클럽 ‘풍물굿패 우리마당’의 취재를 갔다가 박인자 님 가족을 만난 적이 있었다. 가족들이 함께 민요배우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다. 당시 아들 김정

호 군은 4살 남짓이었는데, 선생님이 가르치는 남도소리의 모든 가사를 외워 엄마,아빠 옆에 앉아 블록쌓기를 하며 흥겹게 따라 불렀다. 현재 경호는 무럭무럭 커서 초등학교 1학년생이다. 이후, 박인자 님을 행사 등 곳곳에서 뵈 수 있었다. 성남문화재단 모니터링단, 사랑방문화클럽 활동에도 꾸준히 참여했다.

“원다방은 돌아다니다가 발에 걸려 넘어진 곳이에요. 여러 활동을 하면서 원다방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되었지만 첫 행사를 못 왔어요. 이후에 라디오방송국이 운영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궁금했어요. 여러 인연으로 알게 된 이길순 선생님께 가보고 싶다고 말했는데 ‘와봐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왔죠. 스튜디오를 보면서 ‘살아있는 그대로가 방송으로 나가고 있네.’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장미라 방송국장님이 항상 하시듯, 제게 낚시를 하셨어요. 하하. ‘코너가 많은데 할 사람이 부족하다, 한번 해봐라.’ 하셔서 ‘다음주부터 올게요!’ 해서 작년 6월부터 DJ를 하게 되었죠. 벌써 딱 1년 되었네요.”

방송에 대한 준비는 약 30분에서 40분 정도 하고, 일주일동안 여러 이야기거리를 수집하기 위해 항상 눈쭈름, 귀쭈름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음악선곡도 흔히 접하는 가요보다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틀기 위해 노력한다고 한다. 방송 진행할 때, 방송사고나 기억나는 에피소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이런 이야기를 했다.

“저도 무슨 일을 닦쳐면 사실 당황하죠. 하지만 즐기면서 넘어가려고 해요. 잘못되었거나 실수하는 상황이면 그냥 알려요. 아까 방송할 때도 음악들려주는 프로그램이 리뉴얼되어 다 바뀌어서 노래를 찾아봤는데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주세요’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죠. 최대한 그 상황에서 제가 책임을 지려고 노력하려고 해요. 사실 상황과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녀의 부모님들께서도 재래시장에서 장사를 하셨다고 한다. 그래서 재래시장이라고 하면 남다르단다. “나도 예전에 시장골목에서 놀았고, 시장통에서 살았다는 것. 시장은 항상 유지되어야 하고 정말 필요한 곳이에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상대원동에 살지 않아서 아는 척 하기가 어려워져, 이 곳 이야기를 하기에는 조심스럽지만, 어릴 때 시장의 기억에 대해 이야기 많이하죠. 현재, 상대원시장에는 이런 라디오방송국이 있는데, 상인분들



‘달랄라라라~ 원다방 방송국~ 여러분과 함께 하는 즐거운 라디오’

하는 시그널 뮤직의 중간에 튀어나오는 이장님 버전의 멘트를 기억하십니까?

바로 그 목소리의 주인공 김성훈 님을 만났다.

실제로 만나니 시원한 목소리의 소유자였다.

매주 수요일 3시부터 4시까지
‘안녕하세요, 훈입니다’를 진행하고 있다.

“훈이씨,
아주
진국이여”

김성훈

“원다방에는 맨 처음에 출연자로 왔어요. 제가 하는 일이 음반을 만드는 일인데요, 제가 음반을 만든 ‘하비’라는 가수의 음반 홍보차, 초대손님으로 출연했는데, 방송한 후, 얼마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남자 DJ가 필요한데 해볼 용의가 있는지, 그래서 고마운 마음으로 시작했죠. 제가 첫 방송을 2009년 4월 1일에 시작했거든요. 1년에 훌쩍 넘은 거죠.

오늘 김성훈 님 인터뷰가 있다고 하자, 이길순 님이 말씀이 기억났다.

“훈이씨, 아주 진국이여. 처음이나 지금이나 한결
같아. 예의 바르지, 착하지. 강원도에

공연을 하다가도 방송
시간이 되면 여기 방
송왔다가 다시 강원
도로 가고 그래요. 전
에 눈이 너무 많이 와
서 오기 힘들다고 해
서 딱 1번 빠졌어.”



께서 같이 즐기면서 시장 활성화에까지 이용하려는 생각이 부족한 듯 보여서 많이 안타깝죠.”

원다방의 여러 행사에 꾸준히 참여하여 함께 돕고, ‘재미나는 시낭송’에서는 갖가지 소품을 이용해서 색다른 무대를 꾸며주고 있는 그녀는 어떤 생각과 마음이길래 이렇게 열의를 갖는 것일까?

“나한테 ‘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어릴 때부터 ‘시’를 쓰고 싶다는 생각을 꾸준히 하고 있었어요. 경험하는 것을 좋아해서 여러가지 활동으로 시간을 많이 보냈고요. 그런데, 해가 지나가면서부터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잘 모르고 있었던 듯 해요. 그것을 확실하게 알려준 것이 지역신문 기자활동이었어요. 틀에 박힌 글을 쓸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자꾸 감성적인 부분만 부각시키니까 기사와 맞지 않는 거죠. 이 때, 나는 ‘내 감성이 전달되길 원하는 사람이었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시낭송을 배우고 시를 읽으면서 내 감정을 아주 조금씩 끌어냈던 거예요. 어떤 대상, 사물, 사람에 대한 내 감정을 중심으로 시작하니까, 자연스럽게 감정이 분출되는 거죠. 내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구나를 알게 되었죠.”

마지막으로 방송이 주는 의미에 대해 물었더니 이런 답변이 되돌아 왔다.

“제 성격이 새롭고 낯선 것에 대해 크게 겁내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되도록 방송 안 빠지려 노력했어요. 방송에 빠지고 싶지도 않고요. 최소한 내가 가진 것 이상으로 방송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저는 어디서든지 제 것을 잘 쌓으며, 그것을 발판으로 여러 사람과 함께 그려가고 싶어요. 내가 가진 여러 재주와 기술로 하는 봉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을 방송이라는 매체로 할 수 있고, 내가 원해서 하는 활동이라 생각하니까, 아이에게도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어요. 욕심부리지 않으면서요.”

내 감정, 있는 그대로의 날 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싶은 사람,
전달한 감정이 통해서 공감하는 한 마디 말로 돌아왔을 때 기쁜 사람,
내가 원하는 활동을 통해 내 삶의 주체가 되는 사람.
박인자 님은 이런 사람이다.

약속을 지키는 모습에 대해 존경스러움이 듦과 동시에 대단한 열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작곡가로 활동 중인데, 본래 전공은 사진이라고 한다. 사진도 좋지만 기타치고 노래하는 것이 좋아서 음악을 생업으로 삼게 되었다.

“제가 하는 일이 음악이니까, 음악 선곡은 청취자 분들의 연령이나 유행하는 음악 위주로 하고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청취자들이 잘 모르시는 음악 뒷 이야기를 알려드리기도 하죠.”

6월에 있었던 ‘재미나는 시낭송’ 모임에는 재주많은 DJ들이 모두 총출동을 했다. 이 때, 무대에서 일렉트로닉 기타로 게리무어의 ‘Still got the blues’를 치며 노래를 불렀던 김성훈님을 처음 뵈었다. 역시 프로다운 실력이었다. 무대에서 내려오니 성남방송고등학교 학생들이 환호하며 함께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본 기억이 떠올랐다. 원다방에서 열리는 여러 행사에 스케줄이 허락하는 한 흔쾌히 온다고 한다.

“여기 원다방 식구들 중에 프로로 무대에서 공연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진 않아요.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출연료나 섭외가 어려운 상황이니, 제가 자주하게 되는 거죠. 하하하.”

중학교 때 이사와서 30년을 성남에서 살았다. 태평동에서 제일 오래살았다고 한다.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어도 성남에서 계속 살고 있다. 공연 때문에 또는 여행 삼아 다른 도시를 많이 다녔는데, 요즘의 성남의 이미지는 서울의 위성도시 이미지를 벗어났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역이 존재하는 당위성을 가진 지역 문화유산에 대해 조금 더 부각시켜 뿌리있는 도시의 이미지로 살려냈으면 하는 바람이 컸다.

살아온 이야기와 함께 원다방 이야기를 나누면서 성남에 대한 애정과 사회를 바라보는 시

각까지 엿볼 수 있었다.

“저는 솔직히 처음 올 때, 흔히 생각하는 공중파 방송국 스튜디오인 줄 알았어요. 출연하고 나서 방송국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돌아갔는데, 기억에 남더라고요. 이런 활동이 **‘의미도 있고, 필요한 것이다.’**

공중파 방송 채널은 넘쳐나는데, 여기하고 개념과 의도가 다르잖아요. 이 곳이 더욱 더 대중밀착형, 시장 상인들을 위주로 방송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규모가 크든지, 작든지 지역방송국이 곳곳이 생겨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곳에서 동네 학생들이 방송할 수 있고, 지역문화행사도 개최할 수 있잖아요. 방송도 방송으로서의 가치도 있지만, 방송국이라는 문화공간이 하나의 매개체가 되기 때문이죠. 이런 공간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덧붙여서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것이 참 기쁘다고 했다. 그 간에 성남에서 살면서 나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생각하면 안된다는 마음의 짐이 있었는데, 이렇게라도 지역활동의 기회가 주어져서 정말 다행이라고 했다.

원다방 DJ는 언제까지 할 것이냐는 물음에 웃으면서 대답한다.

“여기서 안 자르시면 계속 해야죠. 하하하. 라디오 DJ를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건,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제 스스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때가 되길 준비하는 거죠. 사회자나 DJ의 역할에 대해서는 방송국이 발전하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제 스스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커지길 바라고 있는 거죠. 사회자, 진행자가 필요했을 때, 섭외비용을 줘야하는데, 지역사회 문화단체에서 하는 건 제가 그냥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하나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를 전부 내어주는 사람이 있고, 백 개를 가지고 있어도 단 하나, 내어주지 않는 사람도 있다. 오늘 만난 김성훈님은 하나를 전부 내어주고도 다른 하나를 만들어가고 있는 분이었다. 인터뷰의 매력은 여기에 있다. 내가 겪지 않아도 배울 수 있다는 점. 나는 오늘도 긍정적이며 희망에 가득찬 인생을 배우고 돌아왔다.

책 읽어 주는 DJ

장은화



원다방에서 제일 처음부터 DJ로 활동한 장은화님은
매주 화요일 2시부터 3시까지 '화요 에세이'

첫 방송시간을 맡았다가
현재는 금요일로 방송일을 옮겨 '금요에세이'를 진행하고 있다.

“저는 처음에 원해서 한 것은 아니었어요. 방송이 낯설잖아요. 제가 한 첫 방송은 떨렸죠. 발음도 안되고... 그런데 이제는 습관이 되서 떨리지 않고 익숙해졌어요. 2년이 넘었으니까요.”
2004년 성남에 처음 와서 아는 사람이 없어 아기를 데리고 일찍부터 문화센터를 다녔다. 어느 날, 아이의 유치원이 '책이랑 도서관' 바로 밑에 있어 다섯살부터 도서관에 다니기 시작했다. 같이 들어온 주부들이랑 교육에 대한 여러가지 이야기하면서 의기투합이 되어 동아리를 만들었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재미있었다. hamzu부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DJ로 활동하게 되었다. 현재는 hamzu부 회원은 잠시 쉬는 상태이다.

원다방의 첫 해에 대한 기억을 물었다.

“처음엔 라디오 방송에 대한 반응이 안 좋았어요. 소리나서 싫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스

피커 달지 말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스피커가 켜져 있는지를 봐야하는 것도 답답했죠. 지금은 안 그런데, 그 때 이런 것은 우리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듣기 싫은데 계속 들어야 하는 것도 곤욕스럽겠다, 이걸 아닌 것 같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방송에 대해서 조금 더 충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인식들이 많이 바뀌어서 시끄럽다 소리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책을 준비하고 고르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한다. 어느 날, 하루 종일 골라온 책 때문에 화가 났다고 한다.

“방송에서 읽다보니 내용이 화가 나는 거예요. 준비할 때는 이 느낌이 아니었는데... 읽다가 ‘어쨌쨌, 화가 나서 못 읽겠네요,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오늘은 접을게요.’하고 남은 시간에 음악만 틀었어요. 왜 그런거 있잖아요, 책 내용이 자기 자화자찬이었던 거죠. 수필집이 소설보다 고르기 어려운 게 얼토당토 않는 사람의 생각이 그대로 나타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상인들과 오가는 손님들을 위한 방송이다 보니 일하다가 잠깐씩 들을 수 있는 짧은 호흡의 내용들이 좋더라. 정채봉 시인을 좋아한다는 그녀는 수필 등을 많이 읽는다. 특히 이 일 때문에 책을 더 사게 되었다고 한다. 한동안은 법정스님의 책을 많이 읽어드렸단다.

“초반에는 그 전날에 소리내어 다 읽어봤어요. 읽고 연습하고.. 지금은 대략 훑어보고 내용을 확인한 후 원다방에 오죠. 발음을 정확하게 내려다보니 끝나고 나면 턱이 아파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아니면 언제 해보겠냐,’ 하는 생각이 들죠.

이후, 12월 원다방 송년회에서 장은화님을 만날 수 있었다. 원다방에 올 손님들을 위해 음식상을 차리고 함께 즐기는 모습을 봤다.

우리가 사는 주변을 돌아보면,

두 팔 걷고 나서서 일을 하는 사람, 뒤에서 묵묵히 지지하면서 함께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전자도 중요하지만, 후자인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지자가 많아야 그 조직은 탄탄히 오래갈 수 있다. 장은화님은 상대원방송국 원다방의 많은 지지자 중에 하나임이 분명하다.



일주일간 방송 준비하는 꼼꼼한 DJ

박인경



고운 목소리로 **한 주의 마감인 금요일을 알리는**
박인경 님은 2009년 9월부터 시작하여 인터뷰 당시, 이제 막 1년이 된 참이었다.
목소리만큼 단아한 외모를 지니셨다.

“저는 원래 라디오를 즐겨 들었는데요, 그래서 라디오의 스튜디오 안이 궁금했어요. 막상 와 보니까 생각보다 참 작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시장 안에 있다고 하니까, 어떤 방송국인지 감이 잘 오지 않아 궁금했어요.”

방송을 시작하게 되면서부터 방송진행에 대한 부담감보다는 성격상 낮가림이 있는 편이라 여러 사람들하고 먼저 관계를 맺는다는 것에 대해 다소 부담스러웠다고 한다. .

현재 하고 있는 방송의 주제는 ‘역사’ 라고 한다. 왜 역사라는 주제를 선택했는지 물었다.
“처음엔 DJ가 원고를 써야한다고 하셔서, 제가 원고를 쓸 능력까지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럼 책을 읽어보면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제를 역사로 잡았죠. 처음에는 역사책을 많이 읽었는데, 아무래도 책만 읽는 것 보다는 시장에 왔다갔다 하는 분들, 상인들이 관심가질 만한 내용 등을 스크랩해서 읽어드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에 역사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를 섞어서 하게 되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픈 프라이스 (Open Price)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역사 이야기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고요. 책보다는 짧기 때문에, 들으시는 분들도 집중할 수 있고 편안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일주일에 한번쯤 도서관에 가서 책을 고르고 내용을 꼼꼼히 읽어본다. 긴 내용은 짧게 정리한다. 일반적인 이야기들은 신문을 읽은 후, 읽으면 좋겠다는 자료를 따로 모아서 준비한다고 한다. 가끔 원다방 카페에 들어가서 모니터링도 한다. 보통 장미라 방송국장님과 이길순 님의 이야기가 너무 자연스럽게 안정감있어서 ‘이렇게 해야겠다’ 는 생각을 한다. 방송하는 목소리 톤을 안정적으로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DJ들 모두가 목소리와 발음이 너무 좋다며 칭찬하셨다.

아까 인터뷰 내용 중, 초기에 원다방이 생긴 목적과 활동에 대해 잘 몰랐지만 현재 잘 알게된 이후의 느낌에 대해 물었다.

“원다방이 상대원시장 안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몰랐지만, 지금은 시장 안에서 상인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고, 여러 행사도 직접 주최하고 상인들에게 많이 다가가려 노력하고 모습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라디오를 즐겨듣는다는 이야기에 즐겨듣는 프로그램을 물었다.

“라디오는 TBS를 주로 들어요. 교통정보가 많이 나와서요, 조금 귀찮처럼 들리실지 모르지만, 집 안에 있으면서도 교통방송을 듣다보면 제가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는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즐겨 들어요. 혼자 길을 상상하고 돌아다니네요. 하하하.”

**라디오를 들으면서 상상하고,
그 상상하는 마음으로 행복해지는 경험을 해봤기에
원다방에 대해 이런 열정을 가지게 했다고 생각이 들었다.
이 열정이 원다방에서 오래오래 꽃피길 바란다.**



진도가 고향인 옥주 아재

손종구

전라도 사투리 목소리를 따라 해남, 강진을 가고 보성까지 간다.

남도소리를 부르며 우리민요와 꽃 이야기를 전해준다.

아이디는 ‘옥주아재’.

그가 진행하는 방송프로그램 이름은 ‘아재와 콩나물’.

목요일마다 갖가지 주제를 다룬 목소리를 듣다보면

언제 1시간이 지났는지 모를 정도이다.

"아재와 콩나물. '아재'는 전라도 사투리로 아저씨죠. 제 닉네임인 '옥주'가 무슨 뜻일까요? 제 고향인 진도의 원 지명이 '옥(沃)' 예요. '옥(沃)'자가 물대일 옥, 기름질 옥이고, 고을주가 붙어서 '옥주', 풍요로운 곳이라는 뜻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진도아저씨라는 거죠." 뒤에 붙인 '콩나물'은 '상대원시장에 아재도 콩나물을 사러 간다'는 의미를 담아서 '아재와 콩나물'이라고 지었다고 한다. 민요를 좋아하니까, 민요로 주제를 잡았다. 그런데 하는 일이 인테리어라서 5월 이후 방송에 잘 못 나왔다. 잠시 콩나물을 못 사러 왔다면 웃는다.

본래 원 방송은 '셋이서 콩나무'라는 프로였다고 한다. 그 때는 정겨운 님, 김경민 님하고 함께 세 명에서 시사토크쇼를 진행했다. 세 명에서 너무 죽이 잘 맞아 일상생활까지 주제를 넓혔었다. 아쉽게도 두 분이 그만두고, 올해 3월부터 혼자하게 되었다.

"함주부를 취재하러 갔다가 원다방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실 상대원에 살면서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방송국 취재를 하러 나왔고, 장미라 국장님이 한 코너를 맡아서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하셔서 시작하게 되었죠."

방송에 대한 주제와 이야기거리는 어떻게 준비하는지 물었다.

"방송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는 없어요. 사전정보를 충분히 습득한 후에 해야하죠. 요즘은

전남 영광의 낙조가 유명해요. 백석면으로 가면 해안도로가 아주 일품이고요. 이런 정보가 여행가이드에 나올 수도 있지만, 내가 아는 알짜배기 여행 정보도 이야기해요. 지금 하고 있는 테마가 민요, 여행, 역사, 꽃 이야기인데. 여행은 좀 많이 다니는 편이고, 꽃은 내가 좋아해서 사진을 찍으러 돌아다녀서 많이 알게 되었고, 민요야 아까 말한대로 내 고향이 진도니까 많이 알고 좋아하고. 그러죠."

옆에서 이길순 님이 '손종구 선생님, 창도 잘해!'라고 한 마디 거드신다. 어머니 뱃속부터 창을 배웠으니까 당연한 거라고 우스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제 고향 진도는 굉장히 예향이에요. 소위 '보성가서 소리 자랑 마라'라고 하는데 더 유명한 곳이 진도예요. 마이크 잡고 연주나오는 노래방이 아니라 마을 아짐들(아주머니 사투리)과 아재들이 저박지(자배기의 사투리, 아가리가 등글고 넓적하게 벌어진 웅기그릇)에 물을 담고 바가지 얹어서 두들기며 소리를 했어요. 이게 '둥둥게 타령'. 이게 우리나라 최초 노래방 아니겠어요?"

이번엔 성남에 대한 이야기를 물었다. 고향인 진도보다 훨씬 오래 산 성남. 공단에 직장이 있어서 1982년도 상대원 3동으로 이사왔다. 거기서 20년 살고, 상대원 2동으로 이사 와서 또 10년 가까이 살았다. 둘째아이는 여기 와서 낳았다. 이제는 내 고향이 되었다고 하신다.

"지금 중원경찰서 자리와 보건소 자리는 도토리나무, 참나무 숲이었어요. 퇴근하면 거기 근처에서 막걸리 술하게 먹



있죠. 여기 상대원시장은 가운데 현대직판장이 없었고, 거의 단층 슬레이트 건물들이었어요. 점포와 노점수도 무척 많았죠. 그 때 당시는 꽤 규모가 있는 시장이었어요. 또, 성남 주택가 집 중간중간 공터들이 있었어요. 밭 가운데집 이라고 있었는데 정말 밭 가운데에 지어진 선술집이 있었죠. 가격도 싸고 서민들이 찾기에 좋은 곳이었어요."

30년 가까운 시간동안 이 곳에서 터전을 잡고 일해 온 그는 '성남' 이야기를 술술 풀어냈다. "1980년대 초반 성남은 시골스러웠죠. 지금 양재동부터 세곡동까지 들어오는 길이 아주 구불구불한 2차선이었어요. 또, 새마을주택이라고 길게 40평을 지어서 20평씩 벽으로 나눈 지은 집들이 꽤 많았어요. 그 뒤로 연립주택들이 지어졌고, 연립이 없어지면서 아파트 층으로 변화가 한번 더 있었어요."

지금 살고있는 상대원 2동 동네 사람들과도 매우 친하게 지낸다고 한다. "우리집은 막다른 골목이에요. 오늘 지금도 그 골목 앞에 이 집, 저 집 다 나와서 같이 저녁 먹고 놀고 있을 거예요. 10년 전에 내가 오니까 그 분들은 이미 와 계시더라고. 하하."

이렇게 웃음이 많고 주변 사물에 대한 감성이 깊은 옥주 아재의 삶의 신조는 무엇일까? "내 삶의 신조는 '항상 웃자.' 내가 웃어서 상대방도 즐겁게 해줄 수 있죠. 또 하나의 좌우명은 비교하지 말자. 비교를 하면 나는 잘나나 못나나, 어차피 못난 놈이에요. 이 두 가지는 꼭 지키면서 살려고 하죠."

약 2시간에 가까운 인터뷰가 무척 짧고 재미있게 느껴졌다. 일이 바쁜 관계로 10월 이후에 방송을 그만 뒤 옥주아재의 수다를 들을 수 없어 아쉽기만 하다. 하지만 원다방의 행사에는 빠지지 않는 그니까, 큰 목소리로 '옥주아재!' 라고 부르면 넉넉한 웃음과 두터운 손을 내밀며 먼저 악수를 청할 것이 확실하다. 옥주아재, 항상 건강하세요!

원다방 DJ 워브숍 교육과 견학 등, 관련 행사에 빠지지 않는 한 분이 있다.

‘장윤정의 오후 4시엔’을 맡아 1시간 동안 차분한 목소리와 살아가는 여러 이야기로 채워준 장윤정 님. 인터뷰하는 것이 쑥스럽다고 하시면서도 조용한 음색으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다.

“제가 지역소식지 기사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길순 선생님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기자생활을 마치고 조금 쉬고 있는 터에. ‘윤정씨, 여기 라디오 DJ 같이 해볼래?’ 하고 말씀 하시길래, 2009년 가을부터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 혼자서 방송을 모두 준비했어요. 주제 잡고, 대본쓰고 선곡하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내가 수년간 오래 봐 온 잡지가 있는데, 시중에 잘 나오는 잡지가 아니어서 여기 글을 발췌하고 내용을 간추려서 읽어드린 후, 내 이야기도 함께 이야기해요. 삶의 이야기, 건강 등에 대해서도 나오고, 유익한 내용들이 많아요. 여기 DJ들께 보여드렸더니 내용들이 참 재미있다고들 하시더라고요. 방송에서 1시간 동안 약 네 가지 정도 소개할 수 있는데요, 사는 이야기 1개, 건강정보 1개, 유머 1개 정도 하고, 나머지 1개는 그 때, 그 때 달라요. 하하.”

원다방 DJ 활동을 하면서 달라진 점, 느낀 점에 대해 물었다.

“처음에는 되게 부담스러웠는데, 한 두 번 하다보니 ‘어머? 이 맛인가?’ 를 느꼈어요. 잘은 못하지만, 방송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정보가 될만한 모든 것을 자세히 읽어보면서 신경을 쓰게 되었죠. 특히 주변의 다른 것들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제가 더욱 다듬어 지는 기분이예요. 방송 자체도 재밌으니까, 오는 거예요. 사실 집이랑 조금 멀어서 부담이 있긴 하

4시에
만 나요!

장윤정

지만, 이제는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것이 즐거운 것 같아요.”

원다방 DJ님들과의 특별한 인연도 들을 수 있었다.

“얼마 전 제 아들 결혼식에서 장미라 방송국장님이 축시를 낭송해주셨어요. 결혼식의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던지... 저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하객들마다 분위기가 너무 좋았다고 칭찬하시더라고요. 너무 고맙고요. DJ 분들도 많이 오셔서 축하해주셨거든요. 이 자리를 빌어 정말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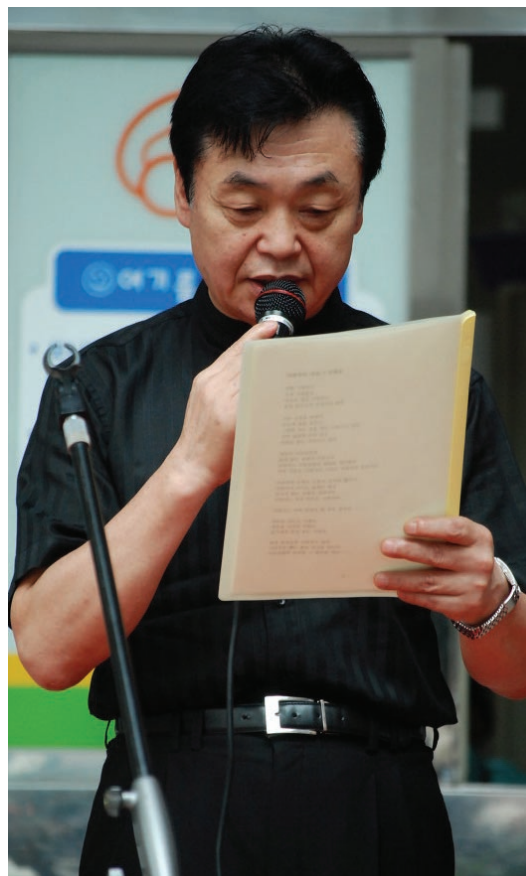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원다방에 대한 소감과 느낌을 물었다.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잘 하고 계시지만,
이 방송 자체가 성남 전역에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예요.
그래서 상대원시장 원다방에 대해 관심을
더 받게 되고 모두에게
유익한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잘 하고 계시지만,
이 방송 자체가 성남 전역에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예요.
그래서 상대원시장 원다방에 대해 관심을 더 받게 되고
모두에게 유익한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디어뱅크_김두산



성남시 중동의 ‘장미라사’. 중동 4거리에 자리잡은 이 곳은 32년간 꾸준한 외길인생인 김두산님의 소중한 가게이다. 실력을 인정받아 여러 대회와 출품과 수상을 했던 그의 기술은 바느질 외에도 여러가지란다. 그 중에 하나, 끊임없이 샘솟는 뛰어난 아이디어를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상대원시장에 쏟아낸다.

2010년 11월부터 시작한 DJ 생활.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처음으로 물었다.

“이길순 선생님이 성남지역의 장인에 대해서 취재하러 우리 가게에 오셨지요. 그리고 신문기사가 나간 후, 참 고맙웠어요. 그 다음

아이디어 뱅크

김두산

에 만났을 때, ‘원다방이 출연해 줄 수 있느냐’ 하고 부탁하시길래 여기에 온 거죠. 딱 한 번만 오려고 했는데, 와보니 사람들이 정감있고,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코너를 만들어서 계속 오게 된 거예요. 그냥 상인들을 위해서 뭔가 좋은 것을 전달해주는 장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24시간 물입하는 장미라 국장님이 나 이길순 님, 박신명 님 보면 진정성을 가진 사람들이 참 대단한 일들을 하고 있구나, 나도 같이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제일 처음에는 상대원시장의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방송을 했다. 그런데 그것만 하다보니깐, 소재에 한계가 있어서, 마케팅에 도움이 될만한 여러 아이디어들도 이야기하는 것으로 콘셉트를 잡았다고 한다.

살아오면서 체험한 것들, 실제로 검증된 것들을 가지고 방송을 하는데, 방송 당일 아침에 어떤 소재로 방송 하겠다고 구상한다.

“지난 DJ 워크숍 때 시장을 돌아본 보니 현재 상인들이 라디오 방송국 원다방이 우리 시장 안에 있구나 정도라고 느꼈어요. 하지만, 평소에 있을 때는 소중함을 모르다가 없으면 소중함을 알게 되잖아요? 원다방 자립화에 대한 문제가 던져지면서부터 시장 상인들이 많

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방송에 대한 피드백이 적은 점에 대해 안타까워하면서 ‘산에서 소리를 질렀는데 답 메아리가 없으면 슬프고 힘든 것’이라며, 상인들의 많은 참여와 격려가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라디오방송을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 묻자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현재 정치에 관련된 방송을 자제하고 있습니다만, 정치는 생활 모든 것에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정치라는 주제를 빼니까, 이야기거리가 한계가 있어요. 저는 시사적인 부분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접목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야 상인들도 모두 동기부여가 되고 자극을 받아 뭔가 변할테니까요. 이야기를 하면서 꼬집을 건 꼬집고, 칭찬할 것은 칭찬해줬죠. 제 생각에는 방송국이 활성화 되려면 시사, 경제, 정치 등 다방면의 방송을 개발해서 서로 다른 취향의 청취자들이 방송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해야죠.

그리고, DJ 워크숍이라면 상대원시장에 어울리는 워크숍을 적극적으로 계발하여 교육하고 토론하는 장이 많아지길 바란다고 한다. 정신적으로 깨우치는 교육도 좋지만, 라디오방송국에 알맞은 체계적인 교육과 시스

템이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30년 전 성남은 엉성한 기와 올린 집에 연탄 때는 집이 많았단다. 도시의 모양새를 갖추지 못해서 처음엔 정이 안 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제는 성남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생각한다고 한다.

“상대원시장에 1년에 단 한 번이라도 매우 잘 만드는 행사를 만들어보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통 때는 어디서든 잘 보이는 멀티비전 등을 설치해서 이 곳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상대원시장을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행사를 치르는 동안, 시장 중간 가운데 큰 길에서 난장도 여는 등, 상대원시장을 알리고 활성화하는 방법이 더욱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현재는 DJ를 그만둔 상태이지만, 원다방 카페에 꾸준히 들어와서 안부인사와 댓글을 남겨주고 계신다.

11월 11일, 마지막 방송 이후, 카페에 감사인사를 남겼다.

‘만남은 언제나 이별을 잉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아름다운 흔적, 한 아름 가슴 한켠에 소중히 간직하고,
혹시 생각이 날 때면 살며시 꺼내 보고
수줍은 소년처럼 부끄럽게 미소 지어 볼까 합니다.
감사한 님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소서.’

“성남과 결혼했죠.”

박광천



격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노래들려주는 시장’ 프로그램,
‘다른 시장은’ 코너에 고정 패널로 참여하고 있는 박광천님을 만났다.
처음에 어떻게 원다방 DJ로 활동하게 되었는지 물었다.

“성남아트센터에서 열린 인문학 강좌에 ‘은행동’이 팀을 만들어서 신청했어요. 그 때, 상대원동 팀을 알게 되었던 거죠. 처음엔 라디오방송국 원다방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고,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제가 지금 은행시장 상가 번영회 자문위원이라서 상대원동, 상대원시장도 잘 아니까... 이길순 선생님의 부탁으로 몇 번 초대손님으로 왔다가 이제는 매주 고정 패널로 참여하게 되었어요.”

평소에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터라, 은행동 사람들과 함께 팀을 만들어 인문학 강좌에 참여했고, ‘우리 헤어지지 말자’ 하는 마음에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제안거리를 만들기도 했다.

우리의 전통시장은 예로부터 물물교환부터 만남의 장소로 이용되었다. 시장이 가진 기능 중 지역문화의 거점, 소통의 장소라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은행시장과 상대원시장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물었다.

“은행시장은 상가 번영회에 가입한 80여명이 회비 2만원씩 내서 봄,가을에 축제를 한번씩

해요. 불우이웃, 독거노인들 식사봉사를 한 적도 있고요. 얼마 전에 장학금 전달도 했죠. 은행동에는 이런 조직적인 활동을 잘 하고 있다고 칭찬하고 싶어요. 상대원시장도 은행시장과 비슷한 느낌이에요. 상품 종류 중에 특별한 것들이 있는 것을 봤어요. 나는 바닷가 출신이라... ‘은행시장에 없는 생선이 여기에 있네?’ 한 지나친 적도 있고, 봄에는 시장야채가게에서 보리순을 사가기도 했죠. 보리순이 건강에 무척 좋거든. 원다방 라디오에 나오는 사람인 것도 알아서 덩까지 주시니까, 아직도 정감 넘치는 시장이죠.”

그 동안 방송에서 정치, 경제, 건강, 교육, 청소년 문제 등 사회 전반적인 여러가지 소재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한다.

“한 때, 입시생들 국민윤리와 논술을 조금 가르쳤죠. 그래서 각자의 다양한 관심사에 대해 주고받는 식의 이야기에 익숙해진 것 같아요.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작은 그룹들이 많아지고 그 곳에 활발하게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야기는 사고의 유연함의 대한 견해로 옮겨졌다.
“뚜껑없는 미래주인대학을 구상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곳은 뭐든지 사고가 자유로운 곳이에요. ‘건물도 뚜껑 없이 만들자’는 생각처럼 무조건 뚜껑없는 것이 콘셉트예요. 머리도 뚜껑을 벗어야 해요. 자유롭게 열린 사고로 많은 것을 받아들이길 바라거든요. 뭐든지 유연함을 가지고 서로의 사고를 나누는 과정에 주목하는 거죠.”

성남과 인연을 맺은 지는 10년이 다 되어간다. 이 때, ‘성남과 결혼했다’는 표현을 썼다. 사실 독신으로 살 가능성도 높았는데, 늦게 결혼을 했다고 한다.

“혼자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애정을 갖고 사는 것도 좋지만, 인생의 동행자를 만나서 함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면 결혼하는 것도 좋죠. 그래서 나는 노래방 가면 ‘동행’을 불러요. 하하”

성남과의 10년간 결혼생활에 대해 다시 한 번, 문자 다소 다부진 표정과 곧은 목소리로 입을 뗀다.

“아시다시피 성남의 역사는 우리나라 1970년대의 발전과 맞물려서 안타까운 점이 많죠. 현재 성남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재개발의 문제도 심각하고요. 제 생각은 이래요. 성남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모두 다 열어놓고 문제해결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성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성남을 아끼는 만큼 함께 행동할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원다방 라디오에 대해 바라는 점에 대해 물었다.

“원다방을 상인들이 상당히 좋아들 하신다고 느껴요. DJ들이 매일 생일축하도 해주고, 신청곡도 틀어주니까, 더욱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들, 공동체 정신들이 모여져야 서로 잘 되요. 우리 젊을 때, ‘누구 할아버지 생신이다’ 하면 마을 청년들이 모두 가서 함께 행사를 치뤘잖아요? 우리 민족들은 즐거우면 감정 표출을 잘 하는 민족이니까, 스스로 더 즐거워지고 서로 즐겁게 해줘야죠.”



내 닉네임은 언제나 '푸르미'

소병익

일주일의 첫 날,
월요일 오후 4시,
원다방 스피커에선
차분한 남자 DJ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또박또박 정확한 발음으로
여러가지 세상사를 들려준다.

원래 한 두 번 출연하려고 왔다가 1년
넘게 DJ를 하고 있다는 소병익 님을 햇
별이 쨍쨍한 여름날에 만났다.

“저는 음악을 하고 있어요.
KBS에서 연주하고, 공연도 하
고요, ‘색소폰 라이브’라는 라
이브 카페도 운영합니다. 여기
DJ하고... 모두 음악하는 일이
네요.”

나는 지난 남한산성 마당에서 열렸던
원다방 소모임 ‘재미나는 시낭송’ 행사
에서 멋지게 색소폰을 부는 소병익 님
의 모습을 본 적이 있었다. 역시 프로다



운 숨씨와 무대매너를 보여주셨다. 그 날도 방송스케
줄이 겹쳐서 무척 먼 거리에서 급하게 뛰어와야 했지
만, 약속을 지키려고 왔다고 한다.

DJ 중에 김두산 님과 친해서 원다방을 알게 되었단다.
처음에 가게와 본인을 홍보하려고 이길순 님께 인터뷰
요청을 한 것이 계기가 되어 지금까지 인연을 맺고 있다.

“제가 사실, 말주변이 없어요. 이렇게 통상적인 대화는
괜찮는데... 저도 방송일을 하다 보니까, 방송은 재미와
흥미를 요구하는 점이 있죠. 그런데 제가 순발력이 있는
편이 아니어서 재치 있고, 익살 맞은 멘트를 잘 못 해요.
제 생김새처럼, 제 삶처럼 꽤 정석이랍니다. 하하”

방송 준비에 대해서 묻자, 이렇게 대답한다.
“일주일에 1시간, 저 혼자서 DJ, 작가, 엔지니어를 다
해야하는데,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처음엔 못모르
고 시작했는데,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저는 원다방 카
페에 올라온 제 방송을 꼭 들어요. 내가 잘 하고 있는
가, 모니터링하죠. 그런데 사실 잘 못하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찾은 좋은 글을 발췌해서 읽은 후, 자신의
감상과 생각을 덧붙인다. 나 혼자 공감하기 보다는 여
러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찾고 또 찾는다.

“제게 방송이 글을 읽고, 생각하고 말로 표현하는 단계
이기 때문에 듣는 것보다는 **제 자신의 발전을**

**느꼈어요. 그런데 방송을 하면서 더 느끼
게 되었죠.** 그래서, 내가 잘 못하는 방송이지만, 내
가 들려주는 글을 듣고 어느 한 사람이라도 다시 생각
할 계기가 되고, 행복해질 수 있다면 제가 느끼는 부끄
러움은 극히 적은 것이 아니겠나 싶어요. 봉사하는 마
음과 함께 방송한다는 자부심도 있어요. 나로 인해 삶
에 대한 행복을 느낀다면 그것도 꽤 괜찮은 삶이지요.”

DJ 활동한 지 1년이 넘는 지금 시점에서도 바쁜 스케
줄 2회 정도를 빼고는 월요일 오후 4시엔 어김없이 방
송을 했다고 한다.

“저는 이 네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약속, 책임감,
진솔함,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 제가 세상에 대해서 약
게 사는 것 보다는 저만의 장점을 만들어야겠다고 생
각해서, 네 가지를 삶의 신조로 삼은 거죠. 인터넷 카페
에서 활동하는 닉네임도 ‘맑고 푸르미’ 또는 ‘푸르미’
예요. ‘맑다’, ‘푸르다’의 의미가 내 생각과 무척 가까
운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걸로 사용해요. 닉네임이라는
게, 무작정 좋아서 쓸 수도 있지만, 나만의 이미지를 표
현하고 싶거나 그것대로 살려고 싶은 신념을 표현하기
도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생업과 바쁜 스케줄로 현재는 연주인 소병익으로 돌아
갔다. 위의 바람처럼, 어디에 있든 최선을 다해 노력한
삶을 사는 ‘푸르미’로 계시리라 믿는다.

성남방송고등학교의
멋진 학생 DJ들

시장야채 박정미 사장님은 금요일 오후,

매주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 ‘나도야 DJ’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성남방송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들로서, 학교 내 PD동아리에서 활동 중이다. 6월 초, 남한산성에서 열린 ‘재미나는 시낭송’ 행사에 학생들이 직접 나와 오프닝 무대를 꾸미고 비디오 및 사진 촬영을 도맡아 주었다. 학생들의 행사도움과 방송 진행참여는 성남방송고등학교 측에서 상대원시장 ‘원다방’에 직접 연계가능한 여러가지 일을 해보자고 적극적으로 제의해서 이뤄진 결과다. 처음에는 장미라 방송국장님이 함께 진행했지만, 9월부터는 2~4명의 학생들이 스튜디오에서 도란도란 앉아서 그들만의 수다를 떠다. 1시간 분량의 방송을 구성하고 직접 기계를 만지며 진행을 한다.

현재 금요일 이 시간에는 성남지역의 청소년들이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성남방송고등학교

교 학생들, 중원청소년수련관 라디오방송팀 ‘꿈꾸는 라디오’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1시간을 책임지고 있다.

2010년 6월 25일에는 방동일(2학년), 노윤택(1학년)을 만나서 인터뷰했고, 2010년 9월 5일에는 류경선(2학년), 김안식(2학년), 김기슬(1학년), 노윤택(1학년)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6월 25일

방동일 처음 들어왔을 때는 스튜디오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스튜디오가 보이는데, ‘오! 이렇구나’ 했죠. 방송고등학교에 온 이유가 진로를 방송쪽으로 생각해서요. 중학교 3학년 때, 작은 캠코더 가지고 재미난 UCC를 만들어 인터넷에 올리니까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처음에 카메라를 잡았을 때, 참 색다른 느낌이 있었거든요? 카메라를 잡으면서 촬영하는 게 재미있어서 방송 쪽으로 학교를 찾아서 진학하게 되었어요. 오늘 첫 방송 하고 나니, ‘한 번 더 하면 더 잘할 수 있겠다.’ 또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라디오방송 DJ 진행을 하고 싶어요!

노윤택 저는 상대원동에서 초등학교를 나왔고, 중학교 2학년 때 인천으로 이사 갔다가 다시 은행동으로 왔죠. 그래서 원다방 찾기가 되게 쉬웠어요. 그런데 건물을 올라오면서 잘못 온 건가 했는데, 내부 스튜디오를 보니까 갖춰져 있는 것은 다 있으니까 놀라웠어요. 오면서 어떻게 말하지? 처음인데 잘 할 수 있을까? 실수하지 않을까?를 걱정했죠. 오늘 방송하고 나니까, 저도 또 하고 싶어요.

[illegible]

이 날은 학생들끼리만 진행되는 첫 날이었다. 방송 시작 전, 장미라 방송국장님은 기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 주고 ‘너희끼리 잘 해봐’ 라고 하며 격려했다. 이길순 엔지니어님도 학생들을 보며 연상 ‘예쁘다. 예쁘다.’ 하신다.

김안식 라디오 방송 출연 경험은 원다방이 처음인데요, 기존의 공중파 라디오 진행하는 모습들은 간접적으로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원다방은 다른 라디오 방송과는 다르게 편안한 느낌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긴장도 안하고 출





@ 느낌표 11

특별 게스트

성남여성의
전화,
여성인력
개발원,
서울풍물시장

2010년, 1년 동안 원다방은 지역 단체가 참여하는 형식의 방송을 진행했다.

생활 정보를 알려주는 정보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편성하여

격주 수요일, 성남여성의 전화와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의 전문가가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출연하여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진행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시장 상인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성남여성의 전화

7월 7일 청소년 성문제 (앞씩)

7월 14일 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책 (신연숙)

7월 28일 외도 (이정희)

8월 11일 부부의 성(性)1 (배동자)

8월 18일 성매매1 (문경은)

8월 25일 이혼과 낙태 (왕미양)

9월 1일 부부의 성(性)2 (배동자)

9월 8일 어린이 동화 속 뒤집어 보기 (앞씩)

9월 30일 여성의 눈으로 세상보기 (문경은)

신연숙_성남여성의 전화 대표

성남함께하는주부모임하고 저희 단체하고는 지역사회이나 연대사업을 꾸준히 진행했어요. 그래서 작년 말부터 지역단체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방송에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죠. 성남여성의 전화의 경우, 현재 우리 단체가 하고 있는 이야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방송 콘텐츠로 잡았어요. 저희가 다룰 주제는 부부의 성(性), 자녀의 성(性), 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달에 2번씩 주제를 바꿔 방송에 참여했죠. 몇 번의 방송을 하고 나니, 부부의 성(性)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하자는 요청이 있어서 더 진행하려고 합니다.

연했어요. 앞으로도 방송관련 일을 하고 싶고 라디오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요. 학교에서는 카메라나 촬영, 영상 쪽의 교육이 많으니까 원다방에서는 라디오에 대한 감각을 만들고 싶어요. 방송 끝나고 내려가면 몇 분들이 쳐다보세요. 그러면 잘 하고 있나 궁금한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장애인 e-sport 대회에 촬영을 갔는데, 저희보다 스포츠를 더 잘해요. 저도 운동을 좋아해서 잘 하는 편인데도 몸이 조금 불편한 선수들이 저보다 더 잘해요. 몸이 불편하지만 노력하는 모습을 찍으면서 본받고 싶은 마음도 들었고요. 집중하는 모습이 더 기억에 남아요.

류경선 처음으로 저희들이 전부 진행했어요. 오늘 이야기 주제는 학생들의 용돈, 구 성남시청 근처의 대형마트 오픈, 후덥지근한 날씨, 추석, 중간고사, 야간자율학습 등 이고요, 저희는 실전에 강해요! 저도 원다방에 네, 다섯번 이상 왔어요.

제게 딱 맞는 건 방송 엔지니어예요. 또, 아마추어 무선사(HAM)라고 자격증도 있어요. 국내 HAM은 많이 하고 있어서 해외 쪽으로 무선 교신하면서 이야기 주고받는 것이 꿈이에요. 어렸을 적에 5살 때부터 아빠를 쫓아다니면서 안테나 세워서 교신도 하고 모스 부호도 받고 그랬어요. 그 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학교에 와

서 기억에 남는 촬영은 저는 얼마 전 학생예능발표회라고 중,고등학교 예능합창대회 때 촬영나갔는데, 다른 학교간 경쟁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방송고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촬영을 나가서 학교도 알린 점, 우리 학교 애들이 우수상을 받기도 해서 여러모로 자부심이 생겼죠.

김기슬 원다방에 오늘까지 두번째 왔는데 처음에 스튜디오가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 전체에 방송이 다 나가는지 모른 채, 부담없이 했거든요. 방송 끝나고 내려가니까 시장 전체에 전부 나가는 거라서 조금 민망했어요. 하하.

원다방이 주최한 남한산성 시낭송 행사에 촬영하러 나갔었어요. 그 때, 되게 재미있었어요. 저희가 다 촬영하는 것도 재미있었고, 그 날의 분위기가 재밌었어요.

노윤택 오늘이 세번째 출연인데, 첫번째는 정말 떨렸어요. 두번째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세번째인 오늘은 당당하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선배님을 보고 긴장했죠. 하하.저도 외부 행사 참여한 기억은 시낭송 행사 때요. 재밌다기 보다는, 혼날까봐 사실 두려웠어요. 촬영하는데 선배님들이 제 옆에 계속 있어서 긴장되는 거예요. 그래도 경험이었죠.

우리 단체도 라디오에 출연하는 건 저희도 처음이에요. 인권강사팀이 있어서 지역에서 강의를 하긴 하나, 이런 편 안한 자리에서 주고받는 것도 처음이라서 여성의 전화 회원(인권강사)들도 색다른 경험이라고 무척 좋아하시더라고요.

방송에 참여한 5명은 인권강사이십니다. 성남여성의 전화가 지역에서 성교육을 많이 하는데, 주로 성폭력, 성매매 등에 대한 교육이다보니, 명칭을 ‘인권강사’라고 붙여요. 회원 활동을 하면서 강사역할을 하는 분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못 들으신 분들은 여성분들이 본인이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기관이 있다는 것만 알아도 큰 수확이라고 봐요. 전국 어디나 마찬가지로 폭력에 노출되어 심터로 많이들 가요. 폭력이 있으면 정서불안 등이 생기고 사회생활이 힘든 점이 있어요. 주변에서 유심히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저희는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좋죠.

지역 기반의 라디오가 있다는 것이 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예전 성남시청 자리 주변에 이런 지역 라디오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1985년에 상대원동에서 살았어요. 특히 상대원시장은 물건살 때, 항상 들른 곳이죠. 버스를 내리면 항상 여기니까요. 직장다니면서 사람들과 술 한 잔 마시는 아련한 좋은 추억이 상대원동에 남아 있어요. 올 때마다 이전의 기억들이 많이 되살아나면서 이런 지역에 관련된 활동 등이 새롭게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원다방이 더욱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

9월 15일 여성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

김연정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는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의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취업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입니다. 오랫동안 일을 하지 않은 여성들에게 자신의 적성에 알맞은 직업을 함께 찾아보고,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 어떤 훈련과 과정을 받아야 하는지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당장 취업을 해야 하는 경우, 나이, 경력 등을 고려하여 직장을 알선해주며, 훈련이 필요한 여성들에게는 정부지원으로 무료로 직업훈련에 참여시키고 직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들의 창업 컨설팅 등도 모두 가능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첫 시간이라 여성들의 취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중점을 두고 원고를 작성했는데, 재미는 없으셨을 것 같아요. 하하.

저는 성남에 결혼하고 왔어요. 이제 10년 되었네요. 원래 대구가 고향이라 결혼 전까지 거기에서 살았죠. 지금은 많이 발전되어 제 2의 고향처럼 느끼며 마음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저는 결혼 전에 인터넷 방송을 직접 진행한 적 있어요. 그 때는 컴퓨터 한 대, 마이크, 인터넷만 있으면 방송을 진행할 수 있었죠. 내가 내 색상에 맞는 방송을 진행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시작했는데 약 200여명의 회원들이 제 방송의 애청자였죠.

오늘 스튜디오 방송에 직접 출연한 느낌을 말하자면, 진행되는 공간에 실제로 들어가보니까, 신기하고 재미있었어요. 옆에서 방송국장님이 기계를 만지는 모습을 보니 직접 해보고 싶다고도 생각했죠.

제 꿈은 원래 뮤지컬배우였어요. 가수들이 무대에서 서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 부러워요. 이경규 씨의 말씀이 ‘영화감독이 꿈인데, 그 꿈을 위해서 코메디언을 하는 거다.’ 저는 그것이 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노래와 춤으로 무대에 설 수 있는 클럽활동을 꼭 해보고 싶어요.

서울 풍물시장

8월에는 서울 풍물시장의 최창희 홍보총괄팀장님과 DJ 한봉석 님이 원다방에 방문했다. 앞서 7월, 장미라 방송국장님과 이길순 님이 서울풍물시장 라디오방송에 초청받아, 출연한 것에 대한 답례방송을 했다. 캠코더를 설치하고 인터넷 개인방송 아프리카로 중계하여 라디오방송과 보이는 라디오, 두 가지로 방송 되었다.

최창희 (홍보총괄팀장)

동대문 신설동에 위치한 서울풍물시장은 약 890개 점포가 모여 있습니다. 각종 골동품과 음식점, 구제상품 등 정말 다양한 물건들이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죠.

서울풍물시장의 라디오는 시장홍보차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장소가 몇 번 바뀌게 되어 예전에 풍물시장의 명성을 찾기 위해서는 홍보가 필요했죠. 또, 재래시장에서 방송국이 운영되는 것을 벤치마킹한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기존 풍물시장 라디오 방송은 보이는 라디오를 지향해서 아프리카에 방송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1시간씩 방송합니다. DJ 7명 모두 상인들이죠. 저도 원래 명품구제를 파는 상인이예요. 방송 테마는 시(詩), 7080, 클럽음악, 옛 팝송, 상인들의 사연 위주로 방송, 시민들을 위한 방송으로 잡았어요. 목요일은 시장에 마련된 무대가 거기에서 공연도 있어요.

방송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DJ부스에 직접 와서 이야기하죠. 오늘은 스피커 소리가 적다고 문자도 보내주시고, 컴퓨터 하는 분들은 아프리카에서 채팅도 같이합니다. 그러면 바로바로 사연 소개해주죠. 약 25프로 170개 정도의 점포가 피드백 주는 것 같아요.

오늘은 방송을 서로 교류해보려고 왔어요. 제 구상은 대한민국에 있는 재래시장 방송국을 모두 다 엮어서 전국 네트워크를 만들어보려고요. 수원꽃골시장도 한번 가서 방송을 했죠. 풍물시장 관리팀이 축소되면서 자립적인 활동이 더욱 더 필요한 시점입니다. 원다방은 인터넷에서 찾아 지난 4월에 처음 왔죠. 재래시장 라디오 방송국을 다 뒤져보니까, 여기만큼 오래한 곳이 없더라고요.

한봉석 (상인 / DJ)

저는 원래 구제명품 상인이예요. 지금 풍물시장에서 맡고 있는 프로그램은 '7080음악방송' 이에요. 음악과 사연을 읽는 방송, 방송이 있는 오전에 대본 쓰고 선곡을 하죠.

인터넷 개인방송DJ를 약 10년간 했어요.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제가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음악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방송을 하게 되더라고요. 조금 더 잘하고 싶고, 제대로 하고 싶어서 고정적으로 하게 되었고, 매일 들어와서 듣는 고정 청취자들 생겼죠.

사연은 방송하기 전에, 대본을 대충 써놓고, 하루 전 또는 일찍 나가서 상인들과 이야기 나눠서 나머지를 써요. 시장에 신청곡 함이 따로 있거든요. 함이 7개 있는데, 신청곡과 사연을 수집해서 하죠.

방송은 1시간이지만, 준비하는 시간이 걸리죠. 누군가

의 대상이 있는 게 아니라서, 틈나는 대로 선곡해 놓죠. 그리고, 2시방송인데 최소한 12시에는 나와서 준비해야 하죠.

풍물시장은 보이는 라디오도 같이 하기 때문에, 노래가 나가는 동안의 움직임이 신경이 좀 쓰이고요, 인터넷 채팅창을 쳐다보고 대답도 해야 해줘야 하고요. 음악도 틀어야 하고, 기계도 만져야 하고, 대본도 읽어야 해요. 정말 바쁘죠. 하하. 원다방은 이미 오래 되었고, 스튜디오 안에서 하니까 잘 정리된 화단이라고 하면 서울풍물시장은 지금도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는 정리 중인 화단이라고 비유할 수 있겠네요. 앞으로 꾸준한 교류가 있으면 합니다.





III

상대원시장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

원다방의 든든한 후원인, 상인 인터뷰 (1)



세 번, 네 번의 강산이 변할 만한 세월동안
상대원 시장에서 아침부터 가게에 불을 밝힌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도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인심으로 오늘도 손님들을 기다리며
가게에 환히 불을 밝히십니다.

상대원시장, 터줏대감 5분을 소개합니다.
더불어, 아주 특별한 만남, 추억의 원언니를 만나봅시다

“깨는 기름 짜버리면 시집 가는 거야”

쌍둥이 기름고추
박헌수, 김청술

쌍둥이를 낳고 바로 상대원시장으로 온 신혼부부가 이제 반백의 나이가 되었다. 쌍둥이 기름고추의 간판을 걸고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일한 지 40년. ‘상대원에 살면서 쌍둥이 고추 집을 모르면 간첩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지나온 40년의 이야기 속엔 상대원시장의 옛 모습이 녹아있었다. 상대원시장과 40년 함께한 박헌수, 김청술 사장님 내외를 만났다.

처음에 오셨을 때 신혼으로 오신 거죠?

“그렇죠. 애기 막 낳아서 왔으니까. 그 애기들이 쌍둥이. 남자 둘. 지금 나이가 서른 아홉. 1972년에 왔나봐.” (김청술)

가게이름을 왜 쌍둥이 기름고추라고 지으셨나요?

“상대원 2동에 사는 아는 아주머니가 가게이름을 뭐 지을까 고민하는 나를 보고 ‘야야~ 뭐 그렇게 짓나. 애기들이 쌍둥이인데, 쌍둥이라고 하면 더 유명해지지, 뭘 그렇게 고민해?’ 하셔서 지었지. 그리고 쌍둥이를 쌍둥이라고 불러주면 좋다고 해서. 주변에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모두 좋아하더라고. 우리 아저씨랑 같이 자란 깨박쟁이 고향친구가 인천에 낸 가게 이름도 쌍둥이 기름집이야. 거기 애들도 쌍둥이를 낳았거든. 나도 가게이름 ‘쌍둥이 기름집’ 하려다 해서 거기도 쌍둥이 기름집이 되었지.” (김청술)

그 때, 상대원시장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평택신발 도로 오른쪽이랑 큰 건물 뒤, 요 밑에 보면 언덕 내려가는 시장 끝나는데 까지는 시장이었어요. 현대직판장 자리가 제일 시장의 중심이었지만, 우리 가게 앞, 요 가운데 길이 제일 주요 골목이었어요. 야채는 우리집 바로 앞에, 과일이랑 생선은 바로 옆에... 먹을거리는 요 앞에서 다 이뤄졌죠. 손님이 넘쳐났지. 발 디딜 틈이 없었어.” (박헌수)

그 때, 성남 이야기를 더 해주신다면?

“성남에 집값이 싸다고 해서 왔는데... 첫 눈이 온 날, 상대원 고개에 내리고 보니까 전부 빈 집에 허벌판이었지. 그 때 20평이 5~7만원, 대원초등학교 쪽은 2만원 정도였어요. 우리 시골고향 땅값이 1평에 4천원이었는데 말이야. 그 때, 성남 공단 직원들 월급이 10,000원에서 18,000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해요.” (박헌수)

가게를 처음 시작할 때, 장사를 해 본 경험이 없어 무척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한다. 다

들 어려운 시절이라 외상값을 떼이기도 하고, 자기 마음 같지 않은 직원들 때문에 속도 많이 상했었다는 지난 날. 현재 내린 결론은 장사는 간단하다고 한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할 것, 손님에게 정직할 것, 이 두 가지만 잘 지키면 된단다.

예전엔 몇 시에 열어서 몇 시에 닫으셨어요?

“그때는 7시반, 8시에 열고 저녁엔 밤 12시고 새벽 1시도 좋고. 늦게까지 손님이 왔어. (박헌수)
별 보고 나와서 별 보고 들어갔어. 어디서 봄이 되어 꽃이 핀다 해도 몰라, 우리는. 이 안에만 있으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40년 동안 쳇바퀴 돌듯이 그냥 산 거예요.” (김청술)

인터뷰 중간에, 빵아달라 부탁한 고추를 찾으러 할머니가 들어오셨다. 할머니 성함은 주오순 님(75세). 이름이 다섯째를 뜻하냐고 여쭙보니 ‘나 첫 대가리유~’ 하신다. 광주에서 상대원동으로 이사온 지 4년. 그때부터 이 집 단골이란다.

할머니, 여기만 오시는 이유가 있어요?

“땀데 안가고, 싸워도 이 집이야. 나는 이래 가고 저래 가고 싫어. 요것만 알지, 땀데 갈줄을 몰라. 김치 담그려고 고추빵으러 왔어.”

40년 한결 같이 이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내 물건에 대해 자부심이 있다는 뜻이다. 또 다른 뜻은 단골 손님들이 꾸준히 찾는다는 것. 특히 참기름, 고추가루 등 민감할 수 있는 식재료인데 말이다.

40년간 품목을 바꾸지 않고 꾸준히 장사를 하셨네요.

“이런 일 하는 사람도 있고 저런 일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고추랑 기름이 없다면은 여기에 아쉬운 사람이 많을 거예요. 시골에서 고추를 갖고 왔는데 빵을 데가 없으면 그것도 안되는 거고, 기름 짤 때가 없으면 안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생산하는 제품은 이 대한민국에서, 이 세계에서 최고다 생각하는 거야. 내가 만드는 제품보다 더 맛있게 하는 사람 있으면 와보라는 거야. 나는 자부심을 갖고 사는 사람이야. 제품을 생산할 때는 위생적으로 하고, 자기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하지, 껌은 기름 짜버리면 시집 가는 거야, 시집을 잘 보내야하지 않겠어? 최고로 맛있게 해서 손님들한테 칭찬을 받아야지, 잘못 만들면 안되거든. 내가 ‘국민 건강에 기여를 한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해야지.”(박헌수)

부부가 함께 반평생 일한다는 것, 두 분이 어떻게 만나셨을까가 궁금했다. 처음 만났을 때, 서로의 첫 인상에 대해 물었다. 김철술 사모님이 옆에서 ‘말 잘해~’ 라며 애교섞인 은근한 협박을 넣는다.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사장님 고향은 경상북도 청도군이고 나는 대구시 달성군이야. 나중에 시 외삼촌이 된 분이 중매를 하셨어요. 우리 그 동네에 유난히 아가씨들이 많았어. 나를 보시고는 중매를 넣었지. 사장님은 그 때, 서울에 계셨는데, 선 보고 다음해에 결혼했지. 나는 23살, 사장님은 27살.” (김철술)

“그 때, 집안끼리만 허락하는 맞선말고, 당사자끼리 한번씩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맞선이 처음 나왔을 때야. 그래서, 갈까 말까 하다가 내가 갔지. 근데 이 사람 고향이 아주 촌이었어. 택시를 잡아타면 고바위(언덕)라 같이 밀어 올리자고 해서, 택시기사랑 같이 밀어야 해. 지금은 승용차 타고 가면 10분도 안 걸려. 겨우 도착해서 어른한테 절부터 했지. 이야기 들으신 아버님은 옷채(안채)에 가보라 해서 ‘남녀가 유별한데, 갈수 없다 했다’ 했더니 ‘들어가라’ 허락하셔서 갔지. 안채에 들어가 몇 마디 하고 물어봤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나. ‘사람 인연을 이래 쉽게 맺을 수 없지’ 하는 마음에 보고 또 보고 그랬어. 원래 인물은 선달하면 3년이고, 마음을 보니까 좋은 것 같고,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니깐 좋고, 내 결정에 후회는 없다!” (박헌수)

원다방에서 행사를 치를 때마다 크게 도움을 주시는 두 분. 원다방 라디오에 대한 느낌을 물었다.

장사하시면서 원다방 라디오, 잘 들으세요?

“라디오 곧잘 들어. 장미라, 이길순 씨, 그 양반들 이야기가 재밌어. 아까 웃긴 이야기로 참새시리즈했는데,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부흥상회에서 같이 듣고 막 웃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음악회할 때, 그런 거 좋아. 사실 하루 장사 못해도 괜찮아. 사람들 많이 와서 상대원시장이란 가게를 보고 가잖아. 우리가 상품으로 김 세트 주면 우리 가게 홍보도 되고.”(김철술)
“문화재단이 와서 이런 불씨를 지펴줘서 정말 고맙지. 그리고 시청에서도 재래시장 환경개선한다고 이런저런 개선할 점을 이야기해주고 가서 바꿨더니 좋더라고. 신경써주는 마음이 고마워.”(박헌수)

지난 세월 이야기를 하다보니 거의 2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그 긴 세월을 어찌 2시간 안에 전부 담을 수 있으랴. 다음에 더 많은 이야기를 다시 듣기로 약속하고 마지막 질문을 했다.

언제까지 가게를 하실 생각이세요?

“내가 힘닿을 때까지 할거야. 여기 앉아 있으면 동네사람들이 오니까 전부 이야기할 수 있지. 손가락 몇 개인 것까지 다 아는데, 앉아서 한참 이야기하는 거지. 여기서 자라서 시집간 손님들이 애기를 안고 또 와. 이게 다 동네장사라 가능한 거지. 재래시장은 직원이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직접하는 거야. 물건이 안 좋으면 다음에 손님이 안 와. 내 이름을 걸고 직접 하는 거야. 물건도 좋은 것 놓고, 최선을 다해서 손님들을 대해야한다는 마음으로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지. 안심하고 사먹을 수 있고, 그리고 오래 사는 사람들이 안면이 다 있잖아. 우리는 40년 전문가야. 만약에 물건 잘못 가져가면 우리가 바뀔 수도 있고, 동네니까 전부 가능한 이야기이지. 그러니까, 재래시장을 이용하라는 거야. 며칠 전에 기업형 슈퍼마켓 방송했는데 주부들이 깨우쳐야 해. 생각해 봐야지.” (박헌수)

한결 같다는 것을 말로는 쉽게 할 수 있지만, 행동이 언제나 한결같을 수 있다는 것은 무척 어렵고 힘든 일이다. 오늘 나는 한결 같은 마음으로 한결 같이 일하고 계신 두 분을 만났다. 인터뷰하는 동안, 존경스러운 마음과 더불어 큰 배움이 있던 하루였다. 다음에 꼭 찾아뵈어 오늘 못 들은 이야기를 들어야겠다.





겉에 있어서 항상 고마운 사람

부흥상회
조길연, 이봉호



장사를 어영부영했으면 이만큼 오래 못 갔을거라고 당당히 이야기하시는 부흥상회 조길연 사장님. 상대원시장 상인회 총무와 원다방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원다방 행사라면 항상 출선수범해 나서주시는 고마운 분. 1980년 5월, 상대원시장에 뿌리를 내렸을 때부터 현재까지 이야기를 들으러 조길연, 이봉호 사장님 내외분을 만났다.

상대원시장에서 언제부터 장사를 시작하셨어요?

“서울 성수동에서 장사를 하다가 우연찮게 여기로 옮기게 되었죠. 사업자등록증이 1980년 5월 20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장사는, 4월 1일부터 했죠. 처음 장사했던 자리는 지금 옛날삼겹살 자리였고, 1986년부터 지금 가게 자리에서 장사했어요.” (조길연)

“1980년 1월에 큰 딸을 낳고 여기 와서 백일을 했어요. 여기 오니까, 요 작은 골목에 그릇가게가 5개 정도 되더라고. 우리는 젊음 하나 믿고 장사했죠. 주부들한테 수세미를 하나씩 서비스했더니, 입소문 나서 자꾸 오더라고. 그리고 손님들한테 항상 잘하려고 노력했고, 아마 수세미 준 것만해도 트럭 몇 대분이었을 거예요. 안 사는 손님들한테도 서비스로 줬으니까. 그랬더니 다른 시장에도 상대원 그릇가게 형제들만 수세미를 서비스 주는 것을 알았어요. 이걸로 유명했어요.” (이봉호)

내 가게를 갖기 위해 무척 노력했다고 한다. 내 가게를 가진 후, 새벽까지 먼지 하나 없이 닦았다. 현재는 아침 9시쯤 나와서 밤 10시에 문을 닫지만, 그 때는 아침 8시에 나와서 밤 12시 되기 전에 들어가기 힘들었던다. 결혼기념일 방송에서 장모님을 향한 애절한 마음을 나타낸 조길연 사장님은 장모님께서 집안 살림을 맡아 아이들을 키워주실 때부터 비로소 장사가 안정되었다고 한다.



“어렵게 시작해서, 참 검소하게 살았어요. 검소하게 사니까 한푼 두푼 모이더라고.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올림픽이 제일 피크였던 것 같아요. 그 땐 참 재밌게 장사했어요. 우리 부부의 최고의 황금기였어요. 가게에 제일 좋은 상품만 가져다가 마진은 적게하고 꾸준히 팔았죠. 손님들이 ‘그래, 이 집에 와야 물건다운 물건이 있어.’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물건이 좋다고 하면 손님들이 다 믿었죠.” (조길연)

“나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루 눈 떴으니까 항상 최선을 다 해서 살자.’ 그것만 생각했어요.” (이봉호)

상대원시장에서 함께 장사했던 분들이 1985년부터 모인 친목계가 지금도 두 달에 한번씩 모인다고 한다. 다들 이사가거나 장사를 그만둬서 현재 여기에 세 곳만이 남았다. 부흥상회, 쌍둥이기름고추, 만물건어물. 상인들과의 인연 뿐 만이 아니다. 한번 인연 맺은 사람하고는 인연이 오래 간다며 손님 중에 30년 단골도 많다고 한다.

“꼬마때 왔던 초등학교 아이가 커서 결혼할 때, 우리 가게에서 혼수를 해 가기도 했어요. 동두천까지 내가 실어

다 줬죠. 또 살다가 보면 다른 곳에 이사를 갔다가 상대원으로 다시 이사오는 사람도 있죠. 아니면 옛날에 여기 살던 사람도 한 두번 씩 오면 정말 반갑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시장 떠난 사람들도 와서 들렀다가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조길연)

원다방 라디오방송국이 생긴다는데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임 진 주사님이 라디오방송국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설명회나 교육을 여러 번 했죠. 저는 빠짐없이 거의 다 다녔어요. 관심이 있었죠. 원다방 덕택에 상인회가 작년에 활성화 되었어요. 그래서 상인회 총무랑 원다방 운영위원장을 맡게 된 거죠.” (조길연)

작은음악회는 재미있으세요?

“맨 처음엔 매달 음악회하는 것도 잘 몰랐어요. 처음엔 시끄럽다 한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좋아해요. 그리고 주민들이 부르는 걸 더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주민들을 더 참여시키자고 이야기했죠. 상대원 2,3동 노래교실 분들 오실 때부터 더 재밌게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상대원 3동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함께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너무 좋지. 차츰차츰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조길연)

아직 은퇴하기는 젊으니 할 수 있을 때까지 가게를 연 후, 남은 여생은 부부 내외가 가까운 바닷가로 싱싱한 생선회도 먹으러 가고 사진동호회에서 다니는 멋진 곳을 다니며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대답을 듣고, 두 분이 처음 만난 이야기를 물었다. 아름다운 첫 만남의 이야기는 2010년 11월 5일 32주년 결혼기념일 방송으로 대신한다. 상대원시장에서 지켜온 30년 애절한 마음이 오래오래 깊이 간직되길 바란다.



@ 느낌표 12

32주년 결혼기념일 방송

출연
조길연 운영위원장(조)

진행
박인자(DJ 박)
장미라(DJ 장)

DJ 박 오늘이 결혼기념일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분이. 직접 목소리로 누구의 결혼기념일인지 직접 말씀해주시겠어요?

조 아.예~ 저는 부흥상회이기도 하고, 상인회 총무, 원다방 운영위원장, 제가 본의 아니게 감투를 많이 받았네요. 이름은 조길연 입니다.

DJ 박 부인 성함도 말씀해주세요.

조 네. 이봉호 예요.

DJ 장 이.봉.호. 아~ 귀한 이름이다.

DJ 박 그럼 오늘 결혼 몇 주년 이신가요?

조 저희가 결혼한 지 좀 오래되었네요. 32주년 되었네요.

DJ 박 32주년이요? 혹시 슬하의 자녀분은?

조 저희는 1남 1녀. 큰 애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이고, 애들은 이제 다 커서 사회생활하고 그렇습니다. 아직 결혼을 빨리해서 독립을 해서 나갔으면 우리 둘이 신혼처럼 살텐데, 이 놈의 자식들이 아직 결혼을 안 하고 있습니다. 누구 중매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하하하.

내 인생의 행운은 우리 집사람을 꼭 잡은 것

DJ 박 그럼 맞선 보셨어요?

조 그렇죠. 저희때는 맞선이죠. 맞선을 고향에 할머니가 저희 쪽도 잘 아시고, 처가쪽도 잘 아시는 분이 중매를 해서 만났죠. 그런데 만났는데, 이 처녀가 너무 순수하고, 내가 조금 어려울 때, 투정을 하면 잘 받아줄 것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을 놓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DJ 박 꼭 잡으셨군요?

조 그럼요! 첫번째로 선을 본 상대였는데, 역시 사람 얼굴이 어딜 안 가더라고요. 제가 살아오면서 제일 잘 한 게, 이봉호를 꼭 붙잡은게 제일 잘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제 집사람을 만난 것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행운인 것 같아요. 지금껏 살면서 제가 말을 못했는데... 남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잘 표현을 못하잖아요. 여기 방송장비도 좋고, 이 방송의 힘을 빌어서 한번 해봐야겠다, 용기를 내서 왔는데 이게 떨어져서 말이 잘 안 나오네요. 하하하하하.

DJ 장 하시고 싶은 말씀은 다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DJ 박 신청해주시는 노래가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인데요.

조 제가 잘 표현을 잘 못하니까, 노래라도 표현을 잘 해보고 싶습니다. 이 노래를 좀 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DJ 장 그러면 노래가 나가면서 위원장님도 함께 노래를 좀 불러주시면 어떨까요?

조 제가 상대원에서 알아주는 음치이기 때문에 그건 할 줄만 알면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은데..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하하

DJ 박 그럼, 그 마음을 담아서 아내 이봉호 님께 노래를 틀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Music .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 가수. 하수영
‘젖은 손이 애처러워~ 살면서 잡아본 순간~’

장모님을 사랑하는 사위

DJ 박 여기 계신 분은 장모님을 무척 사랑하신답니다. 장모님을 사랑하게 된 이유를 들어볼까요?

조 우리 장모님은 저희와 20여년을 함께 사셨어요. 제가 장모님 밑에서 산 거죠. 가게를 하다보니까 애들을 다 길러주시고 살림을 다 해주셨죠. 장모님을 믿고 장사만 할 수 있었어요. 장모님 오시기 전에는 좀 힘들었어요. 시골에서 일부러 이쪽으로 올라오셨죠. 그 때부터 생활에 안정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장모님이 돌아가신 지 이제 2년 되었지만은 지금도 장모님 얘기만 하면...

DJ 장 목이 메이시는 것 같아요.

조 아...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DJ 장 세상 살다보면서 고마운 사람은 꼭 있거 마련인데, 운

영위원장께서는 장모님이 정말로 고마우신 분이었나봐요. 누군가가 내가 마음놓고 가정을 맡길 수 있다는 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장모님을 생각하시니까 마음이 울컥 하신 것 같아요.

항상 고마운 사람

DJ 박 가게 옆에 항상 같이 계시잖아요. 항상 같이 계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하는데요..

조 저희는 삼십 몇 년간을 가게에서 맨날 붙어있어서 습관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집사람 없이 가게를 혼자 보고 있을 때, 가끔 두려워요. '이거 집사람 없이 가게를 혼자할 수 있을까?' 저는 저희 집사람이 없으면 굉장히 불편해요. 집사람한테 혼자 가게 볼 때 어떡냐고 했더니, 본인도 힘들대요. 아무래도 두 사람의 일을 혼자하는 것도 그렇지만, 항상 둘이 같이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닌가 싶은데...

DJ 장 서로 의지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조 네. 저는 저희 집사람한테 의지하는 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집사람이 집안 행사나 친목계 때문에 저 혼자 가게를 보고나면 몸살이 나는 듯이 힘들더라고요. 옆에 없으면 허전해요. 안절부절하고 괜히 불안하고, 2% 뭔가 부족한 느낌이에요.

DJ 장 천생연분이신거죠. 하하하.

조 혼자 장사하시는 분들 보면, 속으로는 '저 분들은 참 힘들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사실 친동생인 부흥기물도 혼자 장사를 하고 있어요. 습관 나름이긴 하

지만, 제가 보기엔 혼자 장사하시는 분들이 살짝 안타깝습니다.

DJ 박 부인에게 또 고마운 점이 있으시다면?

조 제가 고마움을 표현하려면 오늘 1시간이 아니라 몇 시간을 해도 모자랍니다. 제가 사실 표현력이 부족해요. 제일 고마운 건, 집사람은 제가 제일 잘 난 줄 알고, 실수투성이지만 마냥 잘했다고 해주죠. 저를 100% 믿어주는 것이 너무 고맙습니다. 모든 것을 다 믿어주고, 믿어주다 보니까 제가 더 신중하게 되고요.

DJ 박 믿어주고, 용기를 주고, 곁에 있는 것을 감사하고, 이 것이 가족의 기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DJ 장 사람도 아무리 내가 실수를 해도, 칭찬하고 인정하면 더 잘하려고 하죠.

“이봉효 씨, 사랑해요!”

DJ 박 오늘 이 이야기는 몇 시간을 해도 모자랄 듯 한데요, 방송시간이 정해져 있으니, 이제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사모님의 눈시울을 적힐 수 있는 감동적인 말을 부탁드립니다.

조 초반에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봉효를 만난 것이 제 인생의 최고의 행운이고, 저희 식구 다 건강하고, 성격 급한 저의 모든 것을 받아주고 참, 너무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제가 잘하겠습니다. 여태껏 받기만 했는데, 저도 이제 조금은 해야지 않겠어요? 저도 이제 잘하겠습니다. 하하

DJ 장 잘하시라는 의미에서 우리 함께 박수 쳐드리죠, 박수!

DJ 박 32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봉효 씨, 사랑합니다’라고 외쳐주세요.

조 제가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많이 변하겠습니다. 글썄 방송을 한다니까 떨려서 말이 잘 안 나오는데요, 머리속은 조금 하얗네요. 하하. 32년 전에, 우리 이봉효 씨는 천사가 내려왔나 싶을 정도로 마음과 몸 건강하고, 마음씨가 이 세상에 때묻지 않은 여성이었어요. 저를 만나면서부터 때도 묻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다시 세상 때 안 묻은 여자로 태어나게끔 노력을 많이하겠고요, 이봉효 씨 만나서 여태껏 잘 살았고, 앞으로도 잘 살겠습니다. 이봉효 씨, 내가 많이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이봉효 씨, 사랑해요!



가게에 들어서면 안쪽에 무척 오래된 껌짝이 있다. 전화기와 다른 갖가지 소품들이 놓여있어 눈에 잘 띄지 않지만, 평택신발이 있었던 시절만큼은 함께 한 듯 보인다.

“돈통. 이거 골동품이야. 요게 우리 가게에서 제일 오래 됐어. 여기다 돈을 다 넣었지. 돈은 버려도 이걸 안 버려. 손자한테 보여줄 수도 있어. 이런 게 공부가 되는 거니까..돈은 물려주지 말아야 돼. 머리 속에 심어만 주면 돼.”

상대원시장에서 오래된 가게를 꼽으라면 빠지지 않는 평택신발. 원다방 1층에 위치하고 있는 평택신발은 원다방이 하는 일에 많은 도움을 주는 곳이다. 평택신발의 주인장, 손웅일 사장님을 만났다.

상대원시장에서 장사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거의 30년. 1982년도에 상대원시장으로 왔어요. 오니까, 쌍둥이네, 부흥상회 먼저 있었어. 그때 저 위에 있던 시장은 골목시장이었고, 가게 모인 시장은 여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리로 내려와서 터를 잡아 가건물을 짓기 시작했어. 노점이 짝 있었고,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녀서 요 앞엔 그땐 차도 잘 안다녔어. ‘여자없인 살아도 장화없인 못 산다’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때는 아스팔트가 없었잖아. 하수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장화가 꼭 필요했지. 그리고, 성남에 포장마차, 대포집이, 막걸리 먹는 데가 무지 많았다고. 집도 얼마 없었어. 그때는 집 한 채 20평짜리 15만원 밖에 안했어.”

손님과 함께
울고 웃은
30년

평택신발
손웅일

현재는 월세를 살아도 자가용이 있지만, 그 때는 교통이 나빠서 다 걸어야 하던 시절. 명절 때면 고향을 가기 전에 깨끗한 신발을 사러 온 사람들도 제법 많았단다.

“30년 단골 있지. 오래 해서 할머니들이 많이 와. 그 노인분들이 처음 왔을 땐 40대, 50대 였는데, 지금은 70, 80대가 되거여. 지금은 손주 데리고 와서 신발 사 가고... 한 번은 부산을 갔는데, 부산으로 시집갔다고 우연히 만난 사람도 있었어. 어렸을 때, 우리집 신발 신고 자란 사람이 시집가서 친정왔다가 중학생, 고등학생된 애들하고 와서 신발 사주고 간 적도 있고, 나는 손님들을 잘 기억 못해도 손님들은 나를 알지. ‘아저씨, 지금도 장사하세요?’ 물어오면 ‘거기서 한다’ 그러면 ‘오래 하시네’ 그러지.”

지금도 30년 전 그대로 여름에는 아침 6시 반, 겨울에는 7시에 문을 열고 밤 11시에 닫는다고 한다. 손님들은 열고 닫는 시간이 정확한 집이다 싶으면 멀리서도 찾아온단다.

30년간 장사를 하셨는데, 장사에 대해 어떤 신조를 가지고 있으신가요?

“30년 동안 한 군데에서 장사를 한다는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야. 금지가 있어야 되고 의지가 있어야지. 첫째가 신용이고, 둘째가 정확한 가격이야. 그리고, 오래 있으면 손님들 속사정도 다 알게 되요. 할머니들이 신발사러 오면 앉아서 참 서럽게 우는 사람 많아. 자식이 여섯인데 찾아오는 자식들이 없다고. 그런 사람들 얘기 듣다보면 불쌍해서 신발 그냥 줄 때도 있고, 같이 울 때도 있어.”

인터뷰를 하는 도중, 묵직해 보이는 택배가 도착했다. 어? 그런데 수신인이름이 사장님 성함과 다르다?

“친한 단골 택배야. 부산에서 어머니가 보낸 갓 잡은 해산물인데, 여기 받아놔달라고 한거야. 뜯어서 나 절반 가져가라고 하더라고. 아까 온 사람 있지? 장사하면서 오래 지낸 알고 동생인데, 우리 단골이야. 손맛이 남달라서, ‘김치 좀 담가워’ 했더니 진짜 김치도 담가다 줬어.”

옛 원다방과 현재 라디오방송국의 원다방에 대한 추억을 물었다.



“옛날 서울에서 택시타서 ‘성남 원다방’ 가자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 그 정도로 유명했지. 여기 위층에 라디오방송국 생긴다고 젊은 사람들 들어와서 프로그램 할 때 무척 좋았어. 라디오도 없었는데, 음악도 틀어주고 좋지. 초기에 라디오방송도 한, 두번 했어. 촬영나온 것 인터뷰도 해주고... 사실, 처음에 요 앞에서 음악회 할 때는 손님들이 거기에 집중하니까 장사가 덜 되더라고. 하지만 다음날 또 장사가 되니까 괜찮아.”

상대원시장에서 계속 장사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아직 나이가 젊기 때문에 더 오래 할 수 있지. 너무 오래 하니까 싫증도 나긴 했는데 놀면 뭐해. 나와서 시장 사람들과 어울려서 대포도 한잔씩 나누면서 세상살이도 이 얘기 저 얘기 나누고 그게 재미지.”

신발장사의 어려운 점이 있다면요?

“지금은 신발장사가 거의 없어. 재고 때문에 하다 때려치우는 사람이 많아. 이 장사가 무지 어려운 장사여. 나도 이거 오래했으니까 그냥 하는 거지 1,2년 했으면 때려치웠을거. 치수 하나 없어도 못파는게 이 장사야. 퇴직해서 이 장사 하려는 사람들이 가끔 와. 그럼 내가 그러지. 하려면 이 가게를 맡아서 하라고. 하하.”

신발장사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도 상대원시장과 이 가게를 무척 아끼는 마음을 알 수 있었다. 인터뷰가 끝나갈 때쯤, 손웅일 사장님이 가진 재래시장에 대한 견해를 들을 수 있었다.

“나는 재래시장을 살리려면 할머니들이 시골에서 오면 바구니 놓고 장사하는 노점을 보둬야 해. ‘재래시장에 가면 할머니들이 시골에서 따온 채소가 있다’, ‘거기 가면 재래시장 본연의 느낌이 살아있다’, 이런 기분을 느낄 수 있어야 재래시장을 찾는 거지. 정부에서도 도로변 단속하는건 좋아. 하지만 시장 안에서 개인이 하는 소소한 노점은 그냥 팔게 놔두고 단속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 그래야 서로 장사가 잘 되지. 정부나 시청에서 신경 많이 써주는 것 알아. 하지만 탁상공론 하는 사람들과 실제 경험해보는 사람의 생각은 달라. 정부에서 실제 살리려면 시장에 직접 와서 겪어봐야지.”

지금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시간은 오전 7시 40분. 오늘도 변함없이 상대원시장 평택신발 가게의 불은 밝혀 있겠지? 알고 있는 누군가와 하루의 시작을 함께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따뜻해진다. 그리고 그 근면함과 성실함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역시 나 이외의 모든 사람은 스승이다.

우리네 어머니, 할머니

두우리국밥
윤여덕

상대원시장 길에서 마주치면 언제나 환한 웃음으로 반겨주시는 윤여덕 사장님. 오후 4시, 어린이집 차가 도착하는 길가로 손주들의 마중을 나간다. 인터뷰 내내 항상 자식 이야기, 손주 이야기를 하며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은 우리네 어머니이자 할머니의 모습 그대로였다.

상대원시장에서 장사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2010년에 딱 30년이야. 지금 국악학원 있는 자리에서 25년정도 했고, 여기로 옮겨서 햇수로 6년째예요. 우리 애들이 유치원 다닐 때부터 여기에서 장사했고, 이제는 손주들이 유치원 다녀."

충남 서천, 7남매의 맏딸로 태어나 어머니와 시골서 안 한 일이 없단다. 본래 아버지는 동네 구장이었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가세가 기울었다. 동생들이 줄줄이라 공부를 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미싱자수 기술을 배우러 스물 안팎에 서울로 올라와 공장을 다녔다. 거기 친구들이랑 창경궁을 놀러 갔다가 모래내 빵집에 들어갔는데 - 현재는 작고한 - 남편분을 만났다고 한다.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그 다섯명 친구 중에 나를 꼽은 거지. 그뒤부터 6개월동안 나를 쫓아다녔어. 빵 먹으러 갔다가 빵 만드는 신랑을 만났어."



20살에 남편을 만나 바로 결혼하고 빵가게를 같이 했는데 가게가 잘되는 것을 본 가게주인이 무조건 나가라고 해서 첫째 아이를 가진 채 군포의 벽돌공장으로 옮겨 일을 했다고 한다. 집을 그냥 준다고 해서 가게 된 벽돌공장에서 남편은 벽돌 짓는 기술을 배웠다.

"애를 낳으러 병원을 가야하는데 병원비도 없었어. 그래서 우리 딸, 집에서 낳았어. 그 딸이 지금 34살이야. 둘째 아들도 집에서 낳았지. 그 때, 주인집이 우리 아들을 받아줬는데 내가 고마워서 찾아보려 했는데, 못 찾았어. 너무 고마웠는데 못 찾는데."

아이들이 어릴 때, 수진동에서 만두가게를 하던 큰아버지가 성남으로 오라 하셔서 상대원 1동으로 이사를 왔다. 지대가 높아서 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형님이 리어가 한 대를 사줘서 다시 빵과 만두장사를 시작했다.

"애들 아빠는 만두랑 도너츠를 만들면 내가 이고 나와서, 지금 여기 앞 골목에서 팔아. 모란장은 리어가 끌고 가서 팔았고, 그렇게 노점장사를 오래 하다보니까, 여기 노점하던 앞 가게가 나오더라고. 얼떨결에 그 가게를 얻었어. 하루하루 장판 밑에 모았던 돈을 내놓고, 나머지 빌려서... 그 자리에서만 25년 넘게 한 거야. 만두도 하고 도너츠도 하고 순대국도 했어. 성남 공장이 너무 잘 돌아가서 사람들이 넘쳐났지."

살아 온 이야기를 하면서 가끔 울적한 표정이었다가 기쁜 표정인 윤여덕 사장님을 바라보니, 지나간 삶이 녹록치만은 아니었다는 것이 가슴깊이 느껴졌다.

원래 음식을 잘 하셨어요?

"나는 요리라고 못하야. 그냥 어머니 어깨 너머로 배웠지. 우리 형님이 주방에서 일을 해줬어. 우리 애아빠가 요리를 무조건 다 잘했어. 그래서 지금 남들이 그러잖아. '성희엄마 출세했다고'. 시골에서 농사만 짓다가 올라왔는데, 월, 처음에 시집와서 찌개도 못 끓였어. 재 아빠가 동태찌개 좀 끓여오라고 했더니, 술단지 하나 잔뜩 끓여왔다잖아. 하하하. 그것도 우리 시어머니가 두고두고 이야기 했어. 그래서, 시어머니랑 형님 어깨너머로 죄다 배웠지. 배운 대로 하니까 까먹진 않아. 처음 장사할 때는 분식을 많이 했지. 공단 다니는 아가씨들이 엄청 많이 먹었어. 떡볶이, 쫄면, 냉면 그런 거. 아직도 만들려면 자신 있어. 지금도 순대 써는 건 안 보고도 칼질해. 달인, 내가 도사여. 족발도 잘 삶아. 하하."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 이야기가 나오자 옛 생각이 나는지 목소리가 낮아지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우리 시어머니가 애들을 키워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가 온 거야. 그래서 내가 장사에는 취미가 있지만, 살림은 잘 못한다해서 살림을 봐주셨지. 우리 어머니가 애들을 잘 키워주신 것이 너무 고맙지. 작년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우리 친정엄마도 작년에 88세로 돌아가셨어. 1년만 더 사시게 하려고 집에서 온갖 수발을 다 했는데,

그래도 안 되더라고. 무조건 살아계실 때 잘해야 해. 친정
엄마나 시어머니 더 못해준 게 마음에 걸려. 노인들은 다
해주고 싶은데, 몸이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 그게 부모야.
노인들이 손주들까지 키워주잖아. 부모니까 다 해주고 싶
지. 이것저것 해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인데 나이 먹으면
기력이 없어서 더 해주고 싶은데도 마음대로 못 해.”

때마침 인터뷰를 하는 동안, 원다방 라디오의 방송시
간이었다. 커피를 팔던 원다방, 라디오방송국인 원다
방, 두 곳에 대한 느낌을 물었다.

원다방은 기억하세요?

“저쪽 가게에 있을 때, 원다방 가서 재계약서 썼어. 거기
주인이 정말 예뻐요. 그리고 같은 건물에 있던 옥수미
장원도 언니도 예쁘고 머리를 잘해서 유명했어.”

여기에 원다방 라디오 방송국이 생겼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일단, 성남이 발전되었구나 생각했지. 지금도 하나라도
배운다는 느낌으로 사니까. 전에 아름방송 ‘3시의 다이
얼’을 좋아해서 거기에 노래부르며 출연 많이했지. 여기
원다방 라디오는 TV 안 볼 때는 노상 그냥 틀어놓지.”

작은음악회에서 노래 많이 부르셨죠?

“분위기를 띄워줘야 하잖아. 장사도 해본 사람이 안다고.
판을 벌여놓았는데 안 와봐. 섭섭하지? 행사하는데 아무
도 없어봐. 흥이 안 나잖아. 똑같아. 나만 잘된다고 잘되는
게 아니야. 남이 잘 할 때, 같이 해줘야 상부상조이지. 나
만 독불장군으로 한다고 잘되는 거 아니야. 거기도 잘 되
야, 나도 잘 되지 같이 잘 살아야지. 어제 음악회에도 내

장사 돌째치고, 노상 앉아 있는거야. 하하. 노래 들으면 재
미도 있고.”

언제까지 상대원시장에서 장사를 하실 생각이세요?

“앞으로 주인이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계속 할 꺼야. 내가
배운 게 순대국, 곱창, 소머리니까. 이걸로 무조건 끝까지
갈꺼여.”

가난하게 살았고 굶어도 봤고 노점장사도 해봤으니까,
손님들이 오면 반찬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 하고, 밖에
나가서는 노점장사 물건을 사들고 온다 하신다.

“내 좌우명은 ‘착하게 살자’야. 왜 나쁜 짓을 하? 왜 남을
속이려 해? 내가 평생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고, 음식에 관
해서도 남 속이지 않고 신선한 야채 쓰고, 고춧가루 국산
쓰고, 그렇지.”

공부를 하고 싶어서, 지난 2년 동안 영어, 한문, 수학,
일본어를 배웠으며 노인학교를 다니고 싶은데 현재 못
다니고 있다며 안타까워 하신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1시간이 훌쩍 지났는데도 쉽사리 이야기
가 끊기지 않는다. 장사에 대해서, 살아온 삶에 대해서
순간순간 소중함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는 여자이자
어머니, 할머니인 윤여덕 사장님의 맛있는 순대국을
오래오래 맛 보았으면 좋겠다.



충남상회로 20년, 대왕숯불갈비로 7년간 그 자리에서 27년 장사를 한 박영출, 이재복 사장
님 내외. 내일은 먼저 걱정하지 않고, 과거는 빨리 잊어버린다는 긍정적인 사고와 바른 마
음으로 살고 있는 두 분을 만났다. 박영출 사장님은 쑥스럽다고 이재복 사모님께 전부 들
으라며 바깥으로 나가셨고, 그 때부터 이재복 사모님과 나는 이야기꽃을 피웠다.

상대원동에 언제 이사오셨어요?

“애아빠가 서울에 있는 무역회사를 다녀서 서울서 살다가, 회사 공장이 신흥동에 있었
는데 이쪽으로 왔다갔다 해야할 일이 있어서 가족들이 이사를 왔죠. 나도 뭔가를 해야
겠다고 생각하고 장사를 시작한거지. 28년 전에 결혼해서 둘째를 여기 와서 낳았어요.
첫째는 이번 10월에 결혼했고.”

그 때 당시 성호시장하고 상대원시장이 제일 호황이었다고 한다. 속옷까지
중국산이 밀려오고 인터넷쇼핑이 일상화 되면서 국내산이 단가가 높아졌
단다. 그래서, 식당으로 업종을 바꿨다.

사장님 고향이 충청도 서산. 사모님은 예산이라 속옷가게일 때, ‘충남상
회’라 이름을 지었고, 현재는 ‘대왕숯불갈비’이다. 대왕이라는 단어가 갈비랑 잘 어울리고,
동생이 운영하는 고깃집 이름을 같이 쓰자 해서 붙여졌다고 한다.



"베플면
돌아
와요."

대왕숯불갈비
박영출, 이재복

업종을 바꾸셨는데 어렵지 않으셨어요?

“속옷가게 때도 그랬지만, 이 동네분들이 믿고 와 주세요. 우리나라 국산 갈비로, 우리 애아빠가 정성껏 양념해요. 잡썰보면 다 알꺼야. 내 이익보다는 손님들한테 속이지 않고, 모든 식재료를 국산으로만 써요. 우리 애아빠나 나 나 헛된 마음이 없이 진실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 게 다 통해, 손님들이 다 아시더라고. 오시면 다 맛있다고 하고.”

많은 손님들의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어렵지 않냐고 묻자, 만며느리, 만딸이라 큰 집안 행사를 많이 치워서 아무리 손님이 몰려와도 두려운 것은 없다고 하신다.

“제가 친정에 종가집, 종손녀라서 스물 세 명씩 살았어요. 부엌일을 하진 않았어도 보고 자라서 그런지, 눈대중으로 보고 그냥 해요. 조상님들 시제 모시거나, 손님이 아무리 많이 와도 두렵지 않아요. 시 부모님이 장례식장 싫다고 하셔서 장례도 전부 집에서 치렀어요. 제가 음식하고 동네분들이 다 도와주시고.”

지난 번, 대왕숯불갈비로 저녁식사를 하러 온 기억이 났다. 맛있는 고기는 물론이거니와 뭐든지 푸짐했다. 사장님, 사모님은 여러 테이블을 두루 살피며 비어있는 반찬 그릇이 있으면 바로바로 가져다 주시는 세심함까지 느낄 수 있었다. 나중에 두 분이 바빠지자 앉아 있던 손님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반찬도 가져다 먹고, 필요한 음료수도 꺼내먹었다. 이것이 말 그대로 동네장사라는 느낌이 들었다,

“우리들이 바빠서 손님들을 불편하게 해도, 손님들이 하나도 불편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 이해해주시니 우리가 너무 고맙죠. 그래서 뭐든지 하나라도 더 많이, 더 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지요.”

라디오방송국이 생긴다고 했을 때, 생소했지만, 없는 것보다는 낫겠다고 생각했단다. 그 때, 원다방을 처음 만들려고 들어왔던 젊은 사람들 때문에 상대원시장이 무척 밝았었다며 특별한 기억을 풀어놓았다.

여기 원다방 라디오방송국에 대한 어떤 기억이 있으세요?

“원다방에서 프로젝트 했던 젊은 작가들이랑 사람들이랑 엄청 친하게 잘 지냈어요. 우리가 김장을 몇 백 포기씩 하는데 양념 무쳐준다고 해서 전부 다 와서 김장도 담귀 줬는데? 밤 늦게까지 고기 삶아서 먹고 정말 재밌게 했죠. 너무 좋았지. 그 양반들 정말 열심히 했어. 시장 다니면서 항상 웃고 인사하고 예뻐어요. 좋았었어요.”

작은음악회는 어떠세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좋아하고, 우리 단골손님들도 너무 좋아했어. 지난 번에 음악회에서 노래부른 나훈아 님은 분. 그 분들은 꾸준히 많이 오셨던 분들이여. 우리 손님들은 참 고마워요. 다 식구들 같아요. 두어 번이면 식구처럼 편안해져요.”

인터뷰를 하기 전, 가게 앞 평상마루에 고개를 올라가던 할머니께서 쉬어가는 모습을 봤다.

“앞에 평상마루는 일부러 해 놓은 거예요. 여름에는 한 달동안 튜브를 파는 걸로 쓰고, 나머지 계절엔 그냥 뒹요. 올라가는 분들 조금씩 쉬어가기도 하시라고. 짐 보따리라도 땅에 안 놓고 거기에 올려두는 것아... 뭐 큰 보시가 아니라, 누구든지 조그만 거라도 그렇게 베푸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난 항상 그래요. ‘없는 사람을 도와라.’ 예요. 주위에서 병든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을 보살펴야 해. 내가 행하면 마음적으로 내가 많이 위로되지.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을 애들이 보고 자라는 거죠. 그게 영양분이야. 그럼 도움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또 베푸는 거니까, 꼭 그 사람한테 우리가 받는 게 아니거든. 누군가에게 베푸면 그게 나한테 돌아오는 거지.”

편안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밖에 나오니 호떡을 기다리는 손님이 있었다. 산성동 사는 이순애 님 만며느리라고 밝힌 분은, 친구 집이 상대원동이라 놀러왔다가 호떡을 사가지고 가려던 참이란다. 전일부터 지나다니면서 먹어보고 싶었는데, 이제서야 먹게 되었다며 정말 맛있다고 한다. 그런데, 기다리는 모습을 본 뒤에 온 손님들이 그냥 가려는 것을, 붙잡아서 ‘먼저 가져가시라’ 며 양보한다.

“우리가 양보 안했으면 벌써 세 팀이 다 지나가잖아요. 재래시장이 없어진다면 다 이런 정도 없어지는 거죠. 도시가 팍팍해지고 삭막해지는 거지. 상대원시장 같은 재래시장은 꼭 있어야 해요.”

이재복 사모님과 박영출 사장님은 잘 구워진 호떡을 담으며 한 마디 거드신다.

“정말 이해성이 많네. 이런 사람이 너무 좋아요. 재래시장은 이게 정이야. 바빠도 욕심을 안 부리잖아. 이게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거잖아.”

상대원시장에서 만난 두 분의 따뜻한 마음이 성남 모두에 퍼져 어디든지 사람 냄새 나는 동네가 되었으면 한다. 사람은 꽃보다 아름답고 삶의 향기는 어느 향기보다 깊고 진하니까.

@ 느낌표 13

아주 특별한 만남 추억의 원다방, 원언니

조영경 님

2010년 9월 말, 성남문화재단 박승현 부장님은 상대원시장에서 30년 넘게 장사하신 분들께 물어 물어 실제 원다방의 주인을 찾기 시작했다. 마침 쌍둥이기름고추의 김철술 사모님이 ‘연락이 될 만한 사람을 알고 있다’고 기별을 주신 이틀 뒤, 실제 원다방의 주인, ‘원언니’로 불리던 조영경 님과 연락이 닿았다. 2010년 10월 4일, 추억의 원다방에 원래 주인, ‘원언니’ 조영경 님이 상대원시장을 찾았다. 미모의 여주인이었다고 소문이 자자했었는데, 현재도 아름다운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1973년 9월에 건물을 짓고, 원다방이라고 이름을 붙인 전 주인이 몇 개월 운영한 후, 조영경 사장님이 두 번째로 인수받았다고 한다. 2003년까지 만 30년간 운영했다. 그 건물에 있던 3개의 가게, 원다방, 원약국, 원의류에 모두 ‘원’ 자가 쓰였다. 그 이유는 그 건물주 이름의 ‘원’자와 상대원 ‘원’자에서 음을 본따고, ‘원은 둥글다,’라는 뜻을 합쳐 모두 ‘원’자를 넣었다고 한다.

원다방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세요.

“원다방은 1973년, 커피 600원 할 때부터 시작했죠. 그리고는 2003년 커피값이 4,500원, 주스가 4,000원일 때까지 운영했어요. 우리는 문 열면 자리가 없어서 우리 다방에서 못 받는 손님은 주변에 다른 다방으로 갔죠. 곰다방, 우성다방, 동굴다방, 현대다방, 수도다방... 여기 다방이 참 많았어요. 우리도 카운터 옆에 DJ Box를 설치하고 음악 DJ를 두고 장사했어요. 쪽지로 멘트하고 음악을 신청하면 틀어주고... 여기 길 건너편 돌고래 다방은 젊은이들 음악다방이었어요.”

원다방에 오는 손님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우리가 공단 손님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통장, 반장님들 집결장소가 우리집이었어요. 그 때, 상대원 1동 동장님도 자주 오셨어요. 공단에서는 OMC, OPC, 무림산업, 콘티빵, 사니빵 등 직원들이 왔고요. 권투, 레슬링 중계가 있는 날에는 일반집에는 TV가 별로 없었으니까 손님들이 꼭 차요. 나중엔 다방 창틀에까지 다 올라 앉았죠. 홍수환, 박종팔, 장정구, 문성길, 김득구 선수들의 경기를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봤죠. 그 때, 레슬링에서 유명한 선수들은 김일, 천규덕 선수정도 였고.”

다방 안은 어떻게 생겼었나요?

“1층에서 계단 통로를 올라가면 반층에 화장실이 나오고, 2층에 하나나 사진관이 있었고 그 옆이 원다방이었죠. 다방 구조는 들어가면 현재 치과가 보이는 유리창이랑 대로변 창문이고, 왼쪽으로 카운터, DJ Box, 주방, 갖가지 집기 등이 있었고요. 아침 9시에 열고, 밤 12시까지 영업을했어요.”

옥상에는 옥탑방이 있어서, 종업원 3~4명이 함께 생활했다고 한다. 모든 끼니도 다방에서 해 먹었는데, 배고프다는 손님들이 있으면 함께 먹기도 했단다.

원다방 하면 맞선 본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때 맞선은 지금처럼 호텔커피숍이나 레스토랑에서 보지 않고, 거의 다방에서 봤죠. 총각 때부터 단골이었던 손님이 군대를 다녀오고 우리 가게서 맞선보고 결혼하고... 그런 경우가 엄청 많아요. 길에 다니면, 나는 못 알아봐도,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 거기서 선보고 결혼했잖아요!’ 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그리고, 부동산을 사고 파는 계약도 참 많이 했죠. 그 무렵에는 만남의 장소가 무조건 원다방이었어요.”

고향이 강릉인 조영경 님은 결혼 후, 남편이 공단에서 직장생활을 해 이 곳으로 오게 되었다고 한다. 그 때는 집마다 유선전화가 없어서 전화를 신청해서 공공장소에서 받을 때인데, 가끔 원다방에서 친정인 강릉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곤 했었다.

“이전 주인이 운영했을 때인데, 난로에 나무를 떼고 있더라고요. 나는 그런 고전적인 분위기를 좋아하거든. 창문을 보면서 ‘나도 이만하면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드는거야. 그 전까지 가게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었어요. 그 때는 손님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쉽게 인수받았어요.”

레스토랑이 하나 둘씩 생길 때 즈음인 1994년 정도에 인테리어를 싹 바꿔서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시간당 2,500원에 고용하고, 셀프서비스로 바꿨다고 한다. 이름도 ‘원 커피숍’이라 새로 짓고 간판도 바꿨다.

그럼 장사하시는 동안, 시대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내가 여기서 장사할 때, 전라도 광주사태 일어났고,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올림픽게임 다 있었죠. IMF도 지나갔고... 광주사태 때, TV에서 속보가 계속 나오는데 사람이 죽고 난리난 것만 보도되었지. 실제 상황을 여기서는 잘 모르죠. 그 때, 민당약국 앞에서 데모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만 두게 된 이유가 뭔가요?

“첫번째로 공단이 없어지는 거예요. 공단이 없어지니까 사람들도 줄고, 둘째는 여기 자주 오던 원주민들이 이사가는 거죠. 셋째는 주차문제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젊은 층들이 오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동네에 오래사신 분들이랑 나이있는 분들이 오는데, 차를 가지고 오면 세울 곳이 마땅치 않은 거지. 여기 오래 살다가 이사갔던 분들은 오랜만에 원다방을 찾으러 왔는데, 들어오지 못해서 창문만 쳐



다보고 간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원래 내가 50살 되면 그만해야지 하고 마음도 먹었지. 그래서, 내가 여기 그만둔다고 할 때, '이건 상대원 역사다. 팔지 말라'고 한 사람들도 엄청 많았어요. 수입도 줄어 들고, 오래해서 지루하고, 내가 부업으로 한 에어로빅 회관도 그만두게 되었고... 그래서 전부 그만두게 되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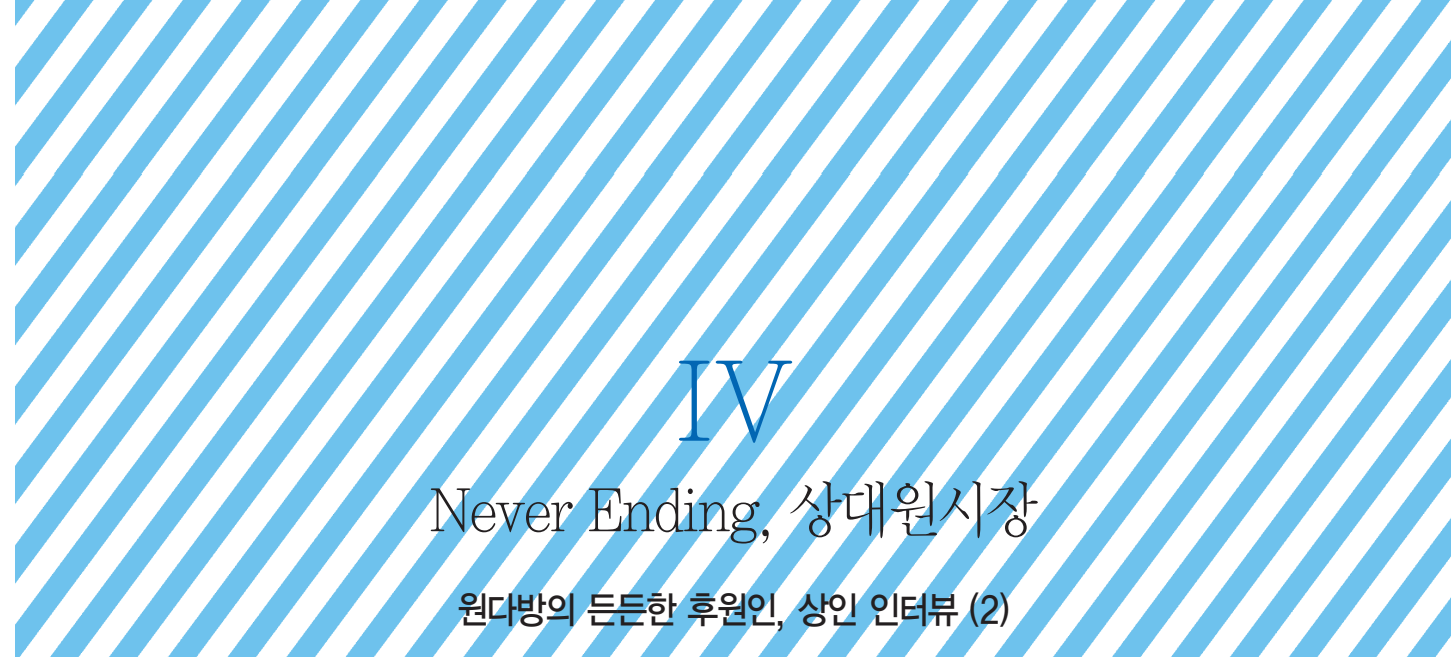
얼마 전, 아는 동생에게서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그 동생이 '언니, 나 얼마전에 TV보는데 상대원시장에 원다방 방송국이라고 나오더라. 그 이름을 딴 곳이 있나봐요.' 라고 하대요. 그래서 아마 상대원시장 활성화 위해서 뭔가를 하나보다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며칠 전에 쌍둥이네에서 전화를 받은거야. '밥 한 끼 먹자'면서 방송국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현재도 성남에서 계속 살고 있는 조영경 님은 차로 상대원동을 지나갈 때 마다 마음이 애뜻하다고 한다.

"나는 여기서 인생을 배웠어요. 상대원동 원다방에 젊음을 다 바쳤고, 시장이 잘 되야 내 마음도 좋죠. 세상은 혼자 사는게 아니잖아요. 더불어 사는 거지."

인터뷰 이후, 라디오방송국 원다방에 올라와 스튜디오를 구경하고 방송에 깜짝 출연을 한 후, 잠깐 DJ들과 담소를 나눴다. 조영경 님은 원다방 후원회 조직에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돕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시장 곳곳, 오래동안 함께 장사했던 가게에 들러 안부인사를 나눴다. 웃음으로 반기는 상인들의 모습을 보니, 원다방은 모두에게 특별한 공간이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 느낌이 지금의 원다방 방송국까지 이어지길 바란다.



IV Never Ending, 상대원시장

원다방의 든든한 후원인, 상인 인터뷰 (2)

인생이라는 긴 마라톤.

20대때는 펄 준비를 하고 30대때는 시작점에 출발을 하고

40대는 결승점을 향해 꾸준히 달립니다.

상대원시장에서 처음으로 자기 가게를 가지고

또는 부모님의 가게를 물려받아 이어가고

또는 기술을 뽐내며 열심히 일하고 있는 아홉 개의 가게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더 많은 가게들의 이야기는 상대원시장에 직접 가시면 들으실 수 있어요.





오픈 마인드

영동건어물
김선옥

인터뷰 시작 전, 김선옥 사모님께서 **따끈한 영양차**를 타 주셨다.
차를 주시기 전에 티스푼을 돌리며
‘사랑, 행복, 웃음, 잔잔잔~!’ 이라고 말씀하신 후, 건네 주신다.
이 차 마시면 건강하고 행복해질 거라고 하신다.
마시는 동안, 참 기분이 좋았다.

김선옥 사모님은 29살, 서른을 눈앞에 두고 12월 15일에 아슬아슬하게 결혼을 하셨단다.
김승만 사장님은 결혼 전부터에 상대원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다. 지금은 큰 딸이 고등학교 3학년, 아들은 고등학교 1학년. 큰 딸은 진지하게 본인의 진로를 고민 중에 있다고 한다.

처음에 상대원시장에 오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지금보다 사람이 아주 많았어요. 여기 공단이 있어서. 시장 자체가 아주 재래시장다운 맛이 있었어. 여기 프라자 건물 들어오기 전에 노점상도 많았고, 그때는 명동거리 저리가라 할 정도로 장이 열리는 시간되면 사람이 아주 많이 몰렸던 곳인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그런 면을 볼 수가 없어요.”

영동건어물은 아침 8시에 열고 밤 9시, 10시 정도에 닫는다. 이 생활이 거의 20년 다 되어 간다. 아침 손님이 기분 좋게 ‘아줌마, 이거 주세요, 많이 파세요.’ 라고 인사하면 하루의 시작이 즐겁단다. 언제 어디서든 서로의 기분과 입장을 존중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역시 좋은 기분은 전염되나보다.

김선옥 사모님의 고향은 돌 많고 바람 많은 제주도. 마음의 여유가 있는 그 곳과는 달리 상대원시장은 바쁘게 돌아가고 빠르게 행동해야 한다. 두 곳 모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단다. 서울에서 꾸준히 직장생활을 하다가 처음으로 장사를 했을 때, 어렵지 않았냐는 질문에 ‘남들도 다 하는 건데, 처음 시작이 중요한 거지’ 라고 답한다.

“새 댁이 한 댁 되어 버렸어. 하하하. 나는 낙천적으로 격식없이 편안하게 마음먹고 살려고 해요. 그리고 내가 인상이 좀 쌀쌀하게 생겼잖아. 알고보면 부드러운 여자인데..”

처음에 라디오방송국이 생긴다고 했을 때 어떠셨어요?

“생소했지요. 다른 재래시장에서 생긴다고 한 것 본 적이 있었어요. 여기서 하니까, 연배들이 있어서 그런가 처음엔 귀 기울이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았는데... 지금은 또 많은 사람들이 좋다며 어울리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해서 여태까지 이렇게 해오니까지 하시는 분들의 공로가 많이 크고 많이 힘들었지.”

작은음악회에 사람들이 노래자랑을 할 때, 내 흥에 맞춰 손뼉치고, 노래하는 사람들의 흥도 맞춰주며 오후 한 두 시간동안 웃는 것은 좋다고 생각한대며 무엇을 하든 언제나 오픈 마인드라고 하신다. 라디오방송에서 코믹하게 웃음을 줄 수 있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인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자연스레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봉투에 담은 편지 한 장을 보여주신다.

“딸이 고 1때, 우리 결혼기념일 때 써 준 편지인데 한 번 봐봐요.”

정성스럽게 쓴 편지에는 ‘엄마, 아빠가 해준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어리석게 받기만 해서 미안하다’, ‘현재 사는 세상이 각박하고 냉철한 사회인 것을 깨닫게 되어 복지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 ‘엄마,아빠께 무척 감사하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부모님을 향한 애절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가게 내부의 사진을 찍다가 한 쪽에 약용식물의 효능에 대해 적어놓은 글을 봤다.

“손님들이 가게에 오셔서 보고 효능을 알고, 본인 몸에 도움되면 필요한 차를 드시라고 해놓았어. 구
기자는 어디에 좋고, 맥문동는 어디에 좋고… 모두 나름대로 효능이 있으니까.”

김선옥 사모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무척 기분이 즐거워졌다. 편안하게 해주려는 속깊은
배려심이 전해졌다.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너무 즐거웠어요. 차도 맛있었고요.

“저를 이리 찾아오시고 이야기를 도란도란 잠시나마 주고받은 것도 재미있었고.. 이런 것이 인생살이
흘러가는 얘기 아니겠어요? 처음부터 웃음으로 맞이하면 찾아온 사람도 기분 좋고 요렇게 대접하는
사람도 좋죠.”

11월 22일, 상대원시장에서 김장김치 나눔 행사가 열렸다. 이 날, 두 팔을 걷어붙이고 배추
속을 넣어주신 시장상인분들 중에 영동건어물 김승만 사장님도 계셨다. 김장이 다 끝나갈
무렵 오복떡집에서 오늘 수고한 여러 사람들과 나눠 드시라며 뜨끈한 시루떡을 한 상자 가
져다 주셨다. 오가는 상인들, 손님들과 함께 나눠 먹은 후, 나는 떡 몇 조각을 비닐에 싸서
시장즉석어묵, 영동건어물, 진성떡집, 미래분식 등 위쪽 가게에 조금씩 나눠드리러 올라갔
는데, 영동건어물에 들어서니 김선옥 사모님께서 환히 웃으며 맞아주셨다. ‘김장은 잘 끝
났냐, 사장님께 떡 맛있게 드시고 오시라’고 전해달라 하셨다.

사람들의 입김이 없는 곳은 따뜻한 체온도 없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모이고 이야
기를 나누며 서로 온정을 전해야 비로소 그 곳은 살아있는 곳이 된다. 김승만, 김선옥 사장
님 내외처럼 먼저 따스한 말 한 마디 건네는 분들이 계신다면 어디든지 살아있는 곳이 될
거라 생각한다.

‘여러분, 영동건어물에 지나갈 때, 차 한 잔 청해보세요. ‘사랑, 행복, 웃음, 짹짹~!’ 을
담은 차를 마시는 순간, 무척 행복해지실 거예요.’



내가 진짜
라디오
스타

시장야채
박정미

‘쉽게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안타까워
매일 아침 7시 30분에 문을 여는 ‘성실함’ 이 자랑이지요.’

원다방 입구 맞은편, 시장야채 간판에 적혀있는 문구이다.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시장야채에 가면
언제든지 박정미 사장님을 만날 수 있다.

전라도 해남 땅끝마을보다 더 들어가는 산이면서 태어난 박정미 사장님은 1989년 결혼
하면서 성남으로 오게 되었다. 1993년, 사업의 큰 위기를 겪고 이런 저런 일을 많이 하다가
8년 전에 장사를 해보라는 친구의 권유로 2002년부터 현재 이 자리에서 장사를 시작했
다고 한다. 지금은 ‘장사하길 너무 잘했다’는 생각뿐이다.

“결혼해서 성남에 왔는데, 고바위가 많았죠. 표준말 써야해요? 하하하. 고바위는 언덕, 언덕이 많았어
요. 집이 상대원 3동이라서 여기서 시장을 항상 봤죠. 결혼했을 무렵인 20여년 전에 상대원시장은 무
척 북적북적했죠. 지금 상대원시장의 모습은 8년 전이랑 같아요.”

옛날 ‘원다방’ 기억하세요?

“요기 앞 건물, 치과 자리에 원다방있었던 거 알죠. 제가 서울 종로에서 직장다녔다가, 우리 회사 사장님, 지금은 시아버님이 되셨는데요. 하하. ‘서류를 가져와라.’ 해서 여기까지 서류를 가져온 적이 있어요. 성남에 오면 상대원 4거리에 원다방이라고 있대요. 그래서 서류드리러 원다방에 딱 한 번 들어가 봤죠.”

지금 ‘원다방’은 어떠세요?

“처음에 라디오방송국 생긴다길래, 마음이 반반이었어요. 이게 될까? 그리고 길게 이어질까? 하는 생각이 있었죠. 지금은 되게 좋아요. 이제는 라디오 듣는 것이, 습관이 되서 안 나오면 이상해요.”

매일 가게 의자에 앉아 야채를 다듬는 것이 일상이라 과거를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박정미 사장님은 ‘책 읽어주는 시장’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묻혀있던 옛 기억이 되살아 난다고 했다. 이제는 집에 가서 아이들하고 그 날 라디오에서 들은 내용이 화제 거리란다.

기억나는 방송 내용 있으세요?

“저번에 어떤 DJ님이 ‘나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저희 친정엄마가 78살 이세요. 제가 매일 저녁, 꼬박꼬박 한 번씩 전화해요. 그 날 방송을 듣는데, ‘나도 우리엄마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애들은 엄마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큰 딸은 대학교 2학년, 작은 딸은 고등학교 3학년, 막내 아들은 중학교 2학년인데, 그 날 저녁에 한 번 물어봤어요. ‘엄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것 보다 깊게 생각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엄마 하면 항상 부지런하고, 약한 모습 안 보인다, 엄마, 아빠가 성실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애가 어른 같은 느낌이 드는 거 있죠? 부모 입장에서 보면 항상 애기인데…”

한 번은 추운 겨울날 일요일, 이른 아침에 손님이 슬리퍼 차림으로 양푼을 들고 왔더라. 집이 상대원 성당 근처인데, 콩나물국을 끓이려고 사러 나왔다가 문을 연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내려왔다며 가게를 연 곳이 여기 밖에 없었단다. 살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500원어치 콩나물을 사 갔는데 웬지 모를 뿌듯함이 느껴졌다.

“저는 일이 재미있어요. 누가 시키면 이렇게 못할 거예요. 제가 1년 동안 쉬는 게, 여름 휴가하고 설 연휴, 추석연휴 뒷날 밖에 없거든요? 저도 종가집 큰 며느리예요. 집안에 큰 일 있으면 담지만, 저는 되도록이면 가게를 안 닫으려 해요. 저 하나라도 문을 닫으면 괜히 시장이 썰렁해 보이더라고요. 제가 못 나오는 날은 일하는 분들을 일부러 쓰면서도 열어요. 열려 있다는 건 손님하고 약속이니깐요.

인터뷰 중간, 동네 어르신께서 물김치에 시원하게 넣으려 한다면 쪽파, 부추를 사러 오셨다. 이 때, 야채가격이 꽤 비쌌는데도 조금 더 넣어달라는 부탁에 박정미 사장님은 덤도 푸짐하게 챙겨주신다. 다음 손님인 상대원 2동에서

사는 정순도 할머니 (71세)은 1970년도에 이사와서 여지껏 살고 있단다. 시장야채가 생길 때부터 8년 단골이란다. ‘여기 물건이 너무 좋아요.’ 라고 칭찬하셨다.

원다방 소식지 1호에 이름 앞에 ‘연꽃’ 박정미 라고 본 기억이 나서 그 이유에 대해 물었다.

“연꽃을 좋아합니다. 연꽃이 사는 물은 더럽지만 꽃은 참 이쁘잖아요. 그런 의미 때문에 좋아요. 제가 하는 일이 깨끗한 일은 아니지만, 제 마음은 남 못지 않게 이쁘고 좋거든요. 이 장사를 하고있는 자체에 자신감이 있으니까 ‘연꽃’이라 쓰는 거예요. 그렇다고 불교신자는 아니고요, 천주교 신자예요. 하하.”

라디오에 대해서 더 말씀해주신다면요?

“라디오방송국 때문인지 2년 전부터 시장이 다시 살아난 느낌이에요. 어느 날 손님이 그러대요. ‘원다방’ 방송국 생기고 나서부터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다고. 저도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생긴 것 같이 느껴져요. 그리고, TV에 방송이 한 번 나갔더니, 강남서 사시는 분이 일요일에 오신거예요. 방송에 나와서 굉장히 큰 시장인 줄 알았더니 너무 작아서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일요일이라 그러는데, 실망하시지 말고, 다음에 평일에 또 오시라고. ‘여기는 없는 게 없는 곳이고 더 싸요.’ 했어요. 여기 원다방 방송국 생기고 손님들 오면 말이 더 조심스럽게 나와요. 팔 의도만 가지고 하지 않고, 물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도 해줘요. 예를 들어 김치거리를 사러 왔을 때, 어떻게 담그라고 도와드리면 좋아하시죠. 특히 김치 담그는거 어려운 새댁들이요.”

라디오방송국이 생겨서 사연을 써서 방송에 나오고, 공중파 방송 인터뷰도 많이 하셨다며 오히려 본인이 라디오 스타가 되었다고 하신다.

“저도 가끔 제 친구들한테 인터넷에 있는 상대원시장 원다방 라디오 카페를 들어가보라고 많이 이야기해요. 이제부터는 후원회 꾸려서 자립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하니까 계속 잘 이어졌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얼마 후, 박정미 사장님의 친언니가 보내신 편지를 보여주셨다.

‘방송국 작가님,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작가님, 저는 상대원 3동에서 야채가게 하는 박정미 언니 박수자입니다. 작가님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동생을 언니가 진심으로, 진심으로 장하고, 대단하고, 수고한다고 말씀을 해주시라고 두서없이 편을 들었습니다. 작가님, 이렇게 아름답고 참 좋은 이 세상에 우리 동생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광풍이 부나 한 시간을 쉬면 하루를 굶고 하루를 쉬면 한 달을 굶는다는 강한 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동생을 생각하면 할수록 칭찬하고 싶습니다.’

친언니의 사랑이 담뿍 담긴 편지를 보며 박정미 사장님은 지금까지 언제나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마음씨까지 연꽃처럼 고운 박정미 사장님의 시장야채가 항상 상대원시장의 새로운 아침을 알리길 바란다.

@느낌표 14
2010.11.14

시장 야채에서 온 편지

지난 인터뷰 때,
동네에서 나오는 폐지를 모아서 드리는 할머니가 계신다고 했다.
얼마 전, **그 할머니께 보내는 메시지**를 적어
원다방에 보내주셨다.

작가님, 바람이 차갑네요.

쪽파를 다듬다, box 좁는 할머니 생각에 마음이 아프네요. 아름다운 할머니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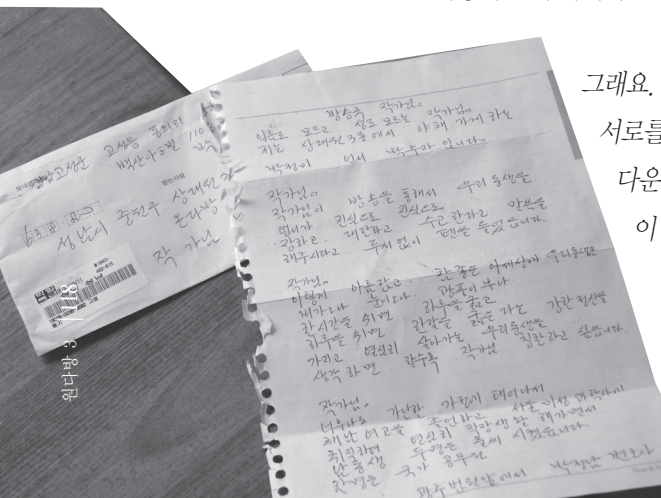
‘조그만한 시장 바구니에 무엇인가 담아 조심스럽게 제 자리에 두고 가시는 모습을 보고
오늘도 빵을 가지고 오셨나보다 하면서 시장 바구니를 보니,’ 이게 왜일인가? ‘전기장판이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들어 버렸어요. 날씨가 추워서 제 걱정을 하셨나봐요. 저는 추운 날씨
에 box좁는 당신이 걱정스러운데...

한참있다 box 가지고 오셨길래 할머니 손을 잡고, ‘미안해요.’ 진즉 말씀을 드릴 것을. 할
머니 제 의자가 전기의자라는 것을....

돈을 이렇게 쓰지 마시라고 큰 소리를 쳤지만, 마음이 흐뭇해 눈물이 나오더군요.

그래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눈 높이에 맞춰어 움직인다면 참말로 아름
다운 세상이 될 것 같아요. 올 겨울도 따뜻하게 보낼 것 같아 마음
이 흐뭇해요. 사랑합니다. 할머니 고맙구요.



먹으러 오는 손님보다 **드나드는 손님이 더 많은 곳,**
주인을 닮아서 꼭 찬 만두 속만큼 **인심까지 후한 명인만두.**
가끔 지나가다 보면 다른 가게 사장님들이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
명인만두의 주인장 김조현, 조순희 사장님 내외를 만났다.

만두 속에 담긴 비밀

명인만두
김조현, 조순희

명인만두는 언제부터 운영하셨어요?

김조현 “계속 이 자리에서 7년 되었어요. 집사람이 여기서 일을 했었는데, 가게를 인
수하면서 하게 되었죠. 원래는 아파트 외장공사를 했었는데 IMF되면서 손해를 크게
봤어요. 그래서 시작하게 되었죠.”

식당이라는 장사가 처음이라 힘들지 않으셨어요?

김조현 “처음 시작은 다 힘들죠. 집사람이 음식 솜씨가 있는 편이라 처음부터 주
방을 맡아 일을 했었어요. 만두만드는 법은 본사에서 돌아서 배웠고요.”

7년 전, 상대원시장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김조현 “7년 전에는 저녁 퇴근시간에는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그
런데 구멍가게 식으로 있던 가게들이 없어지면서 장사가 덜 되고,
IMF 터지면서 공단이 줄어드니까 손님이 많이 줄었어요. 시장이
많이 죽었죠. 그때 당시에 두 사람이 만두를 만들어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팔렸는데 지금은 한 사람이 놀아가면서 해도 손
님이 없어요.”

성남에서 산 지는 24년, 상대원동에 산 지 22년이
되어간다고 한다. 김조현 사장님은 원래 원도에서
이장을 했었는데 서울에 교육받으러 왔다가 작
은아버지 소개로 조순희 사모님을 만나게 되어
2년 연애 후 결혼을 했다고 한다.



조순희 “내가 25세, 남편이 28세 때 처음 만났어요. 나이가 있어서 만났으니까 애들처럼 장난스러운 거는 없었고… 또 서로 장남, 장녀라서 무덤덤하게.. 나는 남편이 등직했던 것 같아요.”

이어서 김조현 사장님은 ‘마음씨가 참 좋아요’ 라고 대답한다.

옛날 원다방을 기억하세요?

김조현 “알죠. 친구들 많이 만났죠. 아가씨들 세네명 있고 배달다니는 그런 일반 다방이었어요. 무척 유명해서 원다방 모르면 간첩이라고 했지. 공단에 처녀, 총각이 많았으니 퇴근시간이 되면 말도 못했지. 만나는 장소가 ‘시장 앞에 원다방’, 이러면 딱 좋잖아요. 성남시 사람들이 원다방 하면 어디있는지 다 알았죠.”

라디오방송국 원다방이 생긴다고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김조현 “처음에 ‘왜 방송국을 다방이라고 하느냐’ 그런 생각을 다 했죠. 다방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낯설고 서먹서먹했죠. 생겼을 때, 사람들이 차 마실 수 있는 곳인줄 알고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은 신청곡도 틀어주고, 사연도 받고, 시장 소식도 알려 주니까 편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서로 좋구나, 생각하죠.”

조순희 “우리 막내딸 영주도 엄마, 아빠랑 듣는다고 신청곡도 많이 하고요, 좋죠. 좋은 책이나 시도 많이 나오고, 유익한 점이 많죠.”

이야기는 늦둥이 막내딸 김영주 (11살, 중원초 4)양의 자랑으로 이어졌다. 늦게 셋째가 생겼는데 딸이었다. 꼭 아들을 낳으려 한 것은 아닌데, 주변에서 ‘아들 낳으려다가 딸 낳았다봐’ 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한다. 영주는 집안에서 분위기 메이커이자 애교를 담당하고 있었다.

김조현 “셋째딸 영주 없으면 낙이 없을거 같애. 일하다 힘들어서 다투면, 개가 안마해주고 웃겨주고 그래요. 편도 잘 들어주고, 개 때문에 싸움이 안돼.”

조순희 “우리 늦둥이가 자기는 언니들 닮아서 공부 잘할 거라고 학원을 안다녔는데, 올해는 자기가 실력이 좀 떨어지는거 같으니 전과목 학원을 보내달라는 거야. 필요성을 느낀다는 거야. 그래서 학원을 다닌다니까요.”

프로야구 시즌 동안 명인만두 안의 TV에는 자주 야구가 켜져 있었다. 김조현 사장님께서 평소에 쓰시는 삼성 라

이온즈의 파란 모자에 대해 물었다.

사장님, 야구 좋아하시죠? 원래 삼성 팬이세요?

조순희 “이 양반은 기아 고정 팬이야. 작은 딸은 SK, 나는 두산. 기아 경기하면 안 봐요. 하하하”

마지막으로 두 분은 어떤 마음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김조현 “물가가 비싸지면 보통 만두 속을 감량해요. 하지만 저희는 물가 비싼게 오래 가겠느냐 이런 마음이지. 그냥 하던 대로 하자 그래요. 그래서 맨날 본사에서 혼나요. 왜 혼나냐면 10kg 한 박스를 가지고 너희가 알아서 얼마를 남겨라는 식인데 우리 가게는 그게 안남으니까 뭐라 그러는 거야. 본사에서선 100개를 만들어라 하는데 우리는 80개밖에 안 나오니까. 지금은 그냥 손님이 알아주면 되지하고 생각해요.”

조순희 “예를 들면, 본사에서 요구하기를 만두 속을 28g을 달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30~32g로 만두를 만드는 거야. 그래야 사먹는 사람도 먹음직스럽죠. 이게 습관이 되어서 줄여지지 않는 거야. 내가 사먹는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28그램 담으면 만두가 험령하니까.”

그 동안 먹었던 명인만두의 만두 속은 항상 짭 찜 있었다.

짭 찜 만두 속의 비법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김조현 “‘더불어 살자’는 그런 신조로 살아요. 우리가 배플면 언젠가는 도움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 가게는 먹으러 오는 손님보다 드나드는 손님이 더 많아요. 복권집, 쿠키로프 빵집, 시장아채집 등, 같이 밥 먹고 그래요.”

더불어 함께 하는 마음.

앞으로 어디서든 만두를 보게 되면

짭 찜 명인만두의 만두가 기억날 것이다.



훈남 2인방

남북정육점
이재경, 유민선



원다방 모임방에 앉아서 시장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 ‘어머님, 어서오세요!’ 하는 시원시원한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린다. 이 목소리의 주인공들은 남북정육점의 이재경 작은 사장님과 유민선 님.

젊은 혈기 왕성한 두 분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남북정육점을 찾았다. (아버님의 사업을 돕고 있는 이재경 님을 작은사장님이라고 표기했다.)

남북정육점에서 일하신지는 얼마나 되었나요?

이재경_ “아버님 정육점을 이어서 하는 거예요. 아버님 성함은 이상권 사장님이고요. 아버님께서 정육점을 하신지는 15년이 넘었죠. 아버님과 함께 일한 건 2년 정도 되었어요. 저는 정육일을 한지 5년 정도 되었는데, 이전에는 다른 곳에서 가서 정육기술을 전문적으로 배웠어요.”

어머님 쪽의 고모할머니가 하시던 정육점으로 이 자리에서만 3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때부터 이름은 계속 남북정육점이었다. 어릴 때부터 다녔던 정육점의 모습과 별 다르지 않다고 한다.

20대 후반의 두 젊은이는 성남 서고 1학년 때부터 친구사이였단다. 서로 잘 통하고 스타일이 비슷해서 친해졌다고 한다. 이재경 작은사장님이 함께 이 기술을 배우고 일해보자고 권유했다. 유민선 님은 남북정육점에서 일한 지 햇수로 4년정도 되었다.

이재경 작은사장님은 어떤 사람인가요?

유민선_ “성격 못된 노인네. 꼬장꼬장해서. 굉장히 고지식한 면이 있어요.”

이재경 작은사장님이 옆에서 ‘그건 헐뜯는 거 아니냐’며 했더니 ‘이것이 제일 좋은 칭찬’이라 답한다.’

유민선_ “요새 애들 갈지 않게 열심히 일하니까요. 대중 넘어가도 될 듯한데 안 넘어가는 프로다운 면이 있어요. 물건 주는 것에 대해서 간간하게 해요. 어떻게 보면 일하기가 훨씬 더 편해요. 손님한테 다 맞춰서 하니까. 여기서 일하다가 다른 곳에 가서 일하다보니 세상에 참 안좋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속이는 걸 많이 권하더라고요. 수입 육인데 한우라 속이는 곳도 많고... 여기서는 그런게 전혀 없으니까 말하는데 찢리는 게 없어서 편해요. 다른 곳은 못 버티겠더라고요.”

이재경_ “물건에 대해서 굉장히 세심하게 생각을 많이 해요. 민선이나 저나 둘 다 요리를 했었는데,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정육점이 더 생겨서 힘들지 않으신가요?

유민선_ “어느 정도 경쟁이 필요해요. 제 자신한테도 도움이 되죠. 그냥 앉은뱅이 장사 식으로 마음이 쳐져있을 수 있는데, 가게에 나올 때마다 ‘오늘도 파이팅하자’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저나 재경이나 지기 싫어하는 승부근성이 있어요.”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은 ‘훈남 마케팅’ 이냐는 질문에 두 분이 많이 웃는다.

유민선_ “할머니들이 좋아하시긴 해요. 참 좋은 부분이죠. 젊은 아가씨들한테는 인기 없고 할머니들께는 인기가 있어요.”

이야기를 들은 과묵한 이재경 작은사장님은 옆에서 ‘해뜰날 올거야’라며 울며 겨자먹기로 토닥인다.

인터뷰 중간,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의 반찬으로 나갈 고기를 사러 온 아주머니가 오셨다. 이재경 작은사장님은 ‘아이들이 편히 먹을 수 있도록 조각을 더 잘게 내주겠다’ 하니, 아주머니는 ‘그 정도는 내가 해도 되는데... 그래주면 아주 고맙죠.’라 하신다. 손님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었다.

이재경_ “제가 생각하는 장사는 정직하게 파는 거죠. 손님이 드시는 음식으로 장난치는 건 없어요.”

남북정육점은 아침 9시에 열어 밤 10시 반까지 영업을 한다. 힘이 빠지거나 마음이 축 처질 때, 남북정육점 근처에 잠시 앉아 있어보길 권한다. 그러면 힘찬 목소리와 가끔 손님께 던지는 농담을 듣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테니까.

행복한 엄마, 아내

진성떡집
김복만



어제 저녁에 담가 놓은 쌀은 시루떡이 되고, 인절미가 된다.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떡을 하나하나 담는다. 떡집은 새벽부터 분주하다. 상대원시장의 맛있는 여러 떡집 중 하나인 진성떡집을 찾았다. 작년에 열렸던 작은 음악회에 나와서 유감없이 노래실력을 발휘했던 김복만 사모님을 만났다. 밝고 고운 목소리만큼 하시는 말씀마다 기분이 좋아진다.

상대원시장에서는 언제부터 장사하셨어요?

“상대원시장에서 장사한 지 5~6년 되었어요. 우리는 은행동 은행시장에서 10년 넘게 떡집을 하다 여기로 이사왔죠. 거기서 가게 이름은 진주떡집이었어요. 그 이름이 좋다고 해서 가져오고 싶었는데, 진주떡집이라는 이름을, 새로 들어온 사람이 못 쓰게 해서 ‘진’자 들어가는 걸로 다시 지은 게 ‘진성떡집’이에요. 사실 잠시 쉬려 했는데, 원래 떡집이 있던 자리라서 자연스럽게 다시 떡집을 하게 되었지. 지금도 은행동의 오랜

단골들은 연락해서 떡 주문을 해요.”

가게는 몇 시에 시작하세요?

“바벨 때는 날을 지낼 때도 있지만, 주말에는 새벽 2~3시에 일과가 시작되죠. 살림집이 바로 위에 있어서 그래도 편해요. 평상시에는 4~5시 떡집들이 어디든 제일 빨리 시작하죠.”

중매로 만난 박학범 사장님을 만나면서 호감이 생겼고 결혼을 하게 되었다.

“나는 친정이 성남이에요. 그런데 서울로 시집을 갔지. 친정이 여기 있으니까 신랑을 데려오기 쉽더라고. 하하. 우리 애 아빠가 하는 말 중에, 물건은 마음에 안 들면 버릴 수 있지만, 사람은 못 버린다.’고 해요. 아무래도 내가 마음에 들었으니깐 안 버린 거겠지? 하하.”

조곤조곤 말씀을 어쩔 이렇게 구성지고 재미있게 하실까. 여자 둘이서 수다꽃이 피었다. 사장님과 사모님의 결혼 이야기가 아직 미혼인 내 결혼 이야기로 이어져버렸다.

새벽 4시, 상대원시장에서 제일 처음으로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는 가게가 있다.



“빨리 결혼하는 게 효도야. 효도, 어떻게 할 생각이야? 한번 물어보고 싶어. 일보다 가야 해. 엄마에게 효도해요. 시집 가보면 일보다 더 좋아요. 세상에 태어나서 길거리 잡초도 남기는데, 왜 혼자 살 생각을 해?”

김복만 사모님은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극진했다. 슬하에 귀염둥이 막내딸과 잘생긴 아들을 두었다.

“귀염둥이 막내딸이 있는데,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우리 아들과 딸이 모두 예뻐요. 우리 아들, 딸 사진 보여줄까요? 참 잘 생겼죠? 나는 딸을 위해서 일기를 써요. 나중에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어’라고 보여주면서 선물로 줄 거예요.”

군대 간 아들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이목구비가 뚜렷해 늙음하고 멋있게 생겼다. 이 때, 가게 안으로 따님 시댁에 여러 종류의 떡을 해서 보낸다는 손님이 주문을 하러 들어왔다. 그 사이, 바깥의 떡 손님이 왔길래 내가 비닐봉투에 떡을 담고 계산을 도와드렸다.

“상대원시장에서는 이제서 5년 만에 떡맛에 대해 입소문이 난 것 같아요. 장인정신을 가지고, 좋은 재료만 쓰는 거죠. 뭐든지 음식은 재료가 좋아야 해요. 향내가 날 정도로 맛있는 재료만 써야지. 그리고, 변함없이 꾸준하게 손님들을 위해 정성껏 하는 거죠. 손님들한테 항상 웃어야 하고, 청결해야 하는 건 기본이고요.”

원다방과 라디오 방송에 대한 느낌을 물었다.

“라디오요? 좋을 때 있죠. 알림방송, 행사 같은 거 할 때는 좋아요. 저 위쪽 스피커에서 은은하게 나올 때 다 들어

요. 그리고 필요하면 또 내가 켜요. 듣고 싶은 건 듣는 거죠. 듣고 싶을 때 스피커를 켜놓으면 지나가는 손님들이 두리번대요. 그리고 가르쳐드리죠. 여기 원다방이라고 라디오방송국이 있다고 알려주죠.”

작은음악회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작년엔가, 원다방에서 처음 작은음악회 할 때, 무대에 서서 한번 하라고 해서 했지. 나는 사실 부끄러워요. 창피해... 그래도 이만하면 어딜가도 음치는 아니니까 한 거죠. 그렇게 나는 재미있게 살아요. 하하.”

즐겁게 이야기를 나눈 후, 가게 안과 바깥쪽 사진을 찍는데 한쪽 편에 붙은 메모가 눈에 띈다. 박학범 사장님이 좋아하는 노래인데, 가사를 적어 붙여 놓았다고 하신다. 그 메모를 사진으로 남긴 후, 나중에 찾아보니 남진, 장윤정 님이 부른 ‘당신이 좋아’의 가사였다. 이 노래를 들으며 박학범, 김복만 사장님 내외를 떠올렸다. 두 분의 사랑이 노래 가사처럼 넘쳐나시길, 또 언제나 행복한 가정이 되시길 빈다.

‘그대는 내 운명, 당신도 내 운명. 하늘 아래 그 무엇도 짝이 안 되지. 그대는 꽃 중에 꽃. 당신은 별나비. 환상에 해피한 꽃과 나비지. 아아~ 꿀맛같은 그대 사랑에 내 인생을 걸었잖아. 비가 와도 좋아. 눈이 와도 좋아. 바람불어도 좋아. 좋아 좋아. 당신이 좋아.~’





상대원 시장의 ‘따도남’

시장어묵
김상민



원다방 방송국의 최다 신청곡 신청자,

작은음악회 최다 출연자, 원다방 방송에 자주 참여하며 DJ들을 신나게 해주는 남자.

상대원시장의 따뜻한 도시 남자,

시장즉석어묵의 김상민 님을 만났다.

원래 라디오 듣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어렸을 때 듣고 커서는 안 들었죠, 여기서는 바쁜 시간은 바쁘고 나머지 시간은 할 게 없어서 심심해요. 그래서 DJ님들도 다 자기 일이 있는데 나와서 방송하시는 거 보면, ‘나라도 신청곡 하자’ 한 게, 그렇게 된거죠.”

노래를 신청하는 기준은 뭔가요?

“그 날 따라 듣고 싶은 노래를 신청해요. 거의 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제일 많이 신청한 곡은 임재범의 ‘낙인’ 이에요.”

원다방 방송 중에 어느 프로그램이 제일 재밌으세요?

“누님뉴스요. 길순 아줌마가 하는 건 다 좋아요. 목소리가 구수하잖아요. 웃긴 얘기 하나까 재밌어요. 재밌으니 그렇게 좋은 거죠.”

원다방 DJ들은 김상민 님을 ‘시장어묵 삼촌’이라 부른다. 시장즉석어묵은 약 20여년 된 상대원시장의 유일한 어묵가게이다. 어묵 만드는 일을 한 지는 4년, 상대원시장에서 다시 일하게 된 건 2009년 7월부터란다. 이 일을 하기 전에는 회사도 다녔고, 남들 해본 건 다 해봤단다.

작은음악회, 노래자랑은 먼저 신청하신 건가요?

“네. 신청한 거예요. 원래 무대공포증이 심한데... 꼭 사람들 많은데 앞에 나가서 무대 위에 혼자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이렇게 가슴이 많이 뛰고 그랬는 데요, 벌써 네 번이나 나갔죠. 도둑질도 하면 할수록 는다고. 하핫”

드디어 무대공포증을 극복한 건지, 10월 작은음악회 무대에 올라갔을 때는 하나도 안 떨렸단다. 무대에 오르기 전에 이틀동안 열심히 연습했다.

누구와 동행했는지 물었더니, 시장에서 친해진 동갑친구들 이야기가 나온다.

“현대직판장 안에 쿠게로프 빵집이랑 핸드폰 판매점 친구요.”

얼마 전, 쿠게로프 과자점의 김수정 사모님이 시장 친구들과 동대문 새벽시장에 다녀온 이야기를 사연으로 적어 보낸 것이 기억났다.

세 분이 모두 동갑이세요?

“네. 같이 맥주 한 잔 하기도 하고 가끔 드라이브를 갔다오기도 하죠. 저는 힘들어요. 아픈 데도 막 꼬집어달라고 하고, 하하. 남자가 저 혼자라 아무래도 조금 신경쓰이기는 하죠. 남자들이야 뭐 아무거나 막 거칠게 이야기해도 되는데, 여자들 앞에서는 조심해야 하고... 그렇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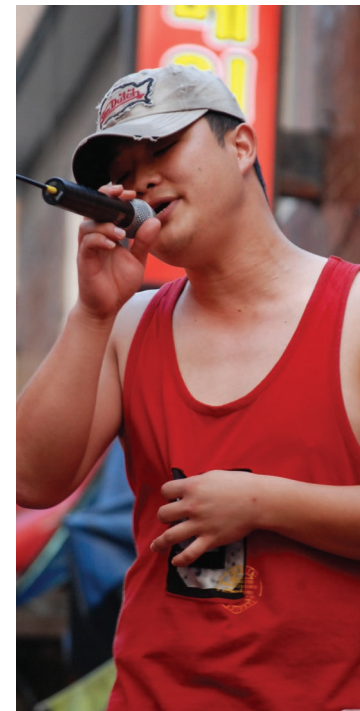
가게 안쪽에 장식되어 있는 입체 종이 장미꽃은 김상민 님이 직접 만든 작품이라 한다. 취미 생활로 종이접기를 했는데, 손으로 하는 것, 특히 종이 접기를 꾸준히 더 해보고 싶다고 했다.

쉬는 날에는 무엇을 하세요?

“야구, 운동하러 가요. 사회인 야구, 이천팀에 속해 있죠. 포지션은 3루.”

2부 리그, 2위라는 소속팀에서 타석 1번부터 3번까지 왔다갔다 하며 출루를 책임지는 잘 나가는 3루수였다. 프로야구 응원팀은 LG. 1987년 원년부터 MBC 청룡팬이라 전적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단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반죽을 예쁘게 빚어 맛좋은 어묵을 튀겨냈고, 아기가 먹기 편하게 어묵꼬치를 나무젓가락으로 바피줬으며, 손님들이 원하는 어묵만 잘 골라 척척 담아내는 김상민 님의 전화 한 통, 신청곡 한 곡은 원다방에 전해 준 관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다음 해에도 작은음악회 무대에서, 사회인 야구 대회 결승전 3루에 김상민 님이 서 있기를 바래본다.



오늘도 행복한 아침

쿠키로프 과자점
김수정



어느 날, 상대원라디오방송국 다음 카페에
‘오!우.아’ 라는 닉네임이 눈에 띄었다.
‘오늘만 우울한 아침’ 의 준말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라디오 방송에서 소개된 여러 사연들 때문이었다.

그리고, DJ들 사이에서 쿠키로프 빵집에 대한 칭찬이 자자했다. ‘성실하고 마음씨도 착하다’, ‘빵을 꾸준히 후원한다’ 등의 여러 이야기들을 전해 들은 후, 현대직판장 안의 쿠키로프 과자점에 방문했다. 바쁘게 움직이는 김수정 사모님께 인터뷰를 청했다. 우리가 동년배인 것을 알게 된 후부터 한참동안 둘의 수다는 끝날 줄 몰랐다.

가게를 연 지 얼마나 되셨어요?

2009년 7월에 오픈했어요. 제과점 하는 분들이 몇 군데 새로 가게 차릴 곳을 소개해줬는데, 그 중 한 곳이 상대원시장 여기였어요. 이 곳 시장이 규모는 작지만 유동인구가 많아서 여기로 골랐죠. 신랑하고 저하고 가게 자리 보러 왔다가 배고파서 들어간 곳이 바로 ‘명인만두’예요. 시장에 대해서 잘 알지 거라 생각하고 여쭙보니 못하게 하셨죠. 그런데, 그 땐 이미 마음을 먹고 있던 상태라 그냥 오픈했죠.”

원다방을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지나다니면서 ‘원다방’ 간판을 봤는데, 누가 책자를 주셨어요. 언니들한테 물어보니 신청하면 신청곡도 틀어주고 사연도 읽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게 되었죠. 제 하루의 일상적인 일들이나 하고싶은 이야기랑 신청곡을 적었어요. 현대직판장 안에는 라디오가 들리지 않으니까, 사연을 쓰고 라디오방송은 인터넷으로 다시 듣고 그래요.”

‘오늘만 우울한 아침’으로 닉네임을 쓰는 이유는요?

“아기아빠랑 같이 일하다 보니까 많이 싸우게 돼요. 그게 참 싫은 거예요. 옛날엔 이렇게 싸우지 않았는데 하면서 우울한 마음이 들 때 편지를 쓰고 싶어요. 마침 원다방을 알게 되어서 사연을 쓰는 거죠. 오늘만 우울한 아침매인데 여기서 ‘오늘만’ 이 중요해요. ‘난 오늘만 우울하고 안 우울할 거야,’ 그런 의미로 썼어요.

사장님하고는 어떻게 만나셨어요?

“제가 순천에서 빵을 배웠었어요. 수원에 있는 굉장히 큰 제과점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거기에 남편이 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났죠. 그때도 새벽에 나와서는 끝나는 시간이 일정치 않으니 다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죠. 1년 반 정도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결혼 후, 세 아이의 엄마로 집에서 살림만 하다가 사람을 상대하는 장사를 시작하니 많이 힘들었던다. 빵을 만들기 위해 사장님은 아침 7시에 출근하고, 김수정 사모님은 8시 반에 출근한다. 가게는 밤 11시에 닫는다. 생활패턴이 가게를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아이들 이야기 좀 해주세요.

“큰 딸이 8살, 큰 아들 6살, 작은 아들 3살이에요. 딸을 원했는데 아들만 주시더라고요. 하하. 애들이 많아지니까 가득 품고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사회가 물질적인 걸 많이 추구하는 분위기이다 보니 애들한테 많이 못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많이 미안해요. 대개는 한 명 낳아서 헌신적으로 하는데.. 잘 해주지도 못하면서 왜 셋씩이나 낳아서.. 그래서, 셋째를 가졌을 때 아이 셋인 언니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네가 두 애들한테 줄 사랑을 하나한테 더 나눠주는 거다’ .라고 하대요. 당시엔 그 뜻을 몰랐는데 셋을 키워보니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원다방의 작은음악회가 열릴 때마다 상품으로 빵과 케익 등을 가져다 주는 모습을 보았다. 원다방에 사연을 적은 종이를 가져올 때도 빈 손으로 오는 법이 없었다.

“시장이 살아난다면 시장 사람들한테도 좋은 거고, 저희한테도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은 힘이 약한거 같아서 많이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가게마다 파는 물건 하나씩 내놓으면 더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을 거예요. 시장의 활력소가 될 수 있는게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시장에서 라디오를 한다는게 재미있게 느껴져요.”

‘그 날 만든 빵은 그 날에만 판매한다’는 원칙을 둔 쿠게로프 빵집의 전달 만들어진 빵은 만남의 집과 독거노인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전달된다.

“처음에는 다른 분을 통해서 가져다 드렸는데, 하루는 어떤 할머니가 오셔서 ‘남은 빵은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본 인한테도 조금만 달라고 하셔서 드렸는데, 할머니가 후원물품 수령증을 가져 오시는 거예요. 믿음이 가더라고요. 수정복지관에서 오셨는데, 우리 빵이 할머니, 할아버지께 전달이 되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오셔서 ‘어제도 빵 갖다놔어’ 이러시니 보람이 있죠. 만남의 집도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저는 뭐 한 게 없어요. 다른 분들이 알아서 가져다 주시니 저희가 더 감사한 거죠.”

시장에서 친한 사람들이 있냐는 질문에 시장즉석어묵의 김상민 님과 현대직판장 내 핸드폰 매장에 동갑 친구들이 있어서 너무 기뻐했다고 대답했다.시장 안에서 친구를 만났다는 것이 너무 반가웠단다.

답변을 들을 때 마다 상대원시장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과 남을 위하는 착한 마음씨까지 느껴졌다. 원다방 DJ님들의 칭찬이 사실임을 알게 되었다. 이런 분들이 곳곳에 있다는 것은 무척 살만한 세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만난 김수정 사모님은 ‘오늘만 우울한 아침’이 아니라
진정 ‘오늘도 행복한 아침’이었다.
분명히 내일도 모레도 이어질 그런 행복 말이다.

김수정 사모님은 하얀 종이에 정성스럽게 적은 손편지를 매주 2~3번 원다방 라디오에 직접 가져다 주셨다. 그 사연 중,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묻어있는 사연 한 편을 싣는다.

@느낌표 14

From.
'오늘만
우울한
아침'

장사한지 1년

저도 장사를 시작한지 1년이 다되어가네요. 1년이 이렇게빨리 올 줄 생각도 못했어요. 이 1년 사이에 우리 가족에게많은 일들이 일어났나 봅니다. 저희 큰 애는 1학년이 되었고 상대원꼭대기대앞 초등학교 앞에서 직판장을 차아오고 이 골목 저 골목 저보다 길도 많이 알려고요. 그리고 한 개도 못했던 줄넘기를 45개나 하는 거있죠. 아직도 애기지만 한참 애기라고 생각했는데 혼자서 이것 저것하는 거 보니 반갑이 교차하더라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일기 쓰는게재미있다고 하네요. 바빠줄 놓고만 싶대요.

저희 둘째는 관심을 받고 싶어 일명사고를 좀 치네요. 누나와 동생 사이에서살아남기 위한 둘째들의 고집 스텝 모습이 좀 더 심해진 거 같아요. 제가 장사하기 전엔 "우리 감이인 어떤 사람?" 음변 "예쁜 사람" 하고 이렇게애고있게말하던 녀석이었는데, 이제 신경질적이고 너무 거칠어워서 많이 속상해요. ㅠ_ㅠ

저희 셋째는 16개월때이런이집 중일반에말려항상 미안함이 있어요. 엄마의 손길이 한참필요한 시기인데... 그 아이가 벌써 28개월. 이제 말도 재밌하고 의사표현 확실하고 기쁨소리와 함께뛰어다니면서발차기까지하더라고요. 그리고 쉬가미러우면 "슈~" 이러구요.

할머니가 없으면 울면서할머니를 찾아요. 우리 아그들 이렇게많이 컸는지 이제야알았습니다. 이 아이들을 이렇게키워내느라 우리 엄마 또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이제야알았습니다. 그 무심했던 1년을... 오늘처럼 더딘 속도로 식어가는 빵처럼 우리 가족에게도 서서히 변화가 온 거겠죠. 제가 불쌍을 뿐...

많이 달라진 아이들의 모습. 많이 힘들어하시는 엄마의 모습이 왜 이제야 보이기 시작하는 걸까요? 아 니... 항상 저한테 이야기를 했는데제가 모른척한 거 같아요. 앞으로 제가 어떻게해야할까요? 잘음빠하 는데잘하면되는데미안속이 복잡하네요. 이집부터 괜한 소리 적네요. 오늘도 화팅요! 신명곡 '재밌고 행복날' 들어주세요!



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며

두부마을
박화자



어렸을 적, 아침마다 딸랑딸랑 종소리에 잠을 깬다.

방울소리가 나면 엄마는 동전 몇 개와 그릇을 가지고 밖으로 나간다.

잠시 후, 엄마가 들고 온 그릇에는 **두부 한 모**가 담겨 있다.

그 날 아침상에는 두부된장찌개가 올라오고
도시락 반찬으로는 두부부침이 들어있곤 했다.

이제는 돌아다니는 두부 장사 아저씨를 만날 수는 없지만, 곳곳에 손두부 집이 생겨 맛있는 두부를 맛볼 수 있다. 원다방 DJ들의 완소 단골 두부집인 '두부마을'. 아침 7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끈한 두부를 살 수 있는 곳. 두부마을의 박화자 사모님을 만났다.

상대원시장에서 장사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2007년부터 했으니까, 3년이 좀 넘었어요. 직장 다니다가 누가 한번 해보라고 해서 시작하게 되었는데... 장사는 처음해보는 거예요. 장사라는 게 힘들기도 하고 사람 상대하는 일이니까 스트레스도 많죠. 경험삼아 하고 있어요."

가게를 내려고 여러 곳을 다녔지만, 길 보다는 시장 안쪽이 입지가 나을 것 같아 상대원 시장으로 결정했다고 한다. 여기서 직접 만드니까 '손'과 '두부'를 간판에 넣고 '마을'이

라는 단어까지 덧붙여서 가게이름을 짓고 간판을 달았다. 가게를 내고, 처음에 장사가 너무 힘들었다고 한다. '장사돈은 개도 안 물어간다'는 이야기만 들어봤지, 실제로 해보니까 이 이야기를 이해하겠더라. 장사 선배들이 '잊어버리고 흘러버려라'는 조언을 귀담아 듣고 현재는 이 순간에만 충실하려고 노력한다.

아침 6시, 엄윤식 사장님이 가게 문을 연다. 전날 콩을 담가놔다가 약 1시간 정도 걸려 두부를 만든다. 아침 7시, 8시면 직접 만든 따끈한 두부가 나온다. 보통 밤 9시, 10시에 문을 닫는데, 그 때쯤 되면 그 날 만들어진 두부는 모두 팔린다.

DJ님들이 단골이라고 하시는데요, 맛있는 두부 맛의 비결이 있나요?

"주변에 두부집이 많이 생겼어요. 우리 가게가 생기고 나서 두 세군데 더 생겼나봐요. 그래서, '품질, 맛으로 승부하자!'라고 생각했죠. '남보다 깔끔하고 맛있게 만들자', '날짜도 정확하게 지키자'고요. 우리는 천연간수에 소금도 직접 현지에 가서 사와요. 그리고 날짜 하루만 넘겨도 그냥 우리가 다 먹어버려요. 신기하게도 맛있게 만들려고 마음 먹으니까 단골이 많이 생겼어요."

성남 토박이 박화자 사모님은 원래 서울 용두동에서 살다가 초등학교 때, 성남으로 이사왔다고 한다. 엄윤식 사장님은 고향이 강원도인데, 부모님을 따라 와서 성남 사람이 되었고, 같은 직장 동료로서 오랜기간 지내다가 부부의 연을 맺었다고 한다.

"직장도 성남이었어요. 결혼한 지는 22년 됐고, 쌍둥이 딸만 둘이에요. 딸들 나이는 이제 스물 둘. 결혼전에 우리는

직장동료로 알고 지낸 지가 7, 8년 넘었어요. 어느 날, 같이 술 한잔 먹다가 '우리 결혼할까?' 얘기가 나왔지. 하하하. 프로포즈는 남편이 먼저 했고, 나도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해서 결혼했지.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결혼 전이랑 많이 다르다. 하하하."

라디오방송국 원다방에 대해서 물었다.

"작은 간판을 예쁘게 만들어준다고 하길래, 젊은 친구들한테 알아서 예쁘게 달아달라 했지. 지금 낮에 하고 있는 라디오 방송은 틀어놔요. 낮 3, 4시에 졸릴 때면 크게 틀기도 해요. 남편이 좋아하는 음악 나오면 또 크게 틀기도 하고... 식막하게 있는 것보다 라디오 틀어놓는 것이 나아요. 맨 처음에 한 집에 스피커를 하나씩 달았을 때는 시끄러웠는데, 두 집에 하나씩 트니까 괜찮더라고요. 라디오 방송, 그런대로 매력이 있어요."

성남 토박이로서, 성남에 대한 느낌은 어떠세요?

"나는 성남이 편하고 좋아요. 예전 성남의 이미지와 많이 달라졌죠. 오래 살아서 그런지 성남이 괜찮다고 생각해요. 성남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공단이 있어서 서민들 일자리도 많고요. 물가도 그렇게 비싼 편도 아니고, 성남 사람들도 좋고, 남한산성 있는 것도 좋고, 성남에서 서울 다니는 차편이 편하니까 성남 떠나니가 싫어. 앞으로 성남이 지금보다 점점 더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박화자 사모님의 바람처럼
내일은 조금 더 나은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아침 6시면 어김없이 가게문을 여는
두 분의 얼굴이
활짝 피는 그 날이 오길 바라본다.

든든한 지원군

시장피자
이성경



상대원시장 골목의 첫 입구.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시장에 나온 아이들이
쉽게 지나치지 못하는 곳.

닭 미니튀김과 핫도그를 받아 든 꼬마는

이미 볼 한 가득 채워 맛있게 먹고 있다.

옛날식 핫도그가 아직 남아있는 곳. 시장피자의 이성경 사모님을 만났다.

상대원시장에서 장사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2008년 7월부터 장사했으니까, 2년 정도 되었어요. 오기 전에 직장생활을 꾸준히 했었죠. 라디오방 송국 원다방보다 조금 더 빨리 들어왔죠.”

피자, 튀김류로 가게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으세요?

“여기가 원래 피자집, 닭 튀김집이었어요. 그래서 피자를 이어서 하게 되었어요. 작은 튀김도 같이 하게 되었죠. 다른 집들보다 가격도 저렴해요.”

원래 음식을 잘 하셨냐는 질문에 이성경 사모님은 웃으신다.

“아니요, 저는 음식을 잘 하는 건 아니었고… 여기는 각자 분담이 다 있어요. 피자는 사장님이 다 만 드시고, 튀김류는 여기 함께 도와주시는 아주머님이 하시고.”
‘사모님은 총 감독역할을 하시고요?’ 라고 물었더니 또 한번 더 웃음을 지으신다.

원다방이 처음 생겼을 때, 현재 가지고 있는 느낌에 대해서 질문했다.

원다방 라디오 방송, 어떠세요?

“좋아요, 저는 라디오방송국 원다방 처음 시작할 때, 라디오 드라마에 한 번 출연했었어요. 직접 스튜디오에 올라가서 육성으로요. 원고를 주신 것을 보고 읽기만 했어요. 처음이라 기분이 떨리긴 했지만 참 재밌었어요.”

한번 더 해주세요.

“여기 분들, 시키면 다 해요. 저도 안 했었는데, 하라고 많이 권해서 했죠. 다들 관심들은 많은데 쑥스러워서 못하시는 거죠.”

원다방에 바라시는 점이 있으시다면요?

“지금도 잘 하시니까요, 꾸준히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화로 참여할 수 있는 코너들이 생기면 노래 잘 하시는 분들이 전화로 참여해서 노래하시는 것도 좋겠고… 저는 듣는 것은 다 좋아요.”

말수가 적고 단아한 외모의 이성경 사모님은 인터뷰 하는 동안, 원다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많이 도우려는 마음이 전해졌다. 이후, 11월 22일에 있었던 김장 나눔 행사에도 참여하셔서 열심히 김치를 담그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원다방 뒤에서 잘하라 어깨를 두드려주고, 힘들어 주저했을 때 일으켜 주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 그 분들 중에 이성경 사모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에 상대원시장에 갈 때, 항상 그러듯이 반갑게 인사를 드려야겠다. 그러면 언제나 그렇듯 눈인사로 받아주실 이성경 사모님. 그리고 옛날 핫도그도 하나 사 먹어야겠다. 아~ 군침 돈다.

V 특별한 12월, 봄을 기다리며

원다방의 힘찬 도약



12월, 매해의 마지막 달.

하지만, 원다방의 2010년 12월은
새롭게 시작하는 달이 되었습니다.

신나는 라디오방송국 원다방
후원회 조직을 위한
2010년 송년회 풍경을 담았습니다.



12월, 새로운 2011년 준비 ‘원다방 송년회’

12월 9일, 2010 원다방 송년회가 열리는 날, 이 날 원다방 안은 송년회 준비로 바빴다. 갖가지 음식과 음향, 마이크 등을 준비하느라 DJ들과 실무위원들은 바쁘게 움직였다. 메밀 전과 편육, 떡과 2주 전 김장나눔행사에 담긴 잘 익은 김장김치가 상에 올려졌다. 추운 날씨에 오시느라 수고한 손님들의 몸을 녹여줄 어묵국도 끓였다. 오늘 송년회 준비는 박정숙 실무위원장 님, 장미라 방송국장님, 이길순 엔지니어 님, DJ 박신명 님, 장은화 님, 박인자 님, 손종구 님과 함주부의 양희정 님이 모두 함께 준비했다. 나는 약 100여장의 상대원시장 모습이 담긴 사진을 인화하여 전시하라는 임무를 맡았다. 송년회가 끝나면 각자 나온 사진은 선물로 드리기로 했다.

시간이 가까워 오자 손님들께서 삼삼오오 도착했다. 그동안 작은음악회를 크게 빛내주신 상대원 2,3동 노래교실 회원들이 제일 처음 도착했고, 매주 출연 중인 성남방송고등학교 류경선, 김안식, 방동일, 노운택 군이 도착했다. 이어서 참사랑 복지회 여러분도 원다방 송년회를 축하해주러 오셨다. 원다방의 자문위원 유근주, 지관근 시의원님, 조광주 도의원님, 김국남 상인회장이 오셨고 성남시청 문화예술과 김국봉 과장님, 이희식 주사님과 성남 문화재단 노재천 국장님, 박승현 부장님, 이영진 부장님도 도착하셨다.

시장에서는 쌍둥이기름고추 박현수 사장님, 영동건어물 김승만 사장님, 명인만두 김조현 사장님, 두우리국밥 윤여덕 사장님, 평택신발 손웅일 사장님, 대왕숯불갈비 박영출 사장님, 시장야채 박정미 사장님, 이제근 통장님이 오셨고 송년회가 끝나갈 무렵 밤늦게 쿠게 로프 과자점 김수정 사모님과 명인만두 막내딸 김영주 양이 잠시 들렀다.

모인 손님들은 송년회가 시작되기를 기다리며, 새로 나온 따끈한 소식지를 읽었다. 약 1달 간 준비한 소식지에는 2010년 원다방의 다채로운 활동과 상대원시장의 정겨운 가게 소개가 담겨 있었다. 드디어 송년회가 시작되었다.



첫 순서로 '신나는 라디오방송국 원다방'의 지난 3년간 행적을 영상으로 시청했다. 원다방 스튜디오에서 첫 방송했을 때의 모습, 상대원시장을 예쁘게 꾸미던 모습 등이 나왔고 작은 음악회와 시장 상인들의 사진이 오버랩되었다. 여기 모여 앉은 여러 사람들의 노력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영상이었다.

다음 순서로 원다방에서 조길연 운영위원장님께 선물을 전달했다. 그간 원다방을 위해 직접 발로 뛰어주신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았다고 한다. 이어서 원다방 운영위원, 실무위원, DJ들의 인사가 있었다.

오늘은 무엇보다도 원다방 후원회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자리였다. 원다방의 실제 주인인 상인들과 지역주민들이 합심하는 자리, 상대원의 상징인 '원다방'의 명맥을 이어가겠다고 마음먹는 자리, 무엇보다 '원다방'의 존립 이유를 나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자리였다. 많은 분들이 원다방 후원금 약정을 해주셨다. 시장 상인분들께서도 바로 그 자리에서 기재하여 후원신청서를 제출하셨다.

역시 흥겨운 자리에는 노래가 빠질 수 없지 않은가. 상대원 2동 노래교실 박명숙님의 노래를 시작으로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노래를 차례대로 들었다. 부르는 노래의 곡수가 많아질수록 겨울밤은 점점 깊어만 갔고 원다방의 '원'자 처럼, 상대원의 '원'자 처럼 모두가 동그랗게 둘러서서 즐겁게 노래를 불렀다. 원다방은 여러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게 느껴졌다. 더불어 원다방에 대한 모두의 마음을 확인한 날이기도 하다. 앞으로 더욱 더 큰 동그라미의 '원다방'이 되길 바란다.

2011년 원다방 파이팅!





2010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신나는 라디오방송국 ‘원다방’ 사업 참여자

운영위원장 **조길연**
운영위원 **이제근 김승만 방동환 조병희 한유진 박승현**
감사 **박영출**
실무위원장 **박정숙**
방송국장 **장미라**
엔지니어 **이길순**
자문위원 **조광주 지관근 유근주 김국남**
원다방 DJ **박신명 박인자 장윤정 장은화 박인경 김성훈**
손종구 김두산 박광천 소병익 성남방송고등학교 PD동아리

협력기관 및 단체, 도움주신 분
상대원시장 상인회
성남함께하는주부모임
상대원 3동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회
성남시 지역청소년 센터
성남중원청소년수련관
성남방송고등학교